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7 권 제 2 호 (통권 35 호)

1985 . 4

특집 2000 年을 向한 敎育長期發展構想
—學習하는 社會—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제 7 권 제 2 호 (통권 35 호)

1985. 4

김
영
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理念·目的·內容·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教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教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6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입니다.



目 次

卷 頭 言	未來를 對備하는 教育	韓 鍾 河	3
論 壇	韓國教育의 現住所	辛 世 浩	5
	—韓國教育의 先進化를 위한 綜合的 點檢과 發展方向의 示唆를 위하여—		
教育現場例	論述指導의 效率的인 指導方案	曹 大 鉉	14
特 輯	2000年을 向한 教育 長期發展構想 ——學習하는 社會——	研究總括班
	教育發展의 方向과 目標		19
	教育의 質的 高度化		27
	教育體制의 革新		33
	人力開發의 效率化		39
	教育行·財政制度의 改善		45
	2000年の 韓國教育 모습		51
研究報告	科學英才教育을 위한 政策方案研究	韓 鍾 河	57
	中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金 英 駿	63
教育學叢策	무엇을 읽힐 것인가	남 미 영	69
現場教育相	社會科教育에서의 經濟教育	崔 秉 模	73
紙上中繼	教育政策 및 教育計劃에 관한 海外情報	金 永 哲	77
教育情報	CAI Program 開發	李 南 昊	83
院內動靜		94





1 본원 제 49 회
결산 이사회 : 1985. 2. 25.(문교부 상황실)



1 미국 LA 통합교육국 교육감, Dr.Herry Handler.
본원 내방 : 1985. 3. 25.(원장실)

未來를 對備하는 教育

韓 鍾 河
(企劃調整室長·哲博)

최근 들어, 정치, 경제, 과학 및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는 未來展望(未來學)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1990年代 未來經濟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나라 경제는 1970년 후반의 先進國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과학 및 기술 수준도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지금까지 변화와 발전 추세가 지속한다는 前提下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리라고 본다. 알빈 토플러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를 未來의 衝擊이라고까지 하였다. 현대 사회의 발전을 主導하고 있는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토플러의 表現을 實感케 한다. 우선 지식의 양적 증가는 幾何級數의이다. 한편, 질적 변화를 보더라도 기술 정보의 壽命은 과거 수십년까지 가던 것이 현재는 수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未來에도 그 템포가 늦추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존 내쉬비트(John Nashbitt)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發展趨勢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變革을 刺戟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산업 사회는 지식 및 정보 사회로, 노동 중심 기술은 知識集合型 고도 기술로, 또는 전산 기술 및 로봇시스템 형태로의 변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 역시, 국가 중심 경제에서 국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고, 民主化의 가속으로 中央集權에서 地方自治로, 국가나

조직의 통제와 지배 체제에서 개인의 책임과 自律體制社會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런 변화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擴散할 것이며, 우리 나라도 예외 없이 그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변화를 강요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肯定的인 면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그 變化의 裏面에는,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過去志向의인 精神文化의 退潮를 강요하고, 과거 지향적 가치관의 혼란, 失業增加는 물론, 산업 기술의 역기능(公害)이 가중될 것이다. 한편 더 나아가서 教育의 落後性으로 현재와 미래의 갈등을 심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이(Jeremy Rifkin)는 엔트로피(entropy)의 증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엔트로피는 熱力學 제 2法則인데, 제 1法則을 보완 설명하는 개념이다. 즉, 제 1法則은 宇宙내 物質과 에너지는 保存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질과 에너지는 만들 수도 破壞(消滅)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變換시킬 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변환은 有用性(usable)에서 非有用性으로, 可用性(available)에서 非可用性으로, 秩序에서 無秩序로 변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때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만 한다. 따라서 未來 社會는 엔트로피적 면모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리프킨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宇宙의 엔트로피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未來는 결코 장미빛 社會만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敎育이 이런 엔트로피적인 변화에 전혀 對處하지 못하고 落後되기 쉽다는 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현재의 敎育은 너무나 過去志向의이라는 점이다. 즉, 과거 지향적 방법, 과거 지향적 가치관에 집착하여 있다는 것이다.

未來社會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복잡성의 深化, 혼란의 加重, 변화의 加速化에 따른 무질서에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과거 志向的 敎育方法으로는 도저히 未來社會에 對處하기 어렵다는 것이 未來學者들의 주장이다. 미래 사회는 새價値의 창조, 과거형의 질서가 아닌 미래형의 질서 창조를 渴求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敎育은 방법면에서나 내용면에서 舊態依然한 過去志向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현재의 敎育內容은 전통적인 지식 분류 체계에 의한 과거형 지식을 고수하고 있고, 敎育 방법 역시 이를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매달려 있다. 未來에 걸맞는 創造的經驗, 미래 지식의 探究經驗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 사회는 산업 구조를 보더라도 비교적 단순하였고, 기술 수명도 길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 또는 지식만 배워도 오래 利用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 단순 지식 전달 敎育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또, 과거 사회는 비교적 단순 사회에서 획일적인 가치관, 수직적인 가치관이 수용되기 쉬웠다. 따라서, 가치관 敎育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창조 敎育이나 복잡한 사고 敎育보다는 간단한 지식을 가르쳐 응용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敎育 방법으로는 원만한 人間을 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 未來學者들의 비판의 요지이다.

오늘날 敎育을 받는 世代는 미래 사회에서 生活을 營爲할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한 敎育이라

면, 당연히 未來를 對備한 敎育 내용과 방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過去志向的인 慣行과 慣習의 틀에서 맴돌고 있다는 미래 학자들의 비판은 귀담아 들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近年에 이런 과거 지향적 敎育 방법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敎育 改革運動이 전개된 적이 있었다. 1960년대 미국의 과학 敎育 혁신 운동이 그에이다. 그 때 혁신 운동은 學問中心 敎育 사상에 입각하여 과학 敎育 과정을 대폭 개선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최근 그 效果가 없다는 평가를 미국 스스로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실패한 원인의 裏面에는, 어떻게 보면, 過去志向的 思考方式에서 탈피 못한 敎育現實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초·중등 학교에서는 아직도 과거 지향적 지식 중심 敎育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科學敎育은 “순수” 과학 지식 전달 敎育으로만 치달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多學問的 關係에 의한 問題解決力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는 것이 그들 敎育 현실이었다. 요컨대, 미래 사회는 보다 創意性을 요구하고, 보다 批判的인 사고, 獨創的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데 오늘날의 일선 학교 敎育 과정은 이를 수용하는 데 아주 인색하다는 점이다.

미래 사회는 보다 강도 높은 人本主義 哲學에 입각한 敎育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의 敎育 방법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얽매어 知識의 量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고의 틀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吳天錫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未來志向的 敎育이 되려면, 敎育 과정은 물론, 敎育制度, 敎育體制 전반이 과거 지향의 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敎育 방법은 敎育 학도의 탐구 대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敎職者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韓國教育의 現住所

—韓國教育의 先進化를 위한 종합적 점검과
發展方向의 시사를 위하여—

辛 世 浩*

I. 韓國教育 40年의 量的 成長과 變化

해방을 맞이하여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억압되어 왔던 국민의 교육열은 교육의 폭발적인 量的 成長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국 교육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양적인 성장 속에서 새로운 變動과 發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을 教育의 機會擴大와 教育與件의 擴充이라는 準據에 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教育의 機會擴大

한국 교육의 성장 준거의 하나로서 교육의 기회 확대는 교육 기관에 대한 接近機會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서 學校數, 敎員數 및 學生數의 增加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당시와 비교할 때 1983년 현재 학교수는 초등이 2.3배, 중등이 3.1배, 고등 교육은 22.5배의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교원수도 초등이 6.4배, 중등이 106.6배, 고등 교육이 20.2배 증가하였으며, 학생수에 있어서는 초등이 3.9배, 중등이 62.1배, 고등 교육이 214.3배로서 교육 인구의 놀랄 만

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의 증가는 국민 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과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 학교 진학 상황을 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중학교 진학률이 1955년 49.4%에서 1983년 현재 98.5%로, 고등 학교 진학률은 54.6%에서 89.4%로, 그리고 고등 학교에서 대학교의 진학률¹⁾은 1970년의 24.6%에서 1983년 61.1%²⁾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학 적령 아동과 취학생수를 비교한 각급 학교의 취학률은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거의 완전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 학교는 1983년 현재 77.2%로서 보편화 단계에, 고등 교육은 27.9%로서 대중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就

〈표-1〉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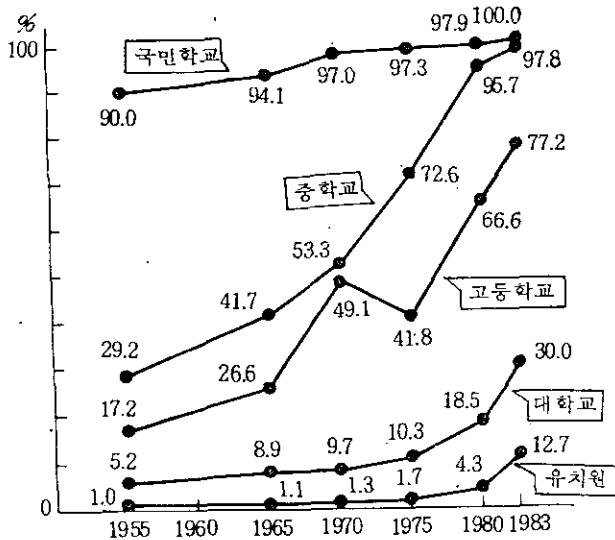
구 분	1945년(A)	1983년(B)	증가율(A/B)
학교수	2,834	6,500	2.3
초등 교원수	19,729	126,163	6.4
학생수	1,366,023	5,266,147	3.9
중등 교원수	1,279	3,962	3.1
학생수	1,186	126,459	106.6
고등 교원수	19	428	22.5
학생수	1,490	30,049	20.2
대학 교원수	7,819	1,675,969	214.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84.

* 本院 副院長·哲博

1) 진학률=상급 학교 1학년 학생수/하급 학교 졸업생수

2) 1학년 입학자 수를 당해 연도 고졸자로 나는 것임. 입학자 중 재수생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과장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그대로 쓰기로 했음. 재수생이 없을 경우 당해 연도 졸업자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될 것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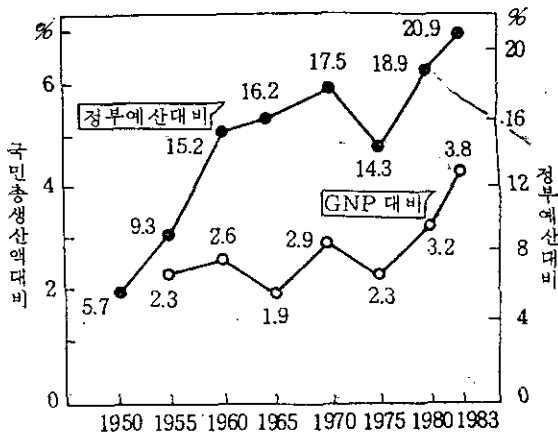
[그림-1] 학교 급별 취학률

學率은 개발도상국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教育의 與件擴充

교육의 여건은 크게 인적인 측면의 교원, 행정 직원과 물적인 측면의 시설, 재원 등을 포함한다. 교육체제의 성패 여부는 이들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조직화하여 教育目標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 확대로 특히 학생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敎員 1인당 학생수는 1983년 현재 초등의 경우 1945년의 69.2명에서 41.4명으로, 중등은 64.5명에서 36.8명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고등 교육의 경우는 학생들의 급격한 팽창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해방 당시의 5.2명에서 1983년 현재 35.8명으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學級當 學生數도 정부의 교육 시설에 대한 投資로 초등의 경우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중등은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악화된 실정이다. 즉, 초등은 1965년의 65.1명에서 1983년 현재 46.6명으로, 중등의 경우는 1965년의 57.5명에서 60.8명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그림-2] GNP 및 정부 예산 대비 문교 예산 비율

教育財政은 교원, 시설 등 제반 교육 자원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며,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投資의 증가 추이는 GNP, 政府豫算에 대한 文教豫算의 변화 추이에서 알 수 있다. GNP 및 정부 예산에 대한 문교 예산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NP에 대한 문교 예산의 비율은, 1955년의 2.3%에서 1983년 현재 3.7%로, 그리고 정부 예산에 대한 문교 예산의 비율은 1950년 5.7%에서 1983년 20.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교급별 公教育費도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더하여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왔다. 즉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학교의 경우 1970년 11.6천원에서 1983년 현재 253.8천원으로, 대학(교)의 경우는 156.7천원에서 1,292.9천원으로 각각 21.9배, 8.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초·중등에서는 물론, 고등 교육

<표-2>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천원)

구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¹⁾
1970	11.6	24.5	31.9	156.7
1975	26.5	40.2	73.2	312.8
1980	118.5	157.2	149.7	1,036.3
1983	253.8	267.8	376.2	1,292.9

주: 1) 전문대학은 제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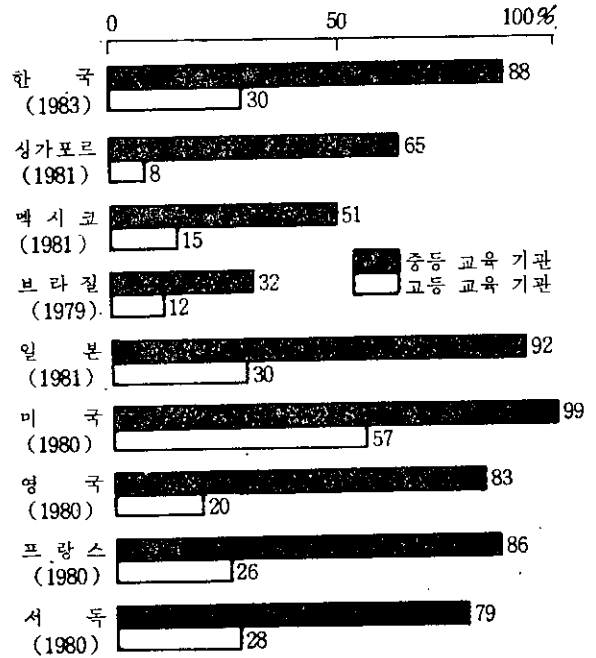
거획에 있어서의 보편화에 따른 教育體制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 최근의 변화였지만 日帝의 상징처럼 보였던 뺨뺨머리와 교복도 없어졌다.

교과서도 좋아졌고 2부제도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서도 4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학교의 모습이 아직도 많다. 좁은 교실 공간에 뽕뽕히 들어 앉은 학생 집단, 그속에서의個性, 自律, 創意보다는 집단 규칙, 타율적인 생활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교과서와 칠판을 매개로 교사 중심의 강의 중심 수업은 여전히 전하다. 교육 내용은 쇄신되고 증가되는데, 한번 교사가 되면 전문적 자질 혁신을 위한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도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교사가 되기 위한 職前教育의 기간은 초등의 경우 4년이 늘었고, 또 중등의 경우 과반수의 교사가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면서도(도시의 경우) 교직은 아직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뚜렷한 대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의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교원의 社會·經濟的 비교에서 열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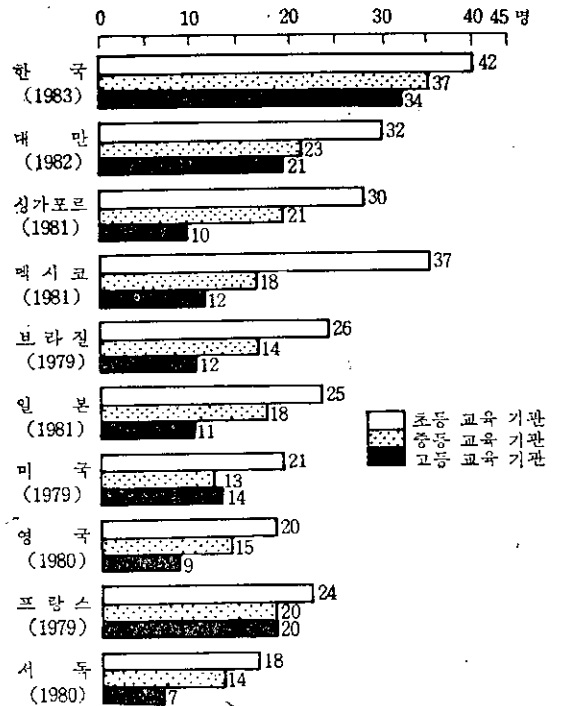
II. 韓國教育의 國際比較

오늘의 한국 교육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교육의 어떤 측면을 어떤 나라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교육 수준은 들쭉날쭉이다. 하지만 대체로 말해서 우리의 교육은 우선 그 학제면에서 單線型 사다리식으로서 複線型의 多枝化된 학제를 가진 구라파 나라들이 單線化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 속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선택의 융통성을 추구하는 學制多枝化의 필요를 안고 있다는 데서 대조를 이룬다. 우리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국제 비교상의 돋보이는 대조는 各級學校의 就學率에 있어서는 先進國水準을 보이면서도(그림-3) 國民平均 教育年齡에서는 約 8歲, 즉 중학교 2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12歲, 즉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화된 초·중등 교육 체제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며 이제 겨우 고등 교육의 보편화 단계로 돌입하게 된 실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



[그림-3] 주요국의 중·고등 교육 기관 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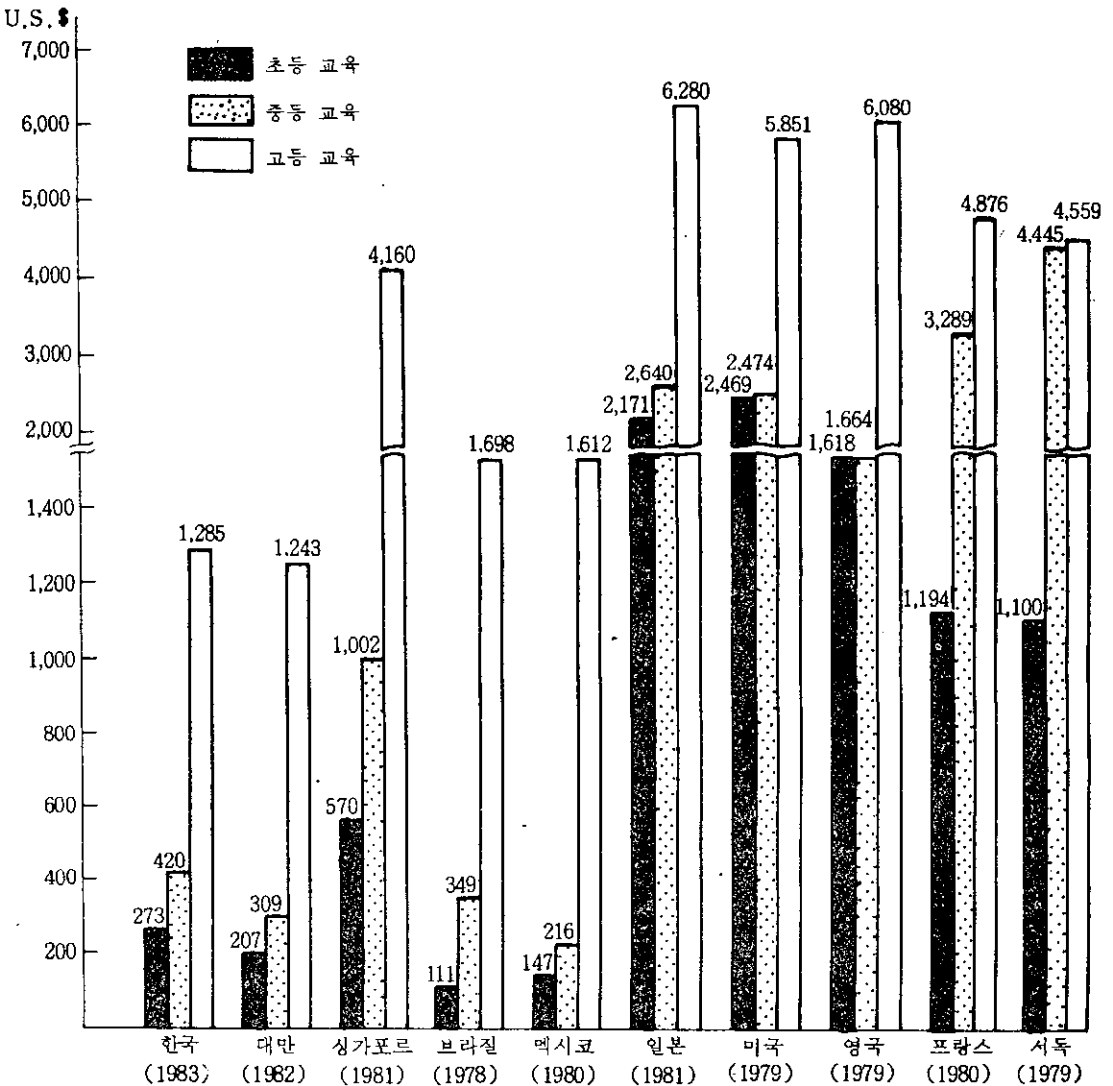
[그림-4]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이다. 就學率이나 進學率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이지만 教員 1人當 學生數(그림-4)로 대변되

는 교육 여건면에서는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 교육에서 공히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各級學校 學生 1人當 公教育費의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의 수준은 선진국의 5~10분의 1에 머물고 있으며(〔그림-5〕), 대학의 경우는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의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 외에도 義務教育年限의 국제 비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6년에 머물러 왔으며 1985년에 처음으로 농어촌 벽지부터 단계적으로 9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0~12년을 실시하고 있

으며 교육열에서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중진국(국민 개인 소득 \$1,500~2,000에 속하는)들이 9년제 의무 교육을 채택한 지가 오래된 실정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경향의 국제 비교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국제 비교 연구에 가담하기 시작하기 전(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16개국 고등 학생 수학 성적 비교 연구에서 일본 고등 학생의 학력이 知識, 理解力, 그리고 適應力에서 제일 높은 學力을 보인 반면 分析力, 綜合力, 創意力 등에서는 최하위 學力을 보인 일이 있다. 우리가 가담했었다 라면 한국 학생의 학력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을



〔그림-5〕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컨대, 우리의 교육 수준은 국제 비교 면에서 볼 때 體制의 외양과 量的 측면에서는 선진국 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內實의 度에 있어서, 그리고 그 生産性에 있어서의 중진국 수준이며, 어떤 측면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여건의 개선, 質에 있어서 수월성의 추구, 질 높은 우수 교원의 확보·유지, 그리고 주요 전략 분야 고급 인력의 자생 능력의 신장을 위한 장·단기 집중 노력은, 人間資源밖에 기댈 만한 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는 얼마든지 정당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추가될 경비와 지금까지 투입된 교육 투자의 경비 효과를 제고시켜 줄 것이다.

Ⅲ. 韓國教育의 現住所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 교육이 지난 40년간 量的으로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를 보았다. 취학률, 진학률, 정부 예산 중 문교 예산의 비율 등 외형만은 일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그 내부를 깊이 관찰해 보면 대형화된 우리의 學校教育體制는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 체제가 앓고 있는 몸살의 개괄적 특징으로, 우선 융통성 없는 단선형 학제를 들 수 있다. 누구나 6-3-3-4 제의 사다리를 끝까지 가 놓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學制와 관련된 현실이다. 도중에 일의 세계로 빠져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지만, 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지나친 賃金隔差, 중졸자나 고졸자의 취업 기회의 절대 부족, 中等教育課程의 일의 세계와의 단절성 등등의 교육 내외적 요인들은 우리의 학제를 점점 경직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 참여의 결심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면서 대학 진학으로의 병목현상은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 儒敎文化的 傳統에 연유되는 교육열, 식민지 경험과 광복 후의 대졸자들이 누린 혜택(?) 등이 상승 작용해서 나타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중학교, 고등 학교의 담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파고가 대학에 닥쳤다.

어렵잡아 당해 연도 졸업자 중 대학 지원자의

셋 중 둘은 실패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 입시의 양상은 포화된 收容能力과 高等教育으로의 국민들의 만연된 열망 사이의 갈등 현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데서 우리의 教育體制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大學入試라는 한판 승부를 겨냥한 준비 과정으로 특성화된 지 오래다. 임금 격차가 심하고 일자리가 없고, 또 학교가 일의 세계로 체계적으로 학생을 안내하지도 못했지만 모두가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12년간의 초·중등 교육을 통해 얻은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가 입시 위주의 공부와 그 요령을 학습했기 때문에 보다 익숙하고 만만한 것은 그래도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교육의 본질이 수단에 눌린, 일종의 악순환 같은 것이 우리의 教育體制를 포박하고 있는 꼴이다. 하여간 오늘의 교육 체제는 한국 국민 특유의 높은 교육열을 수렴, 조직해서 개인이나 사회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만드는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 여건의 불비와 교육 환경의 영세성은 우리 교육 체제의 숨길 수 없는 취약점이다. 도시로의 人口移動에 따른 농어촌 教育環境의 일부가 좋아지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學校環境은 타분야 발전에 비하면 20~30년은 뒤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학교 환경은 좁고, 덥고, 습고, 시끄럽고 불편하다. 화장실, 상수도, 조명, 책걸상 등의 수나 크기의 정도가 부적절하다. 영세한 教育財政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교육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 신설보다는 교실 증설에 머물렀기 때문에 운동장, 화장실 수 등은 특히 응색해질 수 밖에 없었다. 각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존재들인데 학교에 오면 인간 대접이 말이 아니다. 불평이나 비판은 부질없는 것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적응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도시 학교는 여전히 콩나물 교실이다. 12년을 이렇게 대접받고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는 셈이다. 넓은 공간, 휴게실, 도서관, 과외 활동 지원 조건, 인격체로서의 대접 등이 그것이다. 6세 이후 12년간 기성 세대들로부터 받은 천대(?)가 대학생 데모 심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

는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자기들을 소중히 키워 주고 사랑해 준 성인들에게 그리고, 그 사회에 감사하고 그 보답으로 윗 세대와 사회를 소중히 할 것이다.

성인들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내 자식만의 경우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내 자식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는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

그들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도 그것을 모른 채 외면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보충해 주려는 것이 성인들의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教育體制에서는 學生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했고, 또 그들 각 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고 그 결과 어떤 변화를 얻고 학교를 졸업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콩나물 교실로 대변되는 도시의 초·중등학교 教授-學習의 條件은 처음부터 학습의 개별화가 불가능한 곳이다. 능력상 다양한 학습자들은 주어진 조건에 심한 개인차를 보일 수 밖에 없으나, 授業體制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특별한 서어비스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학생들 중 반수 이상이 수업에 노출되고 있을 뿐, 참여를 못 하고 있으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學習缺損의 度가 심해져 점점 무능해지며, 興味조차 잃게 되어 별로 의미 없는 긴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는 낭비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學校教育體制가, 더욱 정확히는 授業體制가 量의 문제에 짓눌려 무력해지면서 그것은 學父母들로부터 不信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學父母나 學生들에게는 入試準備教育)은 급기야 학교 밖으로 퍼졌고, 그것은 연간 2천~3천억으로 추정된 막대한 개인 부담이 별도로 지출되었던 “課外”라는 社會問題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들의 기억에 아직 생생한 일이다. 학교의 授業體制가 學習速度가 빠른 학생이나 느린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서어비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엄청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전략에서 학교의 무력한 授業體制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

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학교를 더 짓고 교원을 늘려야 할 것을 억제하고 기존 교실에 인원을 불리는 궁색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수업체제를 무능하게 했으며 그 값을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이 암기된 지식을 반응하는 일이나 공식을 적용해서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어 나가는 성적이 우수한 반면, 학년이 높아 갈수록 독자적 思考能力, 創意的 問題解決力, 自律的 探究能力 등에서 뚜렷하게 처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솔직한 관찰인데 바로 이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학교 수업 체제의 비효능성을 방치해 온 값을 치르고 있는 한 가지에가 되는 것이다. 人力資源, 高級頭腦人力의 형성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러한 人力의 저변을 소홀히 하면서 마음만 성급하다.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教育體制의 허약한 체질의 또 하나의 원인은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평등주의와 이기주의의 현상이다. 인간은 능력상 평등하지 않는데 자녀의 능력 수준에 관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열망하고 사회나 국가 전체가 어찌 되든 “나”의 목적의 이득을 더 증시하는 풍조가 教育政策을 더욱 갈팡질팡하게 만든 감이 없지 않다.

社會는 實力社會, 競爭社會인데 平等의 理念이나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그리고, 행정의 편익주의 등을 적용하여 교육 체제의 어떤 요소를 쉽게 만들거나 너무 빨리 바꾸면서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못 바꾸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앞에서 지적한 현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個人差는 엄존하는데 學級差, 學校差는 못 받아들이는가 하면 “平準化”를 “平鈍化”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學校教育體制가 다양한 학생 능력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體制改善 노력은 밀 빠진 독에 물붓기 정도로 인식하여 아예 엄두도 못 낸다. 단 한 개라도 世界水準의 탁월한 대학이 있어야만 냉혹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의 自生的 발전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다는 요구가 지배적인데도 오히려 특정 대학을 없애야만 우리 나라의 고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이 지지되기도 하는 풍토는 高校

平準化를 둘러싼 국민 의식의 갈등 상황과 그 본질이 흡사하다. 人間敎育과 敎育正常化, 그리고, 道具科目 중심의 入試準備敎育을 지양한다는 명분을 위해 大入學力考查에서 18개 科目을 치르게 하여 사실상 모든 과목을 도구화시킴으로써 人間敎育은 보다 어렵게 되는 현실도 역시 평등이나 균형을 위한 명분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있는 현상이다. 학생은 하나인데 各敎科를 설계하는 사람,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시간, 분량, 비중(필수, 선택 등), 그리고 評價에서 균등과 형평을 주장하다 보면 그 총합은 한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버려 엄청난 부담을 학생이 지게 된다. 어른들의 平等과 均衡을 얻는 대신 학생들이 엄청난 값을 치르는 셈이다. 이렇듯 우리의 敎育體制와 그 운영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는 비록 그것이 敎育으로 해서 야기되는 것이긴 하지만, 敎育 본질의 문제가 아닌 오히려 政治·社會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敎育 본질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

우리의 敎育體制가 튼튼치 못하고 기민성을 상실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과 대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敎育 체제가 필요로 하는 영양은 적절한 행·재정적 투입을 말한다. 앞의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학생 1인당 연간 투입되는 경비(單位敎育費)는 초·중등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2~3년 전 것의 10분의 1 정도이며, 기타 선진국들의 3~4년 전 것의 5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敎育財政의 영세성은 敎育의 기본 여건의 불비를 초래한다.

교원의 처우가 미흡하여 교원들의 士氣가 낮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공급이 수요를 능가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敎育養成機關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84년 현재 초등 11개, 중등 35개). 大學卒業者의 실업 문제가 엇그제의 일이 아닌데도 再修生의 수는 누적되며, 대학으로의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대학의 敎育課程은 産業社會의 요구와 필요에 비교적 둔감한 學問中心의 것으로 머물고 있다.

大學이 卒業者들에게 被雇用能力을 신장시키거나 雇用效果를 심어주려면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전통적 학문 구조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특성 없는 비슷한 종합 대학의 행렬, 획일적인 학생 선발 방식(역시 평등주의와 기회 균등의 요구에 늘린 것이지만) 끊임없는 학생 소요로 인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 知識이나 價値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학습 조건(敎수 방법 포함)을 옹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출과 주입, 그리고 언어적—추상적인 경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敎育 풍토, 각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는 세계적 학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학이 없다는 현실 등등은 우리의 고등 敎育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私學政策, 平準化政策의 딜레마, 비대한 敎育課程, 강의 중심의 주입식 敎育 방법, 人文選好의 高校志望 현상, 실업 고교의 학생 자퇴 및 감소 현상, 進路敎育體制의 不在(엄밀한 의미에서), 학습 부진 학생, 신체 부자유학생, 영재 학생을 위한 적정 봉사 및 구제 기능의 부재, 敎育環境의 진근대성 등은 초·중등 敎育이 안고 있는 환부의 몇 가지 예가 된다.

그 외에도 특성 없는 전문 대학의 문제, 그리고 현행 학제가 유아 敎育, 평생 敎育 등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당면 문제들이다.

Ⅳ. 韓國敎育 先進化의

기본 방향과 課題

거대한 敎育體制, 그러나 연약한 敎育 체제를 튼튼히 다듬고 그것이 效能 높은 敎育力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하여 우리 국민 특유의 높은 敎育열을 수용, 승화시켜 發展動力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學校敎育體制의 內的 效率性과 外的 妥當性(또는 生産性)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작업을 착수하는 일이다. 內的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일은 각급 학교의 敎育力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각급 학교 각 학년의 敎育이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變化(知識, 態度, 價値, 技術의 習得)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敎育의 목표 내용, 방법을 조정하

고 다시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각급 학교 教育課程이 個人, 社會, 國家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그 실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교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학교의 教育力을 회복시키는 관건이 된다. 이러한 노력은 가급적 작은 행정 단위(이상적으로는 학교별로)별로 학교장, 교원, 연구사, 장학사들이 주동이 되어 창의적으로 계획·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급 教育行政機關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가리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學校教育體制的 外的 生産性을 제고시키는 일은 역시 졸업생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나에 따라 결정된다.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고용되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존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거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결과가 되었다든가 하는 등은 教育體制的 경제적 생산성의 예가 될 것이다. 높은 합격률, 진학률 등도 그 준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외적 생산성은 內的 效率性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각급 학교, 각급 학년의 교육이 주어진 목표를 철저히 달성한 것이면 學校教育體制的 자적 부여 기능이 신뢰로운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사회는 학교를 믿고 졸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조직들이 졸업생을 받아 專門知識, 語學,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社費를 들여 교육을 실시해야 비로소 일하게 된다는 현실은 각급 학교 교육의 낮은 生産性을 말해 준다.

대학을 나오기까지 어학, 수학, 국민윤리·국민 정신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다. 모두가 적절한 학습 조건(교원 포함)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결과이다.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자원 낭비인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 教育體制를 운영할 바엔 좀더 투자하여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경비 효과를 올리는 길이다.

다음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착수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教育環境이(특히 초·중등학교의)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는 새삼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일하는 인간 집단치고 학생들만큼 응색한 환경에 있는 집단도 드물 것이다. 도시 소재 학교의 경우지만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하나 없이 소음으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며, 또 추운 계절에도 난로는 아침에만 잠깐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동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과 흡사하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을 키워준 윗 세대와 社會·國家에 고마움과 애정을 갖고 자라기를 바란다면 교실을 더 짓고 교원을 더 채용하고 화장실, 상수도, 냉난방 등 사회의 다른 부면과 흡사한 수준으로 學校環境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엄청난 재정 소요일 것이다. 그러나 10년쯤을 “學校環境改善의年代”로 내걸고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긴급조치가 있어야겠다. 무엇보다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 교육목적제를 연장 실시하는 조치이다. 자라나는 세대를 잘 교육시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國防의 수단이기도 하다. 소련의 스포트니 충격으로 나타난 케네디의 國防教育法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또 하나의 긴급 조치는 인구 자연 증가를 대폭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가족 수당, 학비 보조, 의료 보험 등의 수혜 대상 자녀수를 하나로 제한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초·중등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일의 세계와 직업의 세계로 학생을 안내하고 거기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일을 통해 社會發展, 自我實現을 위해 그 나름대로 어떻게 공헌하며, 협력하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가를 배우게 하는 교육 전략도 시급하다. 이러한 것은 학부모를 위해서도 착안되어야 한다. 그것은 점수따기 교육, 경쟁적 교육관 등의 빛나간 교육열을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도 시급히 시정돼야 할 조치이다. 후기 中等教育機關은 보다 종합적인 성격으로 성격 변화를 시도하여 한 학교 내에 人文, 社會, 數理, 科學, 技術, 藝體能 및 實業 계열을 모든 학교가 갖추도록 하며 경비 소요가 큰 과학, 기술 및 실업 계열의 시설은 몇 개의 학교로 이루는 학교군별로 한 학

교만 갖추고 공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물론 기존하는 특수 목적 고등 학교나 성공적인 실업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 본질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 와서 평준화 이전으로 돌아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재생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에 능력별 개인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충·심화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이 각종 교육 공학적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大學教育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다. 오늘날 제3 세계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國家發展을 위한 教育의 역할에 대한 믿음에 과잉 교육 투자를 한 결과 우리가 50~60 년대에 경험한 教育亡國論의 내부 비판을 호되게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갈등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국내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의 경우 오히려 전략적 教育投資는 高度의 科學·技術을 주축으로 하는 知識產業體로의 移入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의 일부 제3 세계 국가들의 일부 대학

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어 그들 나라의 발전 과제를 수행할 핵심 고급 인력을 자생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는 꽤 일반적이다. 이제 “아프리카”하면 후진을 연상시켜 주던 그 나라들의 대학 관계자들이 아시아나 남미의 대학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을 4~5 개의 教育圈으로 나누어 권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 교육 기관에 걸쳐 전국 수준의 영재 발굴, 學力大會 같은 것을 많이 실시하여 영재를 일찍 발견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천문학, 문학, 예능 등에 걸쳐). ◆

參 考 文 獻

- 辛世浩, 「教育改革的 國際動向과 韓國教育의 先進化를 위한 課題」韓國教育學會.
_____, '84 年次 教育學 學術大會 基調講演, 1984.
韓國教育開發院, 『韓國의 教育指標』, 1984.

論述學習의 效率的인 指導方案

曹 大 鉉*

I. 序 言

論述考查의 성격이나 施行方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이 時點에서도 여전히 一線學校에서 學生指導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오늘날 高校生의 作文能力이 너무나 低調한 까닭이다. 「論述」은 고사하고, 극히 개인적인 意思表示조차 제대로 文章化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方法으로 論述學習을 지도할 것인지……. 當局의 발표에 의하면 논술 고사에서 일체 作文의 인 요소는 排除한다고 했지만, 과연 作文能力의 뒷받침이 없이 思考의 論理的 展開가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미 新學期는 시작되었고, 高校 3學年 學生의 경우는 앞으로 考查日도 一年이 채 남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무슨 방법으로든 학생의 論述能力을 키워 주기 위하여 최선의 方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時點에 와 있다.

이에 現場에서 실천 가능한 몇 가지 指導方案을 모색하여 그 成果를 一線同僚들에게 자료로 提供하고자 한다.

II. 思考力伸張을 위한 指導方案

1. 세미나式 授業

이것은 그 동안 많은 教師들이 그 必要性을 인정하면서도 學習進度和 수업 준비의 번잡성 때문에 外面해 온 방법이다. 그러나 논술 고사가

焦眉의 과제로 등장한 이상, 이제는 이 방법을 留保만 해 둘 것이 아니라 1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各教科目에 걸쳐 꼭 실시해 봄직한 방법이다.

세미나식 수업을 전개하자면 事前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教師는 교사대로 그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춰야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討論過程에서 파생될 여러 가지 問題點을 예측하여, 그것을 어떤 方向으로 誘導하며, 어떠한 結論을 導出해 낼 것이냐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모두 교사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施行은 결국 學生中心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事前에 한두 학생에게 主題發表를 준비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例로 社會科와 國語科에 관련시켜 세미나식 수업 모델을 구상해 보자.

· 사회과 國史 教科書에는 鄭夢周와 李芳遠이라는 서로 相剋되는 人物이 같은 단원에 나온다. 그런가 하면 국어 교과서에도 그들의 處世觀을 담은 丹心歌와 何如歌가 나온다. 이 두 人物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歷史의 격동기에 같은 時代를 살았다. 그러면서, 한 인물은 義理와 志操로, 또 한 인물은 現實的 實利를 大義名分으로 삼아 서로 피나는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時點에서 우리는 이 두 인물의 처세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設定해 놓고, 한 학생에게는

* 景福高等學校 教師

정 봉주를 옹호하는 主題를 발표하게 하고, 또한 학생에게는 이 방안을 옹호하는 主題를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제 발표가 끝나면 한 班 학생 전체에게 토론을 시켜 보는 것이다. 이 때 教師는 討論의 司會者 역할을 맡아, 續出하는 학생들의 주장이나 의견에 적절히 整理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정 봉주의 處世觀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방안의 처세관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예 두 人物을 모두 批判하고 전혀 새로운 價値觀을 제시하는 의견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主題는 자연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教師는 그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妥當性 있는 結論만 내려 주면 된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思考能力,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떤 문제를 비판하여 자기의 主張을 客觀的으로 提示하는 능력을 키워 주게 될 것이며, 附隨的으로 口頭表現力을 伸張시켜 그것을 文章化하는 데에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식 수업에서 토론 주제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贊反의 爭點이 뚜렷이 부각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토론 의욕을 誘導하는 데 유리할 것이며, 반드시 깊은 學習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開陳할 수 있는 平易한 문제를 택하는 것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참여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요령이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는 그저 막연히 '나는 이것을 찬성한다'는 식의 短答式 發表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찬성한다'든지, 또는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지만 저것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쁘다'는 식으로, 自己意見에도 반드시 타당한 根據를 세워 주장을 展開해 나가는 習慣을 기르는 데 主眼點을 두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세미나식 수업의 要諦가 학생들의 폭넓은 비판력을 키워 주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教師의 입장에서, 事前에 학생들에게 어떤 暗示를 주어 틀에 박힌 결론을 끌어내려는

性急함은 피해야 할 것이며, 혹시 個中에 엉뚱한 주장을 발표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主題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限, 發言을 중단시키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자유 분방한 獨創의 思考를 싹부터 잘라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新聞社說 스크랩 活用

新聞社說을 스크랩하여 論述學習 자료로 活用하는 방안은, 論述考查 실시 예고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여러 학교에서 試圖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新聞社說을 活用하는 方法은 우선 當代의 모범이 될 수 있는 論說文을 손쉽게 구해 읽을 수 있다는 資料求得의 便易性이 長點이고, 그 內容이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분석, 비판한 글이기 때문에 現實體驗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현실을 보는 올바른 눈과 비판적 안목을 길러 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思考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新聞社說을 그저 읽고 스크랩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효과가 적고, 그것을 보다 多角的으로 活用함으로써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社說을 活用하는 方法으로는 첫째,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아 붉은 줄을 긋게 한다든지 둘째, 내용을 서문·본론·결론(또는 起承轉結)으로 나누어 보고, 그 要點을 간단히 再構成해 보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학생 자신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見解나 主張을 써 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기가 읽은 社說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口頭로 발표하게 하는 것도 頭腦의 知的 回轉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新聞社說이란 거기에 쓰이는 用語나 文體에 일정한 틀이 있고, 問題를 보는 視角에도 時事性을 넘지 못하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社說처럼 個性 없고 깊이 없는 글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社說을 活用할 때는 거기서, 글을 엮어 나가는 構成의 요령이라든지 語彙 선택 요령, 그리고 문제를 비판·

분석할 때 핵심에 接近해 들어가는 요령 등을 배우는 데 그쳐야지 論調까지 그대로 답아 가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個性 있는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留意할 것은, 新聞이란 各紙마다 자기 나름의 色彩를 가지고 있어서, A紙는 긍정적으로 본 문제를 B紙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어느 한 가지 新聞의 사실만 계속 읽게 되면 視覺의 균형을 잃게 되므로 가끔적이면 서로 색채가 相異한 新聞을 두 가지쯤 읽어 論調가 어떻게 다른가, 학생으로 하여금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現實感覺을 키워 주는 요령이 될 것이다.

3. 人文·社會·科學 계통 圖書의 集中讀書

독서가 학생의 思考力을 신장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讀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效果 또한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당장 論述考査를 눈앞에 둔 高校 3學年 학생에게는 人文·社會·科學 계통의 교양 도서를 두세 가지 선정해 주고, 각자 틈 나는 대로 集中讀破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 후에는 반드시 독후감을 써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고, 뜻 맞는 친구끼리 독서 클럽을 조직하여 독서 토론회를 열게 하는 것도 思考力을 발전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人文·社會·科學 도서를 특히 권장하는 것은 그 내용이 論述考査에서 의도하는 바 要求條件에 비교적 가까우므로 高校 3學年 학생을 유념해서 하는 소리지,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는 1,2學年 학생에게는 文學과 一般教養 도서를 폭넓게 읽혀 思考의 틀을 기초부터 든든하게 다져 올라가는 것만이 가장 安全한 論述考査 對處方案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후감쓰기나 독서 토론의 방법은 이미 일선 학교에 널리 一般化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Ⅲ. 文章表現力 伸張을 위한 指導方案

1. 短文쓰기

短文쓰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뜻 있는 教師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入試制度가 완전 客觀式으로 변하면서 敎壇에서 자취를 감춰 버린 文章表現力 伸張 지도의 한 방법이다.

이것은 本授業 前 5分 정도를 할애하여 학생들에게 제목을 주고 100~200字 정도의 짧은 감상이나 소감, 또는 있었던 사실의 진술을 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시간과 원고 분량의 制限上 너무 거창한 제목을 주어서는 안 되고, 주로 단편적인 感想을 적게 함으로써 항상 생각하는 습관과, 그것을 文章으로 쓰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論述考査가 요구하는 성격의 글이라기보다 一般文學的 소양을 배양하는 데 더 가까운 글이므로 高學年에서 실시하기는 어렵고, 低學年 때부터 文章力을 배양하는 수단으로 다시 부활해 써 볼만한 방법이다. 글의 성격상 國語科 수업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1주일에 1번 정도 실시하여 원고를 수집해 놓고, 매 국어 시간마다 1~2名작 作品을 읽고 그것에 대한 短評을 곁들여 주면, 대체로 2個月에 한 번씩은 한 학교 학생 全員의 글을 개별적으로 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글 쓰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실제 論述考査 現場에서 학생이 制限時間과 원고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생각을 마무리하고 글을 읽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主題日記·主題便紙 쓰기

이것은 기왕에 학생들이 해 오던 日記나 便紙 쓰기에 일정한 主題를 부여하여, 그저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나 安否 전달에 그치지 않고 論述文 성격의 일기와 편지를 쓰게 하는 방법이다.

日記라면, 그날 있었던 일이나 감상 중에서는 藝術적인 진술이 가능한 素材 하나를 택하여 제목을 붙이고, 그것을 起·叙·結의 三段으로 구성하여 論述文的인 서술을 해 보게 하는 것이다.

물론, 日記라는 고정 관념 때문에 완전히 客觀的인 論述은 나오지 못하겠지만, 오랜 동안 이런 식의 일기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核心에 접근해 들어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기는 어디까지나 日記 고유의 보존 가치를 가진 글이므로 매일의 일기를 이런 식으로 쓰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1 주일에 한 번 정도 論述式 日記를 쓰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안다.

便紙의 경우는, 특별히 이런 논술적인 편지를 주고 받을 상대가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학생이 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할 것이니까 1학년과 2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班別 番號別로 짝지어 주고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主題便紙를 보내면 그것을 받아 본 선배가 다시 후배에게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논술식 편지를 교환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論述學習 효과 외에도 선후배 간에 友誼를 돈독히 하는 一舉兩得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先後輩間에 주고 받는 편지의 주제는 가급적 高校生으로서의 共通的인 關心事가 되는 내용을 택해야 진실한 自己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밖에 각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讀後感쓰기도 보다 객관적인 論旨를 강하게 살려 쓰도록 지도하면 論述文章 作成 연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論述文쓰기 集團實技指導

위의 여러 가지 방법은 論述學習 지도의 定石에 해당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考查日을 一年도 채 남겨 놓고 있지 않은 高校 3學年 학생들에게 이런 定石의 방법을 쓰기에는 時間이 不足하므로 부득이 비상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상 수단이란 학생들에게 직접, 예상되는 논술 제목을 내 주고 원고지 5~10장 정도의 論述文을 作成하게 해 보는 것이다. 이 때는 원고 작성 시간도 各大學이 발표한 제한 시간을 참작하여, 原稿分量과 時間을 적절히 按配, 提示하

고 查점상의 主眼點까지 모두 알려 주어, 최대한 出題意圖에 가까운 글을 쓰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學級擔任이나, 문제의 성격과 類似한 教科의 담임들이 맡아서 班別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담당 교사에 따라 優劣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학급은 만족할 만한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학급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지도를 받게 되는 缺陷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왕 集團指導를 하기로 방침이 세워졌다면 週一回 論述學習 특별 지도 시간을 마련하여 그 방면에 精通한 教師 한두 사람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해 가지고 校內 放送施設을 이용, 全校生에게 똑같이 답안 작성 요령을 설명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일제히 원고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접 大入 考查場에 입했을 때의 姿勢訓練까지 겸하게 되므로, 이런 훈련을 최소한 月一回 정도 거듭하게 되면 時間不足 때문에 원고를 완성시키지 못한다거나, 원고 작성 요령을 몰라 허둥지둥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답안 작성 요령을 설명할 때 빠뜨리지 말고 周知시켜야 할 것은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쓰라는 것과, 答案作成 이전에 반드시 主題文과 「아우트라인」을 작성해 보고 쓰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이다. 主題文쓰기는 글의 散漫性을 막아 橫說豎說을 피하고 一貫된 論旨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꼭 써 보아야 할 과정이며, 「아우트라인」은 서론·본론·결론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글 전체의 論理的 짜임새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內容의 重言復言을 막기 위하여 꼭 작성해 보고 넘어 가야 할 과정이다. 요즘 高校生들의 文章實力이 너무나 조잡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文章作法上的 기초 훈련은 몇 번을 거듭해도 결코 過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일단 전교생의 원고가 收束되면 班別로 學級擔任이 이를 심사하여 우수작 1~2편씩을 論述學習 專擔教師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면, 전담교사는 3學年 全班에서 들어온 원고를 다시 심사하여 전체 학생지도에 참고가 될 만한 작품을 5~6편 선정, 이를 1~3

週間 특별 지도 시간을 통하여 역시 放送으로 전교생에게 읽어 주면서 잘된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事例別로 논술문쓰기에 필요한 각종 요령과 정보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방송을 통해 論述學習 지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학급 담임 교사가 入室하여 학생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단기간의 集中指導에 절대로 虛點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교별로 獨自의인 지도 자료나 論述學習用 原稿紙 등을 따로 만드는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Ⅳ. 結 語

이상으로 現場에서 實施 가능한 思考力伸張 및 文章表現力 伸張指導 방안을 몇 가지 탐색해 보았거니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몇 가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論述考查에 대비한 專擔機構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전담 기구의 長은 各급적 校監이나 主任敎師級으로 하는 것이 業務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기구에서는 전반적인 論述考查 정보를 수시로 수집·정리하여 이를 학생 지도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학생 지도에 앞서 敎師를 대상으로 한 自體研修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 방법 중에는 專擔敎師가 담당·실시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이 담당하여 실시할 것도 있다. 그러므로, 敎師研修에는 담당 학과목에 관계 없이 全敎師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학교 나름대로 실정에 알맞은 指導計劃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 계획은 長期的인 것과 短期的인 것으로 나누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敎師가 個別的으로 실시할 계획과 학교 전체가 學校的으로 실시

할 계획이 따로 있다.

예컨대, 앞에서 거론한 方案中 <세미나식 수업> <新聞社說 스크랩 活用> 또는 <短文쓰기> <主題日記·主題便紙쓰기> 같은 것은 長期的인 계획하에 실시되어야 할 방안들이며, <人文·社會·科學 계통 圖書의 集中讀書>나 <論述文쓰기 集團實技指導>와 같은 短期的인 방법은 현재 高校 3學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미나식 수업>이나 <인문·사회·과학 계통 도서의 집중·독서>는 全敎科 과목 담당 敎師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며, <신문 사설 스크랩 활용> <短文쓰기> <주제 일기 및 주제 편지 쓰기>같은 방법은 學級 담임이나 國語科 담당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하겠지만, 학교 전체 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도상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술문쓰기 집단 실기 지도>는 專擔機構 敎師의 지휘 아래 각 학급 담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각 학교에서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나 두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정에 맞도록 지도 계획을 수립,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論述考查가 焦眉의 과제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高校敎育이 또 한 차례 跛行을 겪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論述考查는 어디까지나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思考力의 배양을 위한 수단으로서 有用케 돼야지, 가뜰이나 受驗負擔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一線學校에서의 논술 학습 지도도 일반 교과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절대로 屋上屋의 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拙稿를 맺는다. —————

特 輯

2000 年을 向한 教育 長期 發展 構想

—學習하는 社會—

2000 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은 12 개의 國策研究機關이 共同으로 參與하여 汎國家的인 次元에서 各 部門別로 2000 年の 靑寫眞을 提示하기 爲하여 1982 年에 着手한 研究課題이다.

여기에서 提示하는 內容은 本院에서 擔當하여 研究한 教育 및 人力開發部門의 計劃을 研究總括班에서 要約 拔萃한 것이다.

▷ 研究 陣 ◁

■ 總 括 班 : 韓國教育開發院

尹 正 一
姜 武 燮
鄭 日 煥
金 在 雄

■ 企劃委員 :

委 員 長 李 榮 德(서울大學校)
委 員 金 信 一(서울大學校)
金 潤 泰(西江大學校)
朴 來 榮(弘益大學校)
辛 世 浩(韓國教育開發院)
安 秉 俊(延世大學校)
李 元 雨(靑 互 臺)
林 煥 燮(高麗大學校)
張 相 浩(서울大學校)
鄭 泰 範(韓國敎員大學校)

▷ 目 次 ◁

■ 教育發展의 方向과 目標

■ 教育의 質的 高度化

■ 教育體制的 革新

■ 人力開發의 效率化

■ 教育行·財政制度의 改善

■ 2000 年の 韓國教育 모습

教育發展의 方向과 目標

教育發展의 基本方向과 目標을 설정함에 있어, 教育은 國家發展의 한 指標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타 분야 발전의 原動力이 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적절한 支援이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제반 사회 부문간의 相補的 關係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육의 고유한 기능은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2000년을 향하여 한국 교육이 길러야 할 人間像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自我實現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발전의 基本方向으로서 人間教育의 深化, 教育의 質的 高度化, 教育發展의 均等化, 教育體制의 開放化, 教育環境의 福祉化, 人力開發의 效率化, 教育運營의 自律化와 專門化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教育發展의 기본 目標로서 교육의 量的 指標를 教育機會 擴大, 教育與件改善, 教育投資 擴大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I. 教育長期發展 構想의 基本立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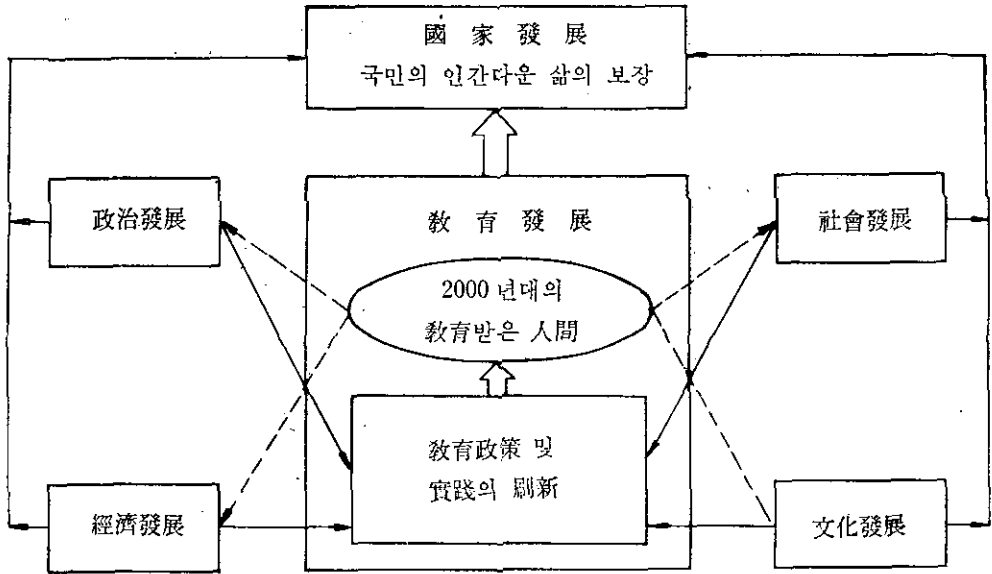
한국 교육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이 構想은 교육을 보는 視角의 근본적인 轉換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한국 교육은 國家發展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目標의 차원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人間性的 保存과 實現이라는 중차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한 부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한국 교육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타의 사회 부문들과 더욱 밀접

한 相補關係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각 부문이 서로의 기능을 極大化시키는 방향으로 그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만 미래의 한국 교육이 사회 변동의 추세를 단지 쫓아가기보다는 그것을 主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質과 機會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目標이라고 볼 때, 국가 발전은 物量的 성장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질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도록 도우며,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過程에 正當한 가치를 부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質과 機會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 발전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하는 입장은 탈피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은 매우 편협한 안목으로서 국가의 均衡 있는 發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부문은 다른 부문들의 지원 아래 그 발전이 가능하며 그 지원이 크면 클수록 그 부문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교육이 다른 부문의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공헌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다른 부문(예컨대 경제, 정치)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正當한 것으로 받



[그림 1] 教育發展과 國家發展의 概念模型

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教育計劃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教育의 고유한 機能, 즉, 국민 각자가 타고난 인간다운,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준다는 본래의 기능이 수단적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한 부분으로서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부차적으로 사회 제반 부문들과의 相補의 관계를 堅持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의 기본적 구조는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자체의 政策과 實踐의 무한한 쇄신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自我實現과 人格完成을 이룩하여 인간다운 삶의 質과 機會를 享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사회 부문의 物質的 또는 非物質的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여타의 사회 부문의 지원과 협조에 의한 교육 정책과 실천의 쇄신은 자아를 실현하고 인격이 완성된 '教育 받은 人間'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부문의 발전에도 최대한 기여하게 된다.

이 長期教育發展 構想은 교육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못지 않게 국가 발전의 중요한 한 부문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경제 발전(국가 발전과 같은 개념으로서)의 수단으로 간주했던 종래의 교육 계획과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이 국민 각자의 自我實現과 人格

完成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데 얼마나 충실히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교육 받은 인간이 활약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자기 부문의 기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 발전의 한 모습을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姿勢와 人間性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空虛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병폐와 변칙은 근본적으로 教育外的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教育의 正常化는 다른 사회적 부문과의 相補의 關係의 보다 넓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이 잘못되어 갈 때 그 원인이 교육 자체에 있기보다는, 정치 발전의 미성숙성, 사회의 불건전한 교육적 풍토, 그리고 교육을 위한 불충분한 물질적 지원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제반 부문은 각자가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교육에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여타 부문들이 相補的 關係 속에서 잘 지원해 주었는지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사회 부문이 '교육 받은 인간'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이것들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한, 교육은 이러한 부분들이 추구하는 發展目標와도 상응하여야 한다. 制度나 慣習 자체는 인간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려우며 아무리 훌륭한 先進制度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前近代의인 思考나 價値觀을 가진 사람에 의해 운영될 때 그 제도는 跛行性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자체의 고유한 기능으로 타 부문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고유한 기능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사회제반 부분들이 자기 고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분들 간의 상호 작용이 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때, 교육의 타 부문 발전에 대한 기여가 너무 강조되는 것은 부문 간의 相補的 關係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교육이 타 부문의 발전에 대한 공헌은 교육에 대한 타 부분들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2000 년대의 교육 받은 人間像

'교육 받은 인간'은 그가 처한 環境으로부터 불가피하게 造形된 인간이 아니라 選擇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助成된 인간이다. 2000 년을 향하여 한국 교육이 길러야 할 人間像은 '自我實現人'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能力을 統合的으로 실현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만족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自我實現人'은 다음의 여덟 가지 특성을 지닌 인간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主體的 人間: 主體的 人間은 상황에 단순히 피동적으로 예속되거나 적응해 나가기를 거부하고, 狀況을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自主的으로 변화시키고 이용하는 사람이다. 주체적 인간이 자신의 主體的 決斷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해서 무엇이나 제멋대로 혹은 충동적으로 恣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또한 주체적 인간은

한국 민족의 운명은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外來文化의 無批判的 受容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다.

○ 知性的 人間: 知性的 人間은 理性的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感情이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피한다. 따라서 論爭에서 체면이나 위신보다는 論理와 證據에 승복하며, 目標와 手段 간의 관계에 따라 가치의 우선 순위를 숙고한다. 知性人은 또한 科學精神을 높이 평가하며, 技術에 내포된 倫理의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 道德的 人間: 도덕적 인간은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 生態的 倫理意識, 그리고 성장 지향적 대인 관계에 입각하여 가치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知行不一致를 지양하며 준법 정신, 협동 의식, 공익 정신 및 직업 윤리가 투철하다.

○ 民主的 人間: 민주적 인간은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自律的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는 또한 權利뿐만 아니라 義務도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타인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한다.

○ 創造的 人間: 創造的 人間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創造와 開拓의 정신을 가지고 모험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동질성과 획일성보다는 異質性과 多樣性을 추구하며 外界와 他人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

○ 國際的 人間: 국제적 인간은 그 안목이나 활동 무대가 나라 밖에까지 뻗어 나가는 進取的인 人間이며 전 인류를 포함하는 共同體意識을 가진 인간이다. 그는 또한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진출시키며, 해외 문물을 取舍選擇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이다.

○ 健康한 人間: 건강한 인간은 행복의 절대적 조건인 健康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의 실천과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하여 身體的·精神的 健康을 유지·증진시킨다. 그는 또한 자연과 예술에 대해 審美的 眼目도 지니고 있다.

○ 學習하는 人間: 學習하는 人間은 不確實性, 變化問題 등을 회피하지 않고 寬容性, 開放性, 積極性을 보인다. 그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

의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는 타인으로 부터 배우고 스스로 배우며,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Ⅲ. 教育發展의 基本方向

○ 人間教育의 深化 : 컴퓨터는 지금 학교 학습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암기 학습을 대체할 것이므로 암기 위주의 主知教育은 점차 퇴색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컴퓨터가 가질 수 없는 고급의 人間的인 能力과 人格의 啓發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래의 교육은 敎科目 이상의 것, 즉 학생들의 精神의 狀態와 人間의 特徵의 變化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 教育의 質的 高度化 :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은 그 量的인 측면만을 고려할 때 자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質的인 면은 量的인 성장 만큼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 교육은 앞으로 教育內容, 學習活動 및 方法, 敎師의 資質, 施設과 物理的 條件, 學校의 風土, 教育評價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 教育發展의 均等化 : 학교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학생의 선발, 교육 여건, 성과 면에서 계층, 지역, 성별, 공·사립 간에 不均衡이 발견된다. 따라서 個性, 價値觀, 適性 등에 따라 적합한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내용과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 教育體制的 開放化 : 교육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소질,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체제의 柔軟性과 開放性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學習社會의 도래에 대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조화시키는 平生教育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

○ 教育環境의 福祉化 : 학교의 物理的인 條件과 社會心理的 風土는 교육의 成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즐거운 학교', '생동감 넘치는 학교'의 구현을 위하여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낮추고 현존 老朽施設의 現代化 및 厚生福

祉施設의 擴充이 실현되어야 한다.

○ 人力開發의 效率化 : 人力養成·供給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냉엄한 국제적 경쟁 속에 처한 한국의 現位置는 개인의 自我實現과 人格完成이라는 교육 내적 가치의 구현과 人力開發이라는 수단적 가치의 구현 사이에 보다 긴밀한 관계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 교육은 高度産業社會를 주도할 수 있는 人力과 知識을 생산해서 그들을 效率的으로 산업계에 공급하여야 한다.

○ 教育運營의 自律化와 專門化 : 教育政策 決定過程에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지양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教育의 自律性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特殊性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오랜 경력을 가진 專門要員으로 하여금 교육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教育의 專門化를 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教育行政은 특정한 집단의 압력이나 정치 정세의 변동에 등요하지 않고, 長期的이고 本質的인 계획에 따라 안정된 教育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教育發展의 量的 指標

教育發展의 量的 指標는 크게 1) 教育機會의 擴大指標, 2) 教育條件의 改善指標, 3) 教育投資의 擴大指標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계획에서의 指標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발전 과정과 국제 비교에 의한 目標設定, 그리고 實現可能性의 판단을 위하여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財政所要 推定結果를 토대로 하여 設定된 것이다.

(1) 就學對象人口의 變化

이 계획을 위한 人口推定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中 人口部門研究」의 推定結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人口要因은 미래의 학생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教育條件의 改善과 이를 위한 所要財政의 推定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획 기간 중 학교급별 就學對象人口의 變化는 <표 1>과 같다.

〈표 1〉

學校級別 就學對象人口 變化

(단위 : 천명)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총 인 구		39,970 (1.00)	41,877 (1.05)	44,894 (1.12)	47,680 (1.19)	50,183 (1.26)
유 치 원	(4~5 세)	1,596 (1.00)	1,661 (1.04)	1,762 (1.10)	1,709 (1.07)	1,688 (1.06)
국 민 학 교	(6~11 세)	5,065 (1.00)	4,815 (0.95)	5,108 (1.01)	5,235 (1.03)	5,115 (1.01)
중 학 교	(12~14 세)	2,798 (1.00)	2,687 (0.96)	2,358 (0.84)	2,556 (0.91)	2,616 (0.94)
고 등 학 교	(15~17 세)	2,594 (1.00)	2,791 (1.08)	2,453 (0.95)	2,474 (0.95)	2,613 (1.01)
대 학 교	(18~21 세)	3,583 (1.00)	3,454 (0.96)	3,678 (1.03)	3,123 (0.87)	3,341 (0.93)
국민학교~대학교	(6~21 세)	14,040 (1.00)	13,747 (0.98)	13,597 (0.97)	13,388 (0.95)	13,685 (0.98)

註 : () 안은 증가지수임.

(2) 教育機會의 擴大指標

就學對象人口의 전반적인 감소 현상으로 2001년까지의 學生數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教育機會의 擴大를 위하여 학교급별로 진학률 및 취학률의 증가는 필수적이다. 1983년도에 98.4%로서 거의 완전 진학을 나타내고 있는 중학교 진학률은 중학교 義務教育 完成計劃年度인 1991년에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고등 학교 진학률은 1983년의 88.5%에서 목표 연도에 95.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대학(교)의 진학률은 고졸자의 증가와 高級人力需要를 고려하여 대학(교) 1학년 학생수를 추정 한 후, 역으로 계산하였는데 1983년의 61.1%에서 목표 연도인 2001년에 68.6%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각급 학교별 진학률, 취학률 및 학생수는 〈표 2〉, 〈표 3〉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進學率 指標

(단위 : %)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국민학교→중 학교		98.4	99.0	100.0	100.0	100.0
중 학교→고등학교		88.5	89.6	91.6	93.6	95.5
고등학교→대학(교)		61.1	55.9	57.9	70.2	68.6

주 : 진학률 = 상급 학교 1학년 학생수 / 하급 학교 졸업생 수.
대학(교)는 전문대, 교대, 4년제 대학(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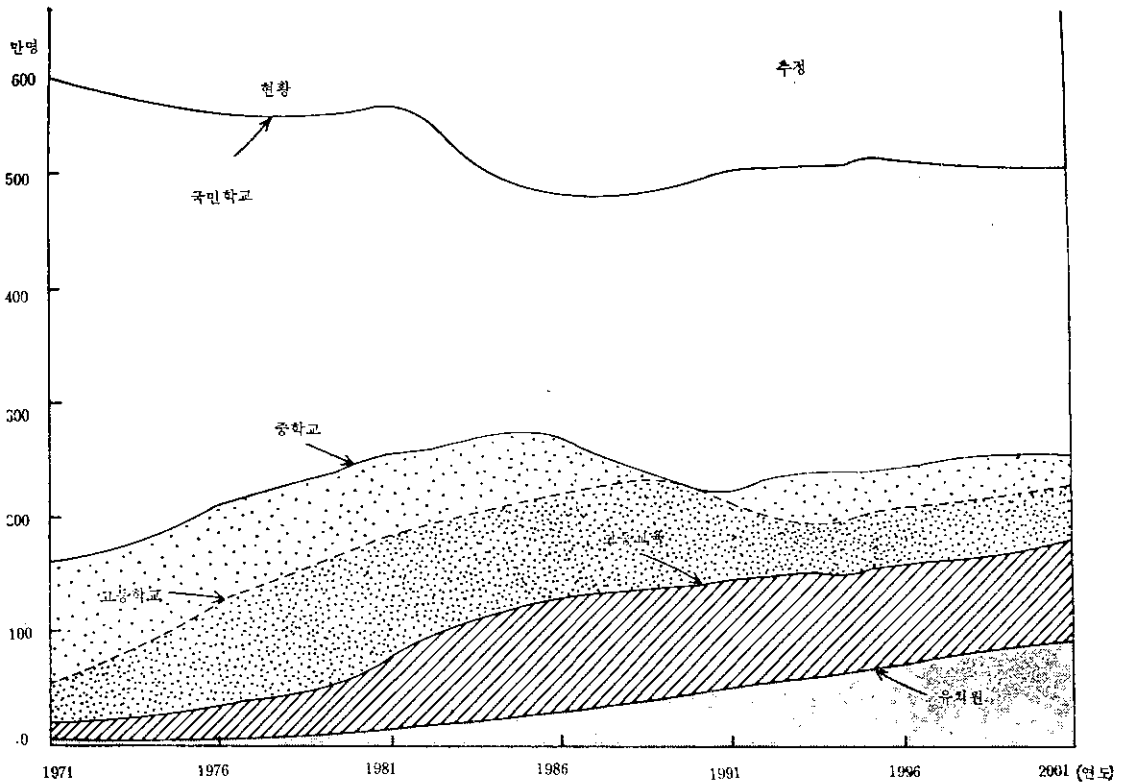
〈표 3〉

就學率 指標

(단위 : %)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취학전 교육(1)		12.9	19.9	31.2	42.5	53.8
취학전 교육(2)		22.4	31.2	45.8	60.4	75.0
국 민 학 교		103.8	99.9	98.1	98.1	98.0
중 학 교		95.5	102.4	95.1	96.2	96.2
고 등 학 교		77.6	80.9	88.3	85.0	86.8
대 학 (교)		27.9	35.1	37.0	45.5	47.3

註 : 취학전 교육 (1)은 유치원만, (2)는 유아원 포함.
대학(교)는 전문대, 교대, 4년제 대학(교) 포함.



[그림 2] 學校級別 學生數의 推移와 展望

(3) 教育與件의 改善指標

국민 학교 약 47명, 중학교 약 64명, 고등 학교 약 58명, 특수 학교 약 13명에서 2001년에는 각 학급당 학생수는 1983년에 유치원 약 35명, 국민 학교 약 47명, 중학교 약 64명, 고등학교 약 58명, 특수 학교 약 13명, 각 15명, 33명, 약 38명, 35명, 약 9명으로

<표 4> 學級當 學生數 指標 (단위:명)

구	분	1983	1988	1991	1996	2001
유	치 원	34.9	33.7	27.5	21.2	15.0
국	민 학 교	46.9	42.0	40.1	37.1	33.0
중	학 교	63.9	90.2	42.6	40.9	37.6
고	등 학 교	58.1	56.2	45.2	37.8	35.0
특	수 학 교	13.3	13.7	12.3	10.8	9.2

<표 5> 敎員當 學生數 指標 (단위:명)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유	치 원	32.2	23.0	18.0	14.9	12.0
국	민 학 교	41.7	36.8	35.8	33.8	30.0
중	학 교	42.2	37.8	28.2	26.1	23.3
고	등 학 교	31.9	30.1	23.5	19.8	18.8
대	학 (교)	34.1	33.1	28.7	24.3	19.7
특	수 학 교	9.8	9.7	8.2	6.9	5.6

註: 대학(교)은 전문대, 교대, 4년제 대학(교) 포함.

〈표 6〉

學校級別 教員數 推定

(단위 : 명)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유	치 원	6,420	14,400	30,520	48,720	75,740
국	민 학 교	126,160	130,950	139,970	151,800	167,150
중	학 교	63,350	72,750	79,610	94,210	107,940
고	등 학 교	63,110	75,060	91,970	106,260	120,490
대	학 교	29,710	37,160	48,090	59,470	81,310
특	수 학 교	1,170	2,520	5,110	9,080	14,450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원당 학생수는 1983년에 유치원 약 32명, 국민 학교 약 42명, 중학교 약 42명, 고등 학교 약 32명, 대학(교) 약 34명, 특수 학교 약 10명이 목표 연도에 각각 12명, 30명, 약 23명, 약 19명, 약 20명, 약 6명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指標의 실현을 위하여 비록 學生數가 완만한 증가 내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원의 신규 소요 증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표 4〉, 〈표 5〉, 〈표 6〉은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및 이를 실현하였을 때의 학교급별 교원 수를 각각 나타낸다.

(4) 教育投資의 擴大指標

教育機會의 擴大와 教育條件의 改善을 비롯한 수많은 政策課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公教育費 總規模가 GNP와 대비하여 1983년의 6.9%에서 2001년에는 7.1%까지 증대되어야 하고, GNP 대비 정부 부담의 教育投資規模는 公教育費中 학부모 부담률을 점차 축소시키고 公共投資를 확대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1983년의 3.8%에서 목표 연도에는 4.6%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표 7〉

教育投資의 擴大指標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GNP	대 공 교 육 비(%)	6.9	7.4	7.3	7.0	7.1
GNP	대 문 교 예 산(%)	3.8	3.9	4.2	4.4	4.6
공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률(%)	45.5	43.9	37.5	30.5	25.3
WPU	당 공 교 육 비(\$)	244.0	319.8	483.9	655.1	836.6

註 : WPU(Weighted Pupil Unit) : 가중 학생 단위.

教育의 質的 高度化

산업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非人間的 要素는 더욱 팽배되고, 行動 科學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 행동에 대한 科學的 統制의 위험성은 점점 증대될 것이다. 각 학문 영역에서의 知識의 양적 팽창은 학교 교육의 目標와 內容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교육 인구의 다양화는 教授 및 評價 方法의 개선과 교육 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 의식 향상에 따라 학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 증대와 함께 고유의 責務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전망되는 이러한 변화는 教育의 質的 高度化를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고도화는 교육의 人間化 具現, 교육 내용의 適切性 提高, 교수 및 평가 방법의 개선, 그리고 교육 시설의 擴充과 現代化 등을 포함한다.

I. 教育의 人間化 具現

1. 展 望

● 산업 사회의 非人間化 趨勢와 倫理의 混亂: 産業化는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서 인류 복지의 향상에 유례없는 공헌을 하였지만 현대인을 점차 '외로운 群象' '소외된 인간' '組織人間'으로 변모시켜 왔으며, 이러한 산업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人間性 喪失이 우려된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의 심화는 기존의 '價値體系'의 붕괴를 가져와 個人 및 社會倫理

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 學校의 偏重教育에 대한 批判高潮: 미래 사회는 학교 교육을 통한 人間性 涵養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아직도 知識教育, 특히 입시 준비 교육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心理的 風土가 경직화, 관료화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학교가 그 자체의 革新 없이 人間性을 구제하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될 것이다.

● 國際競爭의 격화와 民族自主精神 함양의 필요: 정치·경제적인 면에서의 국제적 경쟁은 2000년대에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국민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이를 위한 民族的 正體意識 및 民族文化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自主精神의 함양이 요청될 것이다.

2. 政策課題

● 學生爲主의 學校運營 促進: 학교의 存立價値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데 있고, 교육위원회는 학교를 위해 있고,文教部는 학교와 교육 위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우선 순위가 실제로는 무시되거나 顛倒되는 사례가 많다. 학교가 학생에게 적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소위 수단과 목적의 倒錯現象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가 物理的으로나 心理的으로 인강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학교의 福祉施設은 적어도 성인들이 생활하는 평균적인 사무실의 수준까지는 따라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권위, 강제, 복종, 위협 등 외부적인 수단보다는 학생들의 내부에서 우리나라오는 成就動機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深層의 人間關係를 위한 生活指導의 強化: 학생들은 이른바 '猶豫期'에 처해 있기 때문에 正體危機와 심리적인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와 고민거리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生活指導와 相談이 실제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요원, 조직, 행정, 시설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대의 인간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정한 人間關係로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되는데, 학교에서의 경쟁적 분위기, 학교 규모의 過大化와 학습의 過密化, 교사의 과도한 업무, 인간관계 기술의 미숙 등도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 상호간, 학생들 상호간의 이해와 인간적인 접촉을 방해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현재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인간관계 개선에 두어야 한다. 근래에는 讀·書·算의 3R 교육에 인간관계(Relation)를 추가시켜 4R 이라는 교육적 용어가 등장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유도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다.

●國民像의 定立: 건전한 國民像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모두가 어려서 부터 지향해야 할 國民像이 없다. 그러나, 國民像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歷史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이미지로 形像化해 놓고 그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그 이미지에 同一視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영국의 '신사도'나 일본의 '무사도'와 같이 우리의 國民像을 定立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학술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心性에 스며 있는 특성, 역사적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한국민의 집단적 특성들 가운데 적극적이고 건전한 특징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국민상 정립을 위한 연구는, 우리 민족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文化民族으로서 東西의 理念對決과 남북의 經濟對決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민족과 인류의 장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심분 고려하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과정에는 각 분야의 학자들과 각계의 대표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國民教育의 評價研究: 현재 國民性 涵養에 관한 교육은 國民精神教育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① 民族 共同體意識 涵養을 위한 국가 의식, 승공 의식, 안보 의식, ② 國民 經濟意識 確立을 위한 경제 지식, 경제 원리, 건전한 경제 생활 태도, ③ 民主의 生活 態度 培養을 위한 民主的 생활 규범에 관한 이해, 民主 政治 體制에 관한 지식, 민족적 생활 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내용들은 規範的 要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생활 차원에 따라 國民倫理, 社會倫理, 個人倫理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차원의 윤리 중 비중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으며, 어떠한 상태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國民教育의 現況을 정확히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 교육에 관한 교재, 지침서, 독본 등을 집필, 제작, 출판하는 기관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없기 때문에 教育 方向과 內容에 일관성도 없고 운영도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分析과 評價가 필요하다.

II. 教育 內容의 適切性 提高

1. 展 望

●知識의 급속한 量의 膨脹: 각 학문 영역에서의 지식의 양적 증가는 학교 교육의 目標와 內容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각 학문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두 가지 특징은 지식의 양적 폭발과 지식의 가속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내용은 後進性은 면하지 못할 것이며, 학

교 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들은 사회에 나와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00 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教育內容의 適切性에 대한 社會의 要求增大**: 高度産業社會의 進進에 따라 2000 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 생활 방식이 현재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며,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價値觀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目標와 內容에 있어서 그 適切性과 학교 교육의 效果에 대한 責任性을 따지는 국민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요구를 종합적이고 재빠르게 수렴하여 계속적으로 教育課程의 개편에 반영시키는 일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高度學習社會의 到來**: 고등 교육 기회의 지속적인 확대로 高學歷社會가 진전될 것이며, 사람들은 노후에도 계속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꾸준히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추미하기 위하여 배움을 계속할 것이다. 2000 년대에 가면 자기 삶의 한 자연스러운 過程으로 배움을 생활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는 고도 학습 사회가 될 것이다.

2. 政策課題

●**教育課程研究·開發體制의 制度化**: 知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教育內容을 精選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學習轉移價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構造化시켜야 한다.

급변하는 학문의 내용과 사회에 대처하여 教育課程 및 교과용 도서는 수시로 개편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의 내용에서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은 점차 학교 또는 교사의 수준에서도 가능하도록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개개인의 特殊性이나 個人差를 고려한 다양한 教育課程이 개발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신축성과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부진아, 영재아, 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독립된 教育課程이 학교급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教育課程이나 教科用圖書의 개발은 그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담할 전문 기구가 필요하며 이의 육성이 장기적

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教育課程 適切性 審議를 위한 制度的 裝置 構案**: 教育課程 改編에 관한 기본 계획,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심의, 질적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계획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中央 教育課程 運營 委員會(가칭)’를 문교부에 두고, 그 하위 위원회로 各 教科別, 또는 學校級別 委員會를 둘 필요가 있다.

教育課程의 質 管理를 위한 국가, 또는 시·도 수준의 평가 및 점검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教育課程 評價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개관적인 基準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각종 교수—학습자료의 심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그 활용에 대한 방안이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教科書 編纂政策의 改革**: 현재는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과서의 自由開發을 허용하되 ‘교과서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개발 과정과 선정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교과서의 質 管理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1종 도서는 점차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여, 교과서의 집필, 검인정, 출판 등에 관한 정책의 統制權이 정부에서 專門家 집단으로 점차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教授—學習資料가 난무하게 될 2000 년대에 가서도 교과서는 여전히 교육 내용을 정선하고 학습을 자극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관련된 基礎研究가 더욱 체계화되고 심화되어야 하며, 특히 敎科教育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教育課程運營의 自律性賦與**: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와 내용, 학습 활동의 선정, 시간 계획 등이 학생, 학교,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그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自律性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2000 년대에 들어서면 각급 학교 교원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교직이 훨씬 전문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육과정

운영 중 많은 부분이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와 학급의 특성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國際理解教育 및 體育教育의 強化: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한 國際理解教育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때 민주 우방 국가뿐 아니라 제3세계 및 공산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外國語教育 및 地域研究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스포츠를 통한 국제 경쟁 강화, 국민 전체의 기초 체력 향상 및 보건 위생 의식 고조 등을 위한 체육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Ⅲ. 教授 및 評價方法의 改善

1. 展 望

●人間教育에의 壓力增大: 몇 가지 문제점을 과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중학교 무시험 전형과 고교 평준화 시책은 초·중등학교로 하여금 入試指向教育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교육 내외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더우기 2000년대에는 학생 개개인의 自我實現을 왜곡되게 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는 교육은 非人間的 教授方法이라고 규정하는 국민 의식이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능력과 잠재 가능성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教授 및 評價方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學習集團의 異質化 및 多様化: 계속되는 교육 기회의 확대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집단의 능력 및 특성에 대한 개인차의 확대 및 이질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의 교육을 포함시켰을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변화는 教授方法의 혁신과 評價方法의 개선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教授方法의 效率性 提高: 과학·기술의 발달은 노동 집약적 교수 방법에서 기술·자원 집약적 교수 방법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에 따라 Computer와 V.T.R을 활용하는 教授 및 學習方法이 광범하게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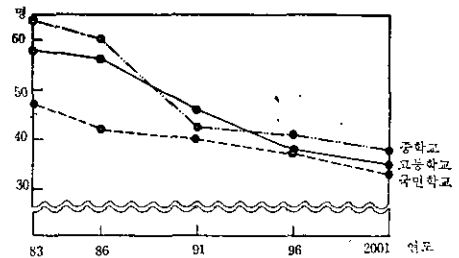
●評價方法의 變化 要求 增大: 筆答 考査와 같은 한정된 평가 방법, 정착되지 못한 絕對 評價 體制, 그리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평가 방법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평가의 客觀性과 信賴性, 그리고 평가의 人間化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2. 政策課題

●學級規模의 柔軟化: 각 개인의 능력 수준에 알맞는 集團 構成을 제도화하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 집단 구성의 柔軟化는 고정된 우열반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 또는 내용 영역에 따른 집단 구성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學級規模를 축소시켜야 한다. 선진 외국의 수준은 고사하고 教育法施行令에 제시된 수준에 미달되어 있는 현재의 학급규모를, 적어도 다음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는 33명, 중학교는 38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35명선까지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 계획

●教授—學習資料 및 教授方法의 多様化: 교육 목표와 내용의 종류,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는 教授—學習資料의 개발·보급이 요청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기의 학습 속도에 알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個別化 授業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와 교과목의 특성 및 지역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教授方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社會教育도 보편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따른 성인에 대한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도 요청되고 있다.

한편, 교수 방법의 개별화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授業 運營 體制가 보다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 전 우수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법정 학령 이전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週5日制 授業方式의 도입도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장면의 확대가 요구되는 바, 수업이 꼭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울 내용만 있으면 그 어느 곳이든지 수업의場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악회, 미술 전람회, 박람회, 각종 운동 경기, 야영 등이 수업의 연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장면의 확대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유기적 연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評價의 個別化 및 評價領域의 擴大**: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도록 하는 ‘評價의 個別化’를 통하여 지나친 경쟁 의식에 의한 非人間化를 막을 수 있다. 이는 행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目標 管理制’를 개별화하여 평가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평가의 영역을 현재의 학력 평가 중심에서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교수 활동, 교육 풍토 등에 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學力 管理 公團(가칭)’과 같은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IV. 教育設施의 擴充과 現代化

1. 展 望

●**學校 施設 構造 變化의 必要性 增大**: 현재의 일률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교실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教育 工學의 발달로 말미암아 敎授—學習 方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달라지고 학습 집단의 구성도 보다 柔軟化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시설 구조의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教育 施設 所要의 增大**: 教育 施設은 학생과 교원의 학습 및 생활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시설 이외에 복지를 위한 시설까지를 고려한다면 향후 교육 시설의 소요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생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2000 년대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교육을 위한 시설 소요도 대폭 증대할 것이다.

●**學校 施設의 落後性 深化**: 학교 시설은 그 절대 수가 크게 부족할뿐만 아니라 의과 시설 및 내부 시설이 모두 낙후되어 있다. 1983년 현재 국민학교의 시설 노후 현황을 보면, 改築 및 重修되어야 할 보통 교실이 각각 8.7%와 5.2%이고, 특별 교실이 각각 13.0%와 4.4%이다. 이러한 낙후 현황은 내부 시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財政 投資가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학교 시설의 낙후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2. 政策課題

●**學校 施設 基準의 現實化**: 현재 우리나라 各級 學校 施設 基準令에는 시설의 개념 및 분류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 많고, 일부 시설 기준은 實現可能性이 낮게 산출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 기준은 學校 教育課程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最低 水準의 基準만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경우, 校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물과 교지의 기준을 분리·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별로 施設 基準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基本 教育 施設의 確保**: 학교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校地인데 교지의 부족 현상은 大都市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도시 지역에 새로 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일정 면적을 學校 用地로 확보할 수 있도록 ‘學校 用地 確保法(가칭)’을 제정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주택 단지가 이미 조성된 지역에는 小規模 學校의 운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시설 가운데 교육 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校舍이다. 계획 기간 중 학교 급별 所要 教室數와 新設 學校數는 다음의 <표-1>과 <표-2>와 같다.

그리고 社會 教育의 확충을 위하여 연수, 연구, 교재 개발, 사회교육 정보 센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社會 教育 研修院’을 설치·운영할

〈표-1〉

學校別 普通教室 所要 推定

구	분	'83 현황	'84~'86	'87~'91	'92~'96	'97~2001
유	치 원	5,910	3,605	9,381	12,840	23,874
국	민 학 교	112,122	9,683	16,833	17,087	17,065
중	학 교	41,852	3,919	6,943	7,364	6,895
고	등 학 교	34,673	5,498	7,750	7,803	9,040

註: 1 학급 증가시 1 교실 소요로 판단한 것임.

따라서 실험·실습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교실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표-2〉

新設 學校數 推定

구	분	'83 현황	'84~'86	'87~'91	'92~'96	'97~2001
유	치 원	4,276	1,451	3,185	3,654	6,368
국	민 학 교	6,500	241	438	493	482
중	학 교	2,254	177	314	333	325
고	등 학 교	1,494	191	283	290	339

註: 1) 유치원은 원당 학급수를 '82년의 공립 1.6개, 사립 2.2개에서 2001년에 각각 2.0개, 4.0개로 하여 추정.

2) 국민학교 증가학급은 36 학급 규모의 학교로 신설.

3) 중학교는 신설학급의 60%를 18 학급 규모의 학교로 신설.

4) 고등학교는 신설학급의 60%를 공립은 18 학급, 사립은 24 학급 규모의 학교로 신설.

필요가 있다.

●學校施設の現代化 및 活用率 極大化: 개인차를 고려한 소규모 학습 집단과 대규모 학습 집단에 각각 적합하게 다양한 형태의 교실을 구비해야 하고, 실험·실습실 및 여학실 등이 확충 및 현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실에 人工 照明 施設 및 환풍 시설을 구비하고 학생들이 자기의 체격에 맞는 책·걸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야 하며, 교사들의 연구 업무 추진을 위해 教師研究室이 학년별 또는 교과목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시설 중 도서실, 운동장, 실험·실습실, 강당 등을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개방함으로써 시설 활용률을 높이면서 지역 사회의 센터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教育體制的 革新

제도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學校制度만으로는 오늘날 확대되고 다양해진 教育的 要求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학교의 제도적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한편 학교 밖의 교육을 확장·발전시키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교육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平生教育體制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教育機會不均等과 教育的 質的 隔差 문제는 사회적 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0 년대를 향한 한국의 教育體制 革新을 위한 政策課題는 平生教育體制的 確立, 學校制度的 刷新, 教育機會不均等 및 教育的 質的 隔差 解消, 그리고 家庭教育 및 社會教育的 擴充 등으로 요약된다.

1. 平生教育體制的 確立

1. 展望

● 教育體制改編의 世界的 潮流: 이미 1960년대부터 教育改革的 불가피성이 많은 국제적 교육 기구에 의하여 거론되어 왔다. 최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제국들이 교육 개혁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의 한계 문제이다.

教育體制改編의 세계적 조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는 마무

리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學校本位 教育制度的 限界到來: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은 학교에만 의존해 왔다. 그 결과, 教育需要의 증가에 따라 학교를 팽창시켜서 量的 규모는 커졌으나 質은 저하되고 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은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가 담당하지 못할 갖가지 非形式, 無形式教育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平生教育具現에 대한 要求增大: 제 5공화국 헌법 제 29조 5항은 “국가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理念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추세이기도 한 平生教育具現을 위한 法的·行政的 정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대될 것이다.

2. 政策課程

● 教育體制改編의 推進: 이제까지의 學校依存的 教育體制에서 벗어나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가정 교육, 사회 교육, 학교 교육이 대등하게 존중되는 教育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平生教育體制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교육 주체로서 教育選擇權과 자녀에 대한 教育決定權을 갖게 되며, 정부의 역할은 자유로운 教育行爲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교육적 불우층을 지원하는 등 국가에 위임된 최소한의 교육 활동에 한정된다.

이러한 教育體制의 改編을 위하여 각계 인사를 망라하는 ‘教育體制研究委員會’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財政的인 支援을 해야 한다.

● **社會의 教育化 運動 展開**: 사회의 非教育的 環境의 제거와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하여 지역 사회의 教育 기능을 현대 사회에 알맞게 부활시켜야 한다. 지역 사회마다 ‘地域社會教育委員會’를 조직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教育 環境은 지역 주민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의 連繫強化**: 학교 教育과 사회 教育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教育內容의 관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融通성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의 입학시 社會教育機關에서 받은 체계적 教育과 현장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教育基本法’의 制定과 行政組織의 改革**: 현재 教育에 관한 基本法으로는 教育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학교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그 밖의 教育은 경시되어 있다. 教育法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文教部의 조직도 학교 教育 중심의 행정 체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學校外 教育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된 정책적 관심 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 教育, 학교 教育, 사회 教育을 모두 포괄하는 ‘教育基本法’(가칭)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 법에서 이들 영역을 규정하고 相補의 關係를 밝히며, 국민 개개인의 教育選擇權 保障, 이를 위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 각 부처간의 協助體制 등을 규정해야 한다.

II. 學校制度的 刷新

1. 展望

● **教育要求의 多樣化 및 教育年限의 延長**: 오늘날에는 社會構造가 복잡해지고 教育機會의 개방으로 모든 집단, 모든 계층이 教育을 받게 됨에 따라 教育需要者들이 요구하는 教育內容 및 方法, 教育機關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教育 인구가 더욱 多變化될 것이 예상되므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가에서 국민들에

게 무상으로 提供하는 의무 教育 年限의 延長이 외에도 국민이 教育 체제에 머무는 시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계획된 9년간의 의무 教育과 함께 전체적인 국민의 教育 받는 기간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私學의 獨自性·自律性에 대한 要求增大**: 1983년 현재 한국의 私學의 비중(학생수)은 유치원이 55.5%, 국민 학교가 1.4%, 중학교가 34.5%, 고등학교가 59.5%, 그리고 대학(전문대, 대학원 포함)이 75.1%이다. 이러한 사학의 비중은 하급 학교에서는 다소 그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상급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전망된다.

오늘날 사학은 학교 운영, 예컨대 학생 선발, 공납금, 교장 임가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私學의 自律性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特殊教育에 대한 要求增大**: 教育의 機會均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편으로 장애자의 潛在能力이 크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의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職業의 分化로 장애자들의 人力活用이 증대될 전망이며, 이를 위한 장애자 특수 教育 및 직업 훈련의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 **英才教育에 대한 要求增大**: 최근 들어 우수한 지능과 역량을 지닌 학생들에게도 教育의 機會均等이란 차원에서 이들의 能力을 啓發시켜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 경쟁력 강화와 人力開發의 效率化란 측면에서도 영재 教育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대될 것이다.

2. 政策課題

● **學校의 多樣化**: 현재의 학교 제도는 劃一化되어 있어서 다양한 성격과 내용의 教育이 하나의 틀에 맞추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에·체능 教育은 물론 英才教育, 特殊專門教育 등 다양한 教育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多樣化와 운영의 柔軟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中等教育機關은 一般學校와 特別學校로 구분

하여 발전시키되, 일반 학교는 현재의 人文 및 實業高校를 포함하고 특별 학교는 예술, 체육, 특수 기술, 영재, 신체 장애아, 외국인 등 특별한 內容이나 對象을 다루는 학교로 설치한다. 여기에서 일반 학교는 일종의 '연합학교' 체제로 발전시켜 大學進學 準備課程과 職業課程으로 구분토록 한다. 한편, 특별 학교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 학생 선발, 진급, 졸업 기준, 교사 자격, 교육 과정 등이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 교육도 '學問指向系列'과 '實際指向系列'의 분리 운영이 바람직하다. 학생 선발 방식, 教育課程運營, 시설 기준, 교수 자격, 학위 종류 등을 달리하여 교육의 質管理를 독립적으로 도모하도록 한다.

●義務教育의 擴大와 無償化의 實現:義務教育年限延長의 필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중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을 1991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9년 의무 교육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명실 상부한 無償制이다. 1983년 현재 중학교 취학률은 96%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無償化가 의무 교육 연한 연장 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막대한 재정의 소요로 불가능하다면 굳이 의무 교육 연한 연장을 서둘러 실시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4%의 청소년들을 위한 教育機會의 제공에 노력하는 한편 島嶼僻地 地域에 중학교 설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화 등을 추진하는 편이 오히려 원활한 정책이 될 것이다.

●私學의 育成:私學의 自律性과 獨自性을 확립하기 위해 '私學育成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사학 자신의 활성화 방안과 사학 재정의 自助의 能力, 사학에 대한 國庫補助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사학에 대한 國庫支援은 주로 中等私學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私立大學의 외국 차관 상환금 이자의 1/2, 연금의 2%, 그리고 의료보험금의 2.7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사학에 대한 한국 교육의 依存度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

하여 적어도 공·사립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준이 동등하도록 국고 지원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稅制上的 特혜를 부여 받는 特別法人體의 金庫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금고의 재원으로서는 사립 학교가 출자하는 私學振興助成金, 私立學校教員年金基金, 사립 학교 학생 저축, 寄附金, 國庫出捐金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國庫出捐금이 총규모의 6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特殊教育의 振興:특수 교육 대상자를 정상아와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보다는 정상아 학급에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이른바, 메인스트림(mainstream) 운동이 선진 제국에서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는 메인스트림 동향에 맞추어 정규 학급에서 교육 받는 장애자들이 특수한 施設과 教材로 교육 받을 수 있는 資源教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 교사의 양성도 統合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자를 早期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早期教育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장애자 발생의 미연 방지와 특수 교육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수준의 特殊教育研究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英才教育의 擴充:英才教育의 전개는 이념적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실험 과정을 거쳐 실시하되, 學制, 學生選拔, 教育課程, 教員 등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통하여 制度化하여야 한다.

한편, 영재 판별을 위한 전문 요원,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원, 教授要員 등을 훈련·양성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매체를 개발해야 한다.

영재 교육은 중학교 단계에서 시작하여 상급 학교에 연결되도록 하고, 각 단계의 英才教育機關은 精銳化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教育課程의 運營 및 학교 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학교와 교사에게 自律權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Ⅲ. 教育機會不均等 및 教育의 質的 隔差 解消

1. 展望

●學力重視의 社會的 風土 持續:學歷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학력간의 不平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학력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教育機會配分의 公正性인데 한국의 경우 특히 학력 경쟁의 최종 단계인 大學教育機會의 分配에 있어서 歸屬主義的 경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 변인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귀속주의적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平等教育觀의 變遷:교육 평등은 대체로 許容的 機會平等, 保障的 機會平等, 教育過程의 平等, 教育結果의 平等으로 바뀌어 간다. 이들은 累加的이기 때문에 앞 단계의 평등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면 오히려 不平等이 深化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라 교육 평등을 위한 정책 내용은 다를 수 밖에 없는 바, 유치원과 대학은 保障的 機會平等, 초·중등 학교는 過程的 平等을 각각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學校差의 尙存:학교 간의 격차는 공·사립 간, 도시·농촌 간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도시·농촌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教育施設 뿐만 아니라 교사의 經歷과 專門性에 있어서도 농촌이 도시에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향은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 政策課題

●教育費 支援制度의 確立:교육의 機會不均等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獎學金制度를 들 수 있는데, 아직은 장학금의 受惠 범위가 좁고 그 대부분이 우수 학생에 대한 副賞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教育費 支援制度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등록금 이외의 教育經費도 지원하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學費貸與制度도 강화되어야 한다.

●教育制度開放化의 繼續推進:취업이나 지체 부자유 등으로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學校制度의 開放化를 실시하는 것도 教育機會 不均等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산업체 부설 특별 학급, 개방대학 등을 더욱 확충 발전 시켜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內實化가 다져지는 대로 碩士課程의 개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教育選拔方法의 改善:현재의 교육 선발 방법은 教科成績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교과 시험 성적은 교육 선발 기준으로서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 성적은 階層文化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발 기준을 多元化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예컨대, 미국 대학들은 내신 성적, 적성 검사 점수,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흑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에게는 대학별로 비율을 정하여 그들의 대학 진학을 돕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노동자 출신을 위한 點數加算制를 실시하기도 한다. 教育選拔方法을 채택함에 있어서, 機會配分의 均等化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교과 성적에 의한 경쟁만으로는 불리한 집단에겐 혜택을 줌으로써 教育機會配分의 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學校差의 解消:學校差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각급 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특히 중·고등 학교와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등 학교의 경우 入試制度와는 무관하게 학교차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平準化政策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입시 경쟁을 첨예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 대학 간의 質的 差異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특히 施設擴充과 教授資質의 上向 平準化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補償教育制度의 導入:여러 연구들이 일관성 있게 밝히고 있는 것은 지역간, 계층간 成績差가 현저하다는 사실인데, 이는 교과 성적이 상급

학교 진학시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입시 제도 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종래에는 學校差를 없앴으므로 그러한 成績差가 해소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많은 연구 결과 학교 차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成績隔差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채택된 것이 補償教育政策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 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농촌 및 벽지와 도시 내의 일부 영세민 집중 지역의 학교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教育結果를 기준으로 하는 質의 平準化가 실현될 것이다.

IV. 家庭教育 및 社會教育의 擴充

1. 展望

●傳統的 家庭教育機能의 喪失: 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곳은 가정이다. 性格은 물론이고 思考方式과 知的 能力도 취학전 가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傳統的인 家庭의 教育的 機能이 오늘날에는 가정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가정 교육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들이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役割教育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출가 전에 賢母良妻가 되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役割教育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졌고 미래에는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社會教育에 대한 要求增大: 과거에는 어느 직업에서나 기본적 知識과 技能만 익히면 그 다음에는 경험의 누적으로 직업적 專門性을 높여갈 수 있었지만 科學·技術이 급변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일정한 직업 수준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계속 교육은 직업 세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부들과 노인들에게 삶의 한 부분으로

서 生活의 質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는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2. 政策課題

●家庭教育 回復을 위한 社會的 運動 展開: 政府와 社會團體 공동으로 가정 교육의 회복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이 운동은 학교, 사회 단체, 매스컴 등이 협력하여 꾸준히 전개해야 하며, 종래까지의 유사한 운동을 여기에 통합시켜야 한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될 전망이므로 학교와 사회 교육 기관을 통하여 父母役割教育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 등을 포함하는 '家庭生活' 교과를 신설하고, 고등 학교에서는 현재 선택 교과로 설치되어 있는 '教育'을 보다 일반화되도록 장려한다. 한편, 사회 교육 기관에서는 育兒, 子女教育 등에 관한 강좌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선진 외국처럼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가정 교육 지침서를 배포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零細民家庭에 대한 家庭教育支援: 영세민 가정은 경제적 빈곤,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주위 환경의 非教育性 등의 요인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적으로 결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 所得支援事業과 醫療惠澤事業 등을 실시하는 것처럼 教育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教育支援事業에는 教育補助金의 지급, 教育資料의 제공, 부모에 대한 育兒教育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소나 유아원에 영세민 가정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社會教育施設의 擴充: 市·郡 단위에 '社會教育館'을 설치하여 지역 내의 사회 교육 활동의 센터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회관, 문화원, 여성회관, 복지관 등에도 教育要員을 배치하여 교육 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단순한 施設提供을 넘어서서 명실 상부한 사회 교육 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工團地域에는 社會教育施設을 우선적으로 배

치하여 근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社會教育 振興制度의 確立** : 社會教育機會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有給教育休暇制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社會教育振興을 위한 財源確保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이 교육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稅制上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와 단체는 예산 또는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教育費로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 **大學의 繼續教育 制度化** : 대학이 지니고 있는 人的·物的 教育資源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민 전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장·단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이다. ◆

『韓國教育』原稿募集

教育學學術誌 『한국 교육』 제 12 권 1 호에 掲載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公募합니다.

1. 原稿內容 :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한 教育學關係研究論文
2. 原稿枚數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영문 요약 5매 이내 첨부, 더블스페이스 타자)
3. 原稿 마감 : 1985. 7. 1. (1985. 8월 말 출판 예정)
4. 原稿提出處 : 한국교육개발원 출판실
5. 其他 : 제출된 원고는 出版審議委員會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原稿는 國漢文을 적당히 混用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567-5021 교환 384번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人力開發의 效率化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00년대의 한국은 고도의 科學—技術知識이 지배하는 知識產業社會가 될 것이다. '70년대까지의 勞動集約的產業에서 두뇌 집약적 기술, 고도 기술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며, 高級頭腦人力的 필요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산업 발전에 따른 人力需給의 양적·질적 균형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모든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능력에 맞는 進路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進路 및 職業教育에 대한 강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한편, 고급 인력 수요의 증대와 高等教育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으로 고등 교육은 대중화 추세에 있지만, 한국의 발전 좌표는 質 높은 고급 두뇌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高等教育體制는 대중화를 지향하면서도 특정 분야에서는 秀越性을 추구하는 체제로의 改編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人力開發의 效率化 측면에서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進路 및 職業教育의 強化, 및 高級頭腦 人力養成의 效率化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하여 2000년대까지의 展望과 政策課題를 제시한다.

I. 科學·術技教育의 振興

1. 展望

●科學·技術發展의 加速化에 따른 基礎科學教育의 重要性 浮刻: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큼 향후 科學·技術의 지식량은 급속히 팽창하게 될 것이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보면 1960년대에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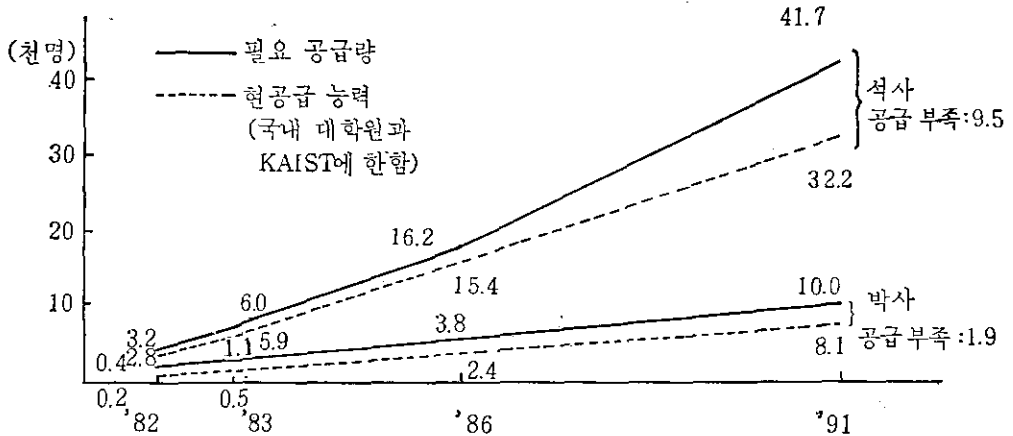
간 蓄積된 知識量은 '50년대 이전의 50년간 누적된 지식량과 같았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5년간 축적된 지식의 양과 같으며, 198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2~3년간 불어난 지식의 양과 비교될 정도로 그 양은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2000년대에 더욱 加速化될 것이며, 따라서 科學的 態도와 科學的 思考·探究能力의 培養을 위한 기초 과학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高等教育機關의 基礎科學教育與件改善에 對한 要求의 增大: 高度產業社會로의 변모에 따라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국가간의 情報競爭 및 技術開發競爭이 치열해짐으로써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기술 개발 역량의 배양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고급 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기초 과학 교육 여건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2. 政策課題

●科學技術教育을 위한 教授—學習方法的 革新: 탐구하는 태도와 문제를 논리적,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습관과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강의식 교수 방법보다는 탐구 중심, 실험·실습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科學教師養成教育 및 再教育制度的革新, 실험·실습 여건의 개선, 과학 교사의 교수 부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科學教師養成 教育課程의 혁신을 위해서는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범 대학 과학교육과와 일반 대학 교직 과



〈圖-1〉 科學·技術系 碩·博士 人力의 需給展望

정 이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시키며, 敎師 再教育 기회 확대,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行·財政的 지원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實驗·實習與件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험 실습실의 확보와 실험 실습 기자재의 개발·공급을 위한 지원·육성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과학 교사의 교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擔當 授業時間數의 경감과 아울러 實驗·實習助教制를 운영해야 한다.

●學校外 科學實習 活動場의 開發과 擴充: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學生科學館은 지역적 제한성과 인력 부족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 대규모로 설치하던 것을 규모는 줄더라도 인구 집중 지역에 고루 설치하고 物理, 生物, 産業, 海洋 등의 과학관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과학관을 비롯한 과학 실습 활동장은 명실공히 학생들의 自然觀察場, 實驗·實習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설비나 자료면에 있어서도 國際의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科學英才教育機關의 設置: 고도 산업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고급 두뇌, 특히 科學技術 部門의 高級頭腦 養成의 국제적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과학적 재능의 조기 발견과 조기 훈련을 위해 각급 학교 수준의 科學英才教育機關을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大學의 基礎科學 研究機能의 強化: 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大學附設研究所를 확충, 지원하며, 교수 부담의 경감, 연구비 증액 지원,

도서 및 자료 구입비 증액, 有給助教의 증원 및 실험·실습 기구 구입 절차의 간소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海外 優秀科學者를 장·단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우수한 대학원과 科學技術院 등에 博士課程을 확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우수한 교수를 양성하여야 한다.

●基礎科學 協同研究體制 및 評價管理體制 確立: 대학 간, 대학과 각종 연구기관 간, 대학과 기업체 연구소 간의 協同研究體制를 확립함으로써 상호 情報交換, 창의성 자극, 국가적 요구의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高價의 研究施設 및 기재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학술 재단에 대학, 학술원, 과학기술처, 정부 출자 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등의 권위자로 구성된 專門委員會를 두어 기존 과학 연구의 質管理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委員會에서는 연구 과제 선정 및 조정, 국제 회의 참석, 해외 석학 국내 유치, 해외 훈련자 전·후관리, 연구 결과의 평가 등을 관장하도록 한다.

●尖端科學 技術의 振興: 선진 조국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첨단과학·기술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관련 분야의 종합적 협의를 통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점적 육성이 요청되는 주요 부문으로는 經濟發展 및 輸出增進을 위한 技術—材料 技術, 生物工業技術, 精密化學, 機械, 우주과학 등—, 資源活用을 위한 技術—에너지 이용, 食糧增大(유전공학) 등 福祉向上을 위한 技術—環

境保全, 防災, 住居環境, 보건, 의료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분야의 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고, 國費留學, 海外研修補助 등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II. 進路 및 職業教育의 強化

1. 展望

● **進路選別教育의 重要性 增大**: 산업 발전에 따른 人力需給의 양적 균형 못지 않게 직업의 분화,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適材適所에 배치하는 인력 수급의 質의 均衡이 중요하게 되면서, 모든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 능력, 흥미에 맞는 進路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進路選別教育의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 **職業教育의 必要性 增大**: 앞으로 직업에 대한 전문적 지도가 없는 한, 자기에게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의 教育體制가 향후 예상되는 人力需要를 충족시키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일부 職種에서는 人力需給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 내용이나 배출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도 產業界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義務教育의 연한 연장과 보편화가 촉진되면서 非進學·未進學者들의 진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진로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이 강화되지 않는 한 靑少年問題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 **熟練·多機能工의 需要增大**: 技術集約의 産業의 촉진으로 고도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숙련공과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多機能工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學校教育과 職業訓練의 기능을 뚜렷이 분화하고 각 기능의 내실화와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향후 높은 기술을 소유한 技能工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中堅技術人의 役割分化和 需要增大**: 중견 기술인

은 技術人力構造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中間技術者로서 생산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갖고 있는 技術者와 생산 과정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技能工 및 操作工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產業構造가 고도화됨에 따라 중견 기술인은 선진국처럼 그들의 役割과 技能이 분명해지고 이 需要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技術界 人力構造는 기술자를 정점으로 하여 중간 기술자, 기능공 등으로 피라미팅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각 기술계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각 技術人力을 형성하는 기능은 分化·專門化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2. 政策課題

● **進路指導의 強化**: 進路選別에 따라 진학자들에게는 진로 준비 교육을, 비진학자들에게는 적절한 職業準備教育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生産性을 높여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진로 선별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치원, 국민 학교에서는 職業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키우고, 探索期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탐색과 基礎情報를 제공하여 잠정적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등 학교 과정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여 취업 또는 진학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특정 계열의 고등 학교에 배정된 이후에도 진로를 수정하여 계열 변경이 가능하도록 融通性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진로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進路情報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로 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등 학교에서는 進路相談教師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해야 한다.

● **高等學校 職業教育課程의 適切性 提高**: 2000 년대의 고등 학교는 人文과 實業의 구분보다는 일종의 聯合高等學校로서 모든 고등 학교 학생들이 共通의 基本教育을 받고, 장차 그들의 진로에 적합한 진학 교육 또는 職業教育을 받는 學校體制로 바뀔에 따라 특히 職業教育課程은 변천하

는 산업 사회에 적응 하는데 필요하고 건이 효과 큰 내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즉, 종래의 專門技術 과목 위주의 편협성과 경직성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직업 교육과 함께 職業人으로서의 소양과 관련되는 건전한 직업관, 작업 관리, 인간 관계,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의 교과도 포함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工業教育課程에는 산업 현장의 직무 분석 결과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技術·理論·現場 實習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農業教育은 영농 기술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自營農業人 또는 指導要員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농업 교육 이수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자영 희망자에 대한 營農定着金 확대 등 유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여 商業教育課程도 현대화되어야 한다. 즉, 외국어 교육의 강화, 컴퓨터 등 情報處理技能의 습득, 근대적 판매 기법의 습득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경영·관리의 종합 실무 능력을 측정하는 技能檢定制度가 실시되어야 한다.

· 水産·海洋教育에서도 해양 식량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水産技能人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신축성 있게 개편하고 어로 실습의 강화를 위한 實習船의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實科敎員의 資質向上과 職業教育施設 擴充: 실과 교원의 자질 향상과 流出防止를 위해 특별 수당의 증액, 병역 혜택의 부여 등의 유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과 교원 양성 과정을 확충하고, 획일적인 學歷要件을 완화하는 대신 현장 실무 경험과 기술 자격 획득을 실과 교사 자격 기준으로 요건화해야 된다. 또한 기존 교원들에게는 海外研修를 포함한 각종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연수 내용을 産業現場 實務中心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의 선정·확보를 위해 國庫支援을 확충하여 實習 기회를 늘려야 하며, 실습장은 지역 단위로 구성되는 共同實習 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 專門大學 機能의 多樣化 및 教育與件의 改善: 앞으

로의 전문 대학은 정규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세분되고 다양한 教育課程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사회, 지역 사회, 그리고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類型別로 特性化하여야 한다. 즉 工業系 전문 대학은 공업계 고등 학교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中堅技術人力의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專門大學은 미진한 일반 고등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職業教育이나 이에 취업한 자가 轉職을 위해 받아야 할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短期職業大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地域社會 특성과 주민들의 教育的 欲求를 충족시켜 주는 地域社會大學과 여성 인력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들을 위한 단기 대학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 대학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은 물론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을 계속 확충·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국립 전문 대학에서는 '施設擴充 特別會計制度'를 운영하고, 私學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 대부 교육 차관 등의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Ⅲ. 高級頭腦人力養成의 效率化

1. 展望

● 高等教育人口의 계속적인 增加: 해방 이후 고등 교육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84년 현재 就學率이 27.9%로서 고등 교육의 大衆化 단계에 와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00년대에 가서는 普遍化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상승을 위한 個人的 要請과 아울러 産業體制의 변화에 따른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말미암아 高等教育人口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平教育의 理念에 따라 한정된 연령층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으로 넓혀질 것이다.

● 高級人力의 國際競爭力 強化: 미래의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賦存資源이 취약한 한국은 무엇보다도 교육 받은 頭腦資源이 각종 산업의 生産性を 높여 國際競爭力을 강화

〈표-1〉

高等教育人口의 擴大規模推定

(단위: 천명)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계	1,061	1,310	1,485	1,573	1,763
대	학 원	60	98	123	152	184
대	학 (교)	773	945	1,048	1,089	1,199
교	육 대 학	12	20	24	28	29
전	문 대 학	216	247	290	304	351

註: 대학원은 석·박사 학생수를 포함함.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 교육에 주로 의존해 왔던 人力養成은 국내 공급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요청된다.

● 學術研究·開發機能의 必要性 增大: 국가의 長期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자원 절약적이고 두뇌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技術開發과 技術革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學術研究·開發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날로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외국 기술의 모방과 도입 때문이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국제 경쟁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며, 국제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2. 政策課題

● 定員政策 및 學生選拔의 自律的 制度化: 대학 정원 정책은 特定戰略的 分野에 국한하여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大學協議機構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大學은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집단들에게 衡平의 原則

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學問的 秀越性을 추구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의 중진 교수들로 구성되는 大學業績評定委員會는 교육 여건 기준을 각 대학에 엄격히 적용하여 대학의 교육 능력 및 학생 수요 능력을 평가한다.

● 教育與件의 改善: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는 대학생수에 대처하고 다양한 教育課程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教授要員을 專門分野別로 확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설정,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90년대 후반기 이후 선진국의 현재 수준까지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전망하면 〈표-2〉와 같으며, 선진국의 현재 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을 보면 〈표-3〉과 같다.

한편, 교수의 처우를 향상시켜 우수한 석학들은 교수직에 유지하는 방안도 高等教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大學院體制의 改善과 大學院中心 大學運營: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의 교육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學問的 水準을 유지하도록 교육의 질

〈표-2〉

高等教育機關의 教授 1人當 學生數의 展望

(단위: 명)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계	34.1	33.1	28.7	24.3	19.7
대	학 (교)	34.4	33.5	28.5	23.4	18.4
교	육 대	22.3	25.8	23.5	21.3	19.0
전	문 대	33.9	32.4	30.4	28.4	26.3

〈표-3〉

各國의 教授 1人當 學生數

구	분	한 국	일 본	자유중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기	준 연 도	1983	1981	1981	1978	1979	1978
교	수 1인당 학생수	34.1	17.6	20.1	16.4	8.8	20.4

資料: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1983.

日本文部省, 『文部統計要覽』, 1983.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博士課程의 설립에 있어서는 精選主義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여건과 資源으로서의 국제적 수준의 敎育과 研究가 어렵다. 따라서, 전국을 크게 5개의 廣域 大學院圈으로 분류하고 하나의 領域圈內에 1~2개의 先導의 大學院을 설정하여, 집중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들 선도적 대학원은 博士課程中心으로 집중 육성하여, 학부 학생의 敎育보다도 대학원생의 敎育과 研究指導에 역점을 두는 大學院中心 大學校로 발전시켜야 한다.

●大學院敎育의 特性化 및 協同化: 대학원 敎育의 單位費用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高價敎育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권이 온갖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이른바, 具色각추기식의 나열은 지양해야 한다. 專門大學院의 경우는 전국의 産業圈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원 敎育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의 人的 및 學術研究 資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協同體制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공동 강좌의 개설, 타 대학원 수강 학점의 인정, 공동 학술 연구의 기획, 도서관 및 실험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가가 인정하는 研究所와 大學院 간의 協同體制를 구축하고, 分野에 따라서는 연구소에 學位課程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學位課程 및 學位審査의 強化: 학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박사 과정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재평가하여 정비하도록 하며, 학위 과정의 綜合試驗制를 강화한다. 박사 학위 논문은 해당 전공 분야 지도 교수의 집중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對象 學生數 및 敎授의 負擔을 최소로 하고 학위 과정의 대학원

생에게 도서관이나 실습실 내에 박사 학위 이수자에 대한 간이 研究室을 설치하고, 도서 활용을 개방하는 등 도서관, 실험 실습실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制度的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高等教育機關의 研究·開發機能 擴充: 현대 사회에 있어서 知識産業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창조적 두뇌와 연구에 조예가 깊은 研究人力은 고등 敎育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可用한 모든 人的·物的 資源을 최대한로 활용하여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의 확충은 産業體의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 때 基礎研究와 開發研究를 위한 대학과 기업 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 敎育 기관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大學附設研究所에 대한 연구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되, 유명 무실한 영세 연구소는 통폐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投資의 效率을 높이도록 한다.

●產學連繫體制의 確立: 우선 대학과 산업체 지도자들 사이에 產學協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産業敎育振興法으로 敎育을 위한 산학 협동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고등 敎育 기관의 각 단계별로 人的 資源 및 施設의 상호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고등 敎育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有給敎育年暇制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학 협동 체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產學協同 調整敎授를 제도화하여 산업체의 敎育적 요구에 적합한 敎育 과정을 편성·설치하여야 한다. 

教育行·財政制度의 改善

교육은 國家發展의 원동력이며, 교육의 성패는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敎員, 그리고 教育目標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教育行·財政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教育發展의 장치가 되는 교육에 대한 研究·開發 기능은 제반 教育問題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教育體制를 支援하는 측면에서 敎職의 專門化와 敎員의 精銳化, 教育行政의 專門化, 教育의 研究·開發機能의 強化 및 安定教育財源의 確保로 나누어 2000년을 향한 장기 교육 발전의 展望과 政策課題를 각 영역별로 제시한다.

I. 敎職의 專門化와 敎員의 精銳化

1. 展望

●**敎員需要의 增加**: 교사에 대한 需要는 낙후된 教育興件(敎원당 학생수의 과다)의 개선을 위하여 2000년까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敎원의 증가 중 특히 유아 및 사회 교육의 확충을 위한 유아 교사 및 사회 교육 전문 요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敎職 진출의 추세도 2000년까지 계속되어 敎職의 여성화가 증대될 것이다.

●**敎員의 專門의 資質 要請增大**: 교육의 양적 팽창, 교육의 기능 및 역할의 多樣化, 교육 내용 및 방법의 深化에 따라 敎원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에 대한 전문적 자질 향상의 요구는 敎員養成教育 자체에 대한 질 향상을 요구하게 되며, 아울러 現職敎育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다.

●**敎職誘引體制의 상대적 약화에 따른 敎員處遇改善의 要求增大**: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유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敎職의 지위는 高度産業社會로의 이행 과정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 敎원에 대한 處遇 및 福祉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政策課題

●**敎職의 專門化**: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敎員資格制度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초·중등 학교 교사들의 자격 등급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되어 있어 결국 교사로 하여금 學校行政家인 교장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러한 자격 구분은 평교사를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해왔고, 또 優秀敎師를 行政職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교사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교감, 교장 자격과는 별도로 首席敎師와 같은 上位資格을 두어 敎授機能 우위의 學校風土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首席敎師 자격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國家考試에 의하되 경력점수, 근무평점 등이 반영되도록 하며, 首席敎師의 수는 학교수, 학급수 및 교과목수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首席敎師에게는 授業時間數를 줄여서 校內獎學, 現場研究, 초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보수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敎師資格 부여에 대하여 현행 초·중등 敎원 양성 체제는 質的 統制裝置가 없어 교사들의 자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신규로 임용이 되는

경우 정식 교사로서 바로 교단에 서도록 할 것이 아니라 처음 6개월 내지 1년간은 試補期間을 두는 試補教師制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敎員養成體制의 體系化** : 교원에 대한 人格敎育과 專門敎育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원 양성에서도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사 양성기관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대학의 수업 연한이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교육 대학의 敎科課程을 조정하여 국민 학교 고학년에 대한 부분적인 敎科專擔制가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의 초등 교원 중 16년의 학력을 갖지 못한 교원들을 위해 放送通信大學, 敎育大學의 야간 및 계절 학급을 통하여 학력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師範大學 質向上方案을 수립·추진하고, 교원 양성에 부적합하거나 부실한 사범계 대학은 일반 대학의 학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幼兒敎育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유아 교육 교원 양성 기관을 정비하고 그 수업 연한도 4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직 교원의 學歷水準 향상과 再敎育을 위하여 敎育大學院의 기능을 강화하고 敎科敎育에 중점을 둔 敎育課程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社會敎育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사회 교육 교원 양성을 위해 '社會敎育研修院'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고, 그 과정 이수자에게 사회 교육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4년제 대학에도 社會敎育科를 설치하여 그 졸업생에게 같은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敎員研修體制의 革新** : 研修나 현장 연구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와 같은 外在的 動機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專門性的 유지·심화라는 內在的 動機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1·2급 정교사 資格

研修와 교과와 관련한 一般研修를 基本研修로 통합시켜, 기본 연수 표준 교육 과정을 학교급별·교과별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과목당 2학점, 1학점당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교직 생애 중에 80학점 정도를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 중에 20학점씩을 따도록 하고, 전 교직 생애를 통하여 4차례의 기본 연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 관련성이 부족한 현재의 각종 연수 기관을 통·폐합하고, 교육 내용의 位階的인 構造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도 유기적인 現職敎育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현직 연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職前敎育課程과의 내용 중복, 현장과의 관련성 부족, 자격급별 교육 과정의 중복, 강의 및 필기 위주의 敎授—學習方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급격한 사회 및 교육의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현직 교육이 되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 연수의 강화와 더불어 교원의 士氣 진작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海外研修도 그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즉 <표-1>에서와 같이, 2001년까지 초·중등 교원은 약 9,500명, 그리고 대학 교수는 약 5000명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원 연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行·財政的인 支援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각 지역 단위마다 '교원센터'를 마련하여 전문 도서, 잡지 등의 구독은 물론 교원들 간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원 연수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의 현직 연수를 의무화·정기화·제도화하여야 한다.

●**敎員의 處遇와 福祉의 向上** :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직종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

<표-1>

연차별 교원 해외 연수 계획

(단위 : 명)

구 분	1983	1984~'86	1987~'91	1992~'96	1997~2001	1984~2001
계	526	2,091	3,500	4,000	5,000	14,591
초·중등 교원	426	1,561	2,500	2,500	3,000	9,561
대학 교수	100	530	1,000	1,500	2,000	5,030

기 위해서는 타직종보다 나은 報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원의 봉급은 타직 공무원에 비하여 初任俸은 다소 높은 편이나 勤務年數가 경과할수록 이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이 최고 호봉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총 승급 기간이 초등은 35년, 중등은 30년으로서 외국의 교원이나 타직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걸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교원의 보수를 인상하여 최고 호봉을 상향 조정하고, 승급 기간을 축소 조정하여 生計費가 가장 많이 드는 50대에 최고 호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昇給額도 상향시켜 장기 근속자의 誘引價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勤務意欲을 높이기 위하여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 시간수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法定配置基準에 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수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원도 점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원의 근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過密學級을 해소하여 教員當學生數를 줄여나가야 한다. 2000년까지의 각급 학교별 교원당 학생수, 교원수 및 연평균 추가 교원 수요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또한 교원의 福祉厚生制度의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의 자녀 학비 보조를 모든 교원 자녀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 교원이 修學 또는 專門的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도 보조하는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등 학교의 首席教師

들에게는 개인 연구실을 주고, 전공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을 제공하여 교원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II. 教育行政의 專門化

1. 展望

●**地域社會의 特殊性 및 獨自性 要求增大** : 교육행정의 획일성은 지역 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위축시켜 지방에서는 교육 행정 조직이 중앙의 政策目標達成을 위한 技術的인 效率性만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 정책이 지역적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 운영상의 결정권이 地方教育行政機關으로 이양될 것이 요청된다. 이는 일반 행정의 점진적 地方自治制의 실시와 더불어 教育部門에서의 教育自治制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教育行政效果에 대한 實務性 強調** : 교육機會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교육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를 갖게 되어 教育問題는 더욱 국민의 여론 대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國家發展에 대한 역할이 재인식됨에 따라 教育行政의 實務性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에 대한 投資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의 投資效果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行政要員의 專門性과 實務性을 더욱

<표-2>

各級學校 教員當 學生數 및 教員需要 推定

구	분	1983	1986	1991	1996	2001
유치원	교원 당 학생수	32.15	26.27	20.12	15.95	12.00
	교원 수	6,421	12,590	27,333	45,547	75,736
	연평균추가교원수요	(2,246)	(3,348)	(4,372)	(7,251)	
국민학교	교원 당 학생수	41.67	36.73	35.90	34.23	31.00
	교원 수	126,163	131,025	139,582	149,941	161,762
	연평균추가교원수요	(1,216)	(1,711)	(2,072)	(2,364)	
중학교	교원 당 학생수	42.18	37.84	28.18	26.04	23.31
	교원 수	63,350	72,751	79,606	94,388	107,944
	연평균추가교원수요	(2,350)	(1,371)	(2,956)	(2,711)	
고등학교	교원 당 학생수	31.90	29.97	24.73	21.35	19.79
	교원 수	63,109	75,341	87,546	98,501	114,550
	연평균추가교원수요	(3,058)	(2,441)	(2,191)	(3,210)	

강조하게 될 것이다.

●**教育行政家の 専門的·綜合的 技術 要求增大**: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教育目標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재편성, 지역 사회의 요청에 따른 교육 과정의 다양화 및 이를 위한 敎授-學習方法의 선택,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등 教育課程管理에 대한 교육행정가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더욱 요청될 것이다. 그리고 學校教育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적·사무적 차원을 넘어서 目標管理의 次元의 접근이 점차 필요할 것이다. 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教育行政家は 綜合的 技術을 발휘하도록 요청 받을 것이다.

2. 政策課題

●**教育自治制의 實施**: 교육의 專門性과 中立性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自律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教育自治制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教育自治制의 실시예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教育財政의 분리·독립이다. 일반·행정에서의 地方自治가 실시되고, 따라서 地方議會의 구성과 더불어 현재의 합의제 집행 기관인 教育委員會는 議決機構로, 市·道의 教育(區)廳은 집행 기관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기구간의 업무 중복,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企劃機能의 강화와 지방 교육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財政이나 人事權 등이 지방기관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문교부가 교육위원회 및 대학과 전문 대학을,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구)청과 고등 학교를, 교육(구)청이 초·중학교를 각각 관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문 대학을 관장하고, 고등학교까지를 교육장의 관할로 이양함으로써 하위 기관에 보다 많은 독자성을 부여해야 한다.

●**教育行政의 科學化와 效率化**: 학생수 및 교직원수의 증가에 따라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이 취급하는 각종 자료·정보가 방대해지므로 이들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수집·정리·보관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단위로 教育資料情報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獎學機能의 쇄신, 교육 행정의 현대화, 사무의 간소화 및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하여 체계 분석, ZBBS, EDPS, MIS 등의 새로운 행정·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教育行政家養成體制의 改善**: 현재 교육 행정 연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 연수로는 전문가로서의 교육 행정가를 양성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敎職 경험 또는 教育行政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大學院에 養成課程을 두고, 이 과정을 이수한 후에 교육 행정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現職教育의 制度化**: 현재는 교육 행정가의 현직 교육 기회가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인식도 재교육은 일반 교사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 및 교육 내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 행정가의 현직 교육은 불가피하다. 교육 행정가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現職教育機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Ⅲ. 教育의 研究·開發機能의 強化

1. 展望

●**教育研究·開發의 必要性 增大**: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교육에서도 연구·개발의 기능은 發展과 進歩의 장치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서 이러한 장치는 비록 만족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그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활발히 소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미래의 韓國教育의 發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가 더욱 요청될 것이다.

●**教育發展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 증대**: 2000年代의 교육은 스스로 그 내부에 발전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은 변화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教育의 發展은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의 발전 등과 밀착되어 인과관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교육 발전을 위한 教育研究·開發裝置의 강화와 활성화는 점점 더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2. 政策課題

●**教育研究·開發機關의 活性化**: 문교부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흩어져 있는 연구 기관 수, 연구관, 연구사 및 장학사(관)수만도 상당하다. 그리고 문교부 산하 기관 또는 유관 기관으로 존립하는 연구 기관도 5~6 개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장학직 종사자들은 연구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로서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거의 대부분의 산하·유관기관의 연구 활동도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간의 적절한 統合化, 連繫化, 特性化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기관과 대학 간의 人力交流, 資料·情報의 교환, 共同·協同研究의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教育研究要員 養成의 일환으로 전문 교수 인력을 갖춘 大學이나 專門研究機關에 전문 대학원을 부설시켜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研究·開發에의 投資 增大**: 교육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비에 주입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GNP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는 2~3%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비는 1%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교육 연구와 개발에 쓰이는 투자는 더욱 보잘 것 없다. 따라서 시·도 예산, 그리고 大學豫算의 일정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교육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教育資料情報센터의 設置·運營**: 교육의 현대화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과학적 처리, 배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教育研究의 電算化와 교육 행정에 있어서의 情報管理體制의 도입 운영,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관계 기관 사이에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처리, 저장 및 교환 체계는 국내의 유관 기관 사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운영되어야 한다.

Ⅳ. 安定教育財政의 確保

1. 展望

●**地方教育財政의 自力度 向上**: 현재까지 지방 교육 재정의 국고 의존도는 약 78%에 달하고 지방 부담률은 22%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教育의 地方自治制가 도입·실시되면 국고 의존도가 20~30%로 축소되는 반면에, 지방 부담률은 70~80%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地方教育은 거의 전적으로 地方財源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며, 중앙 정부의 예산은 지방 교육비의 불균등을 시정하여 地域間의 衡平을 유지하는 데 補助金 형식으로 지출되거나 지방 교육 당국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교육의 특수 영역을 위하여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 교육 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市·道로부터 교육으로의 轉入金이 대폭 증대될 것이며, 초·중등 학교의 시설 및 건축 부지에 대하여는 市·道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教育費 負擔衡平에 대한 要求增大**: 교육의 機會均等を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전액을 부담함은 물론, 低所得階層의 자녀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就業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손실인 教育機會經費까지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하에서는 교육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教育福祉 社會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률은 계속 경감시켜 나가고 政府負擔率은 계속 증대시킴으로써 교육비 부담 형평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요청된다.

●**總教育財政需要와 학생 1인당 教育費의 增大**: 선진 조국 창조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당면 教育課題(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고교 교육의 보편화, 유아 및 특수 교육의 확충 등)들이 있으며,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教育財政 총수요가 대폭 증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요청될 것이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表-3)

公 教 育 費 推 定

구	분	'82	'86	'91	'96	2001
GNP 對	公 教 育 費(%)	6.4	6.7	7.1	7.4	7.8
GNP 對	文 教 豫 算(%)	3.6	4.3	5.0	5.6	6.2
公教育費	중 學父母 負擔率(%)	43.8	35.8	30.0	23.9	20.0
WPU 當	公 教 育 費(\$)	173.9	268.0	414.0	562.2	808.5
1 人 當	GNP 對 WPU 當 公 教 育 費(%)	11.2	14.2	16.5	17.2	17.5

주 : WPU(Weighted Pupil Unit)...加重學生單位

2. 政策課題

●適正教育財政規模의 확보 : 公教育費 總규모는 국민 총생산과 대비하여 1982년 6.4%에서 2001년에는 7.8%까지 증대되어야 하며, 정부 부담의 교육 투자 규모는 공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률을 점차 축소시키고, 공공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1982년 현재 국민 총생산의 3.6%에서 2001년에는 6.2%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教育稅 年限延長 : 유아 교육의 확대, 국민 학교 教育與件改善, 중학교 義務教育實施, 교원의 처우 개선, 私學支援 등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고려할 때 1986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 教育稅를 연장·적용해야 하며, 財源의 彈力性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세의 과세 대상과 과세 방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

●地方教育財政 交付金法 중 特別交付率 환원: 1972년 8·3 긴급 조치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던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이 1980년 4월에 개정되어 1983년부터 普通交付金은 그 효력이 부활되었으나 特別交付金은 법정 교부율이 폐지되어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중 特別交付金은 종전대로 교부율을 당해 연도 內國稅의 11.8%로 법제화하여 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私學育成基金의 造成 : 私學財政의 불안정, 교

육 시설의 불비, 교수의 부족, 法人收益財産의 부실 등의 제반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여 私立教育機關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修學上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간의 교육비 부담상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받는 특수법인체의 금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基金造成의 방법으로서는 정부의 出捐金, 國民投資基金(私立學校 教職員 年金基金), 寄附金, 그리고 學校法人의 출연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教育投資優先順位の 合理化 : 많은 교육 정책 과제들을 한정된 財政으로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교육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교육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교육 시설 및 機·資材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인 낭비를 극소화하고 사무의 간소화 및 자질 향상을 통해 教育投資의 效率性을 증대시켜야 한다.

●教育財政配分の 合理化 : 학생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신장할 수 있도록 教育財政을 배분한다는 원칙하에 교육 자원 배정 방향의 설정 및 배정 원리를 확립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하여 교육 재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學校級別 FTE(Full Time Equivalent) 학생당 教育費 差異度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학교 급별 교육투자 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表-4)

FTE 학생당 教育費 差異度(cost differentials)

구	분	1981	1986	1991	1996	2001
유	치	원	0.95	1.07	1.25	1.25
국	민	학	1.00	1.00	1.00	1.00
중	학	교	1.60	1.50	1.40	1.30
고	등	학	2.18	1.82	1.50	1.40
대	학	이	5.99	4.82	3.60	3.45
	상					3.30

주 : FTE...Full-time Equivalent

2000 年の 韓國教育 모습

여기에 제시되는 2000년의 한국 교육 모습은 2000년까지는 실현되어 있어야 할, 혹은 도달되어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所望하는 實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0년까지 15년 동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계획한 매우 현실적인 教育發展課題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현될 실상인 것이다.

教育發展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국가 발전의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成果이기에 발전된 교육의 모습은 곧 발전된 국가 모습의 綜合的 部分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2000년의 한국 교육 모습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국가 발전 전반에 걸친 發展戰略課題들과 긴밀한 상호 작용의 관계 속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종합적 교육 발전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I. 國內外 教育與件의 變化

2000년의 한국 교육의 모습을 설정·제시하기 위해서는 教育體制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제 사회 체계의 변화 전망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각 체계의 향후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2000년을 향한 향후 15년에 걸친 국내외 教育與件의 변화는 상당한 不確實性을 내포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예견된다.

美·蘇 양대 세력의 영향력 약화로 多極化의 길로 치닫고 있는 세계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國家間의 相互依存性이 증대되고,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分斷國이면서 新興工業國인 韓國은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협공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國際化, 開放化 정책을 밀고 나가고 태평양 시대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國家發展의 촉진과 統一의 성취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추이 속에서 국내의 제반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人口構造가 중년화됨으로써 생산 연령 인구의 증가, 연소 인구비중의 감소가 전망되며 이는 경제 발전과 義務教育 확대 및 교육의 質的 改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 구조의 都市化에 따른 교육 내용의 문제, 지역간 교육 격차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대중 매체의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中產層이 두꺼워질 것이며, 이들의 자율성, 책임성, 참여 의식을 기반으로 한 시민 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셋째, 좁은 국토, 과다한 인구, 부존 자원의 결핍이 완화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능력 배양과 경제 의식 향상을 통한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화와 開放化를 추구함으로써 고도 산업·사회, 福祉社會가 이룩될 것이다.

네째, 多元化와 組織化가 공존하는 사회 변천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비인간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文化的 多元主義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사회 평등의 실현이 추구될

것이다.

끝으로, 産業技術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국 기술의 도입 및 응용은 지속되겠지만 자체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역점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基礎科學의 진흥을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이 교육 및 연구 능력 증진에 주력할 것이지만, 응용 과학과 산업 기술의 개발에는 기업이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II. 2000 年の 韓國教育 모습

1. 뚜렷해진 教育目的意識

2000 년대의 한국 교육은 ‘自我實現人’을 육성한다는 뚜렷한 教育目的意識에 입각하여 운영되게 된다. 즉, 무엇의 手段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韓國人이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價値를 드러내고 타고난 가능성의 최대한의 실현을 통한 사람다운 삶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 자체가 고도의 競爭的 性格을 띠고 있기에 교육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경쟁적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목적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教育的 狀況에서 학습자의 학습은 인간으로서의 自己完成을 향한 목적 의식에 의해 동기를 갖게 된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표로 삼을 ‘自我實現人’으로서의 人間像은 主體的 人間, 知性的 人間, 道德的 人間, 民主的 人間, 創造的 人間, 國際的 人間, 健康한 人間 및 學習하는 人間의 제 특성을 지니게 된다.

2. 強化된 人間學習

학습자 개개인의 최대한의 自我實現을 돕는 데 투는 교육 목적의 강조와 함께 교육 행위의 초점은 학습자 개개인에게로 집중된다. 즉, 학습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며 인간다운 성장이 중요시된다.

지금까지는 行政的 편의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조정되어 학생들에게는 소홀하였지만, 2000 년대에는 학교 시설, 教育課程 및 운영의 성공도는 개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얻는 혜택과

만족도에 의해서 평가되게 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일부 인간 특성에 대한 편중에서 벗어나 全人教育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며, 인간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인간의 內在的 成長力을 원동력으로 하는 참다운 교육으로서 인간의 統合的 成長을 돕는 全人教育的 性格을 띠게 된다. 따라서, 기본 지식과 사고력, 창의력 등 高等精神機能이 강조되며, 지적 강조와 함께 학습자의 情意的 成長이 중요시되며, 풍부한 정서 교육과 책임 있는 社會構成員으로서의 민주적 자질과 도덕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學校와 地域社會는 학습자의 문제 처리를 돕기 위한 전문적 조력자들을 갖게 된다. 즉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綜合的 生活指導 및 相談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教育評價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인정하기에 인간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가지게 된다. 이에 학생들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으로 유도되며, 따라서 모든 학습자들은 그의 독특한 측면에서 누구나가 秀越性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받게 되는 것이다.

3. 달라진 教育內容과 方法

교육 내용과 방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專門的 努力의 결과로 사람들은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適量의 內容을 매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의 내용은 각 사람들의 成長可能性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되며, 각자가 자기에게 의미 있고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과해지는 명백히 규정된 共通履修內容이 있지만, 平生學習을 위하여 꼭 필요한 基礎學習과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누구나가 지녀야 할 基本的 價値, 知識, 技能 및 習慣 등을 학습하게 된다.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며, 그 수준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계속적인 研究 및 評價가 전문적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가르쳐질 知識內容은 단편적인 특수 지식들을 총망라하기보다는 보다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

법칙들로 구성되며, 적은 내용의 학습으로 많은 적용을 가능케 한다. 많은 양의 지식을 외우는 데 소비되던 학생들의 學習時間을 단축시켜 發見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게 한다. 교육의 내용은 지식의 획득과 사고력 등 認知的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 고뇌에의 參與的 經驗이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이나 심미적·창조적 경험도 아울러 강조된다.

학습자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 내용을 중요시하고, 학습자의 自律的 學習을 강조하며, 個人差에 맞는 教授方法이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內的 動機에 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教育效果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教育力을 지닌 教育方法과 技術과 資料들이 개발 적용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그가 참여하는 학습 활동에서 完全學習에 도달하도록 지도되며 이를 위해서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와 개별화가 강조된다.

4. 定着된 平生教育體制

2000 년대에 가면 학교만이 교육하는 곳이라는 관념은 사라지고 家庭과 學校와 社會의 모든 생활의 場이 教育的 場으로 인식되게 된다. 가정에서는 태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胎敎의 원리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하여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성숙을 위한 基礎學習을 돕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教育的 役割을 수행하게 된다. 가정 교육에서 부모는 중요한 敎師로서 역할을 하며 기타 가족 성원들도 成人의 人間關係를 가지므로 서로 간에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 요망된다.

학교는 여전히 중요한 教育機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역할은 종전의 것과는 크게 달라진다. 많은 단편적 교과 지식보다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나 법칙과 아울러 探究하는 자세나 방법을 주로 가르치게 되며, 道德敎育이나 價値敎育에 있어서도 일정한 가치의 주입보다는 가치 비교 및 판단 능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평생 계속될 '학습을 위한 학습'을 하는 곳이 된다.

학교를 나온 뒤에도 교육은 계속된다. 자율적 성격을 띤 自己敎育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계속 익혀 나가는 일을 위시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된다. 사회도 이러한 自己敎育을 도울 수 있도록 확충된 도서관·박물관 시설, 체계화되고 풍부해진 직장내 교육, 각급 학교에서 배풀어지는 成人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문자 그대로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교육하는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다.

5. 融通性이 많아진 教育體制

平生教育體制의 정착과 함께 6-3-3-4 제의 기본 학제는 변동이 없으나 기초의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는 많은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즉,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早期入學, 速進, 越班, 早期卒業 등의 융통성이 주어지며, 일정 기간은 학교에 다니고 다시 일정 기간은 직장에 나가 일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개개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코오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제작된 定置檢査를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육 내용을 適正水準으로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授業集團組織이나 교육 요원 활용에도 적용한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규 학급 외에도 대집단, 소집단 수업, 개별 수업 등 教授目標 및 教育條件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조직을 할 수 있으며, 2~3개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無學年制 方式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敎員人事, 教育施設 등에 있어서 學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한다.

6. 本軌道에 오른 幼兒敎育

2000 년의 유아원은 量보다 質을 추구하는 이상적 유아원의 모형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며,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知的, 情緒的, 社會的 學習을 할 수 있는 體系화된 교육 체제가 된다.

3~4 세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은 취업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가정의 연장이며, 어린이의 身體的, 知的, 情緒的, 道德的 成長에 필요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이상적인 가정

의 대응 노릇을 하는 곳이 된다. 또한,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自願에 의해 소수의 동네 어린이들을 맡아서 小規模 유아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자원 봉사자로서의 소규모 유아원 교사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地域社會가 도와 준다. 특히 문화 낙후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가정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유아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시·도와 지역 사회는 필요한 지원을 분담하게 된다.

4~5세 어린이들은 비교적 體系化된 교육 환경 즉 유치원에서 지적, 정의적, 사회적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규 대학에서 잘 훈련된 教師에 좋은 시설과 교육 자료, 그리고 학급당 15명을 넘지 않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은 學校學習의 중요한 기초를 배우게 된다.

7. 條件이 좋아진 初等教育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初等教育이 되고, 국민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곳이 된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여깁을 받아야 하기에 學級當 學生數는 40명을 넘지 않으며, 40명의 학급이라고 하여도 학생들의 個人差에 맞는 다양한 學習活動을 전개하며, 教師의 밀도 높은 개인 지도의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된다.

教育課程도 어린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未來의 社會變化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教授用 컴퓨터의 보급이 용이해짐으로써 수업의 個別化는 더욱 편리하게 된다. 현재 1,2학년에만 제한되어 있는 교육 과정의 통합도 상급 학년으로 확대하고 教科目數를 감소시키되, 학생들의 學習內容은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한 것이 되도록 한다.

학생에 대한 評價는 어린이 개개인이 보다 행복한 學習과 成長을 더 效果의으로 돕기 위한 정보 수집이나 피이드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된다.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敎員들은 전문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중등 교사들이나 타 직종과 차별되지 않는 보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質이 높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施設

과 더 풍부한 教授—學習資料가 제공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자원적인 敎師補助役割의 도움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교육 활동들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財源이 허락하는 데까지 많은 教育投資가 있어야 하며, 현재의 過密學級과 2부제 수업은 교육 투자의 확대로 사라지게 되어 대도시에서 아무리 학생수가 많다고 하여도 學校當 36학급을 넘지 않게 된다.

8. 義務化하는 中等教育

중학교 就學率은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95%를 상회하게 되며, 고등 학교 취학률은 점차로 증가되어 2001년에는 86%를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높은 취학률은 의무 교육을 고등 학교까지 연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義務化되어 가는 중등 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 및 教育的 條件에 있어서 현재와는 크게 다른 특징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전기 중등 교육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초등 학교에서 받아 온 人間基礎教育을 보다 확대·심화시킨 프로그램이 되며, 청년기에 돌입하는 인간으로서 自己理解와 自我確立을 위한 학습에 열중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그리고, 知的인 成就도 중요시되지만, 건강하고 주체적, 도덕적, 미래지향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게 된다.

高等教育의 收容能力이 증가되고 있어서 고교 졸업자의 69%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30% 정도의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職業教育 프로그램이 충실해진다. 그리고, 人文·實業을 포함하는 몇 개의 고등 학교가 한 통학 구역 내에서 협동 운영되는 일종의 聯合高等學校를 형성하게 된다. 이 학교에서는 1학년의 과정은 모두 共通 人文教育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지만 엄선된 과정을 거쳐 인문 및 각 분야의 實業課程을 택하게 된다.

9. 普遍化 속에 秀越性을 추구하는 高等教育

2000년대에는 고등 학교 졸업생의 69% 이상이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게 되어 해당 연령 인

구의 47% 정도가 고등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고등 교육이 普遍化되어 갈 때 문제시되는 것은 대학의 秀越性 유지이다. 시설이 확충되고 교수 자질이 향상되고, 교수 대 학생 비율이 감축되며 교육 과정과 교수 방법에 일대 혁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엘리트 위주의 大學教育 만큼 그 秀越性을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000 년대의 한국 고등 교육 기관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중성을 지니게 된다. 즉 學問的 秀越性을 추구하며 엄격한 質管理體制를 유지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생활, 업무 수행에 직결된 프로그램으로 구별된다.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며 엄격한 질 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은 大學院 교육의 충실을 우선으로 하며, 실제 생활, 업무 수행에 직결된 프로그램은 學部教育 및 繼續教育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구분은 영역별로도 이루어지지만, 大學別로도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대학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研究擔當教授의 대폭 증원, 研究基金의 확충 및 교수 부담의 감축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10. 正常화된 特殊教育

2000 년까지는 장애아, 영재아 두 집단의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먼저 장애자들을 위한 特殊學校와 特殊學級, 치료 교실, 특수 교육 자료실 등의 시설과 설비가 확충된다. 2000 년까지 장애자들의 57%를 수용하기 위해 약 15,000 개의 특수 학급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기재와 교육 자료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特殊教育研究·開發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장애자들을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충분히 마련된다. 특수 학교나 특수 학급을 위한 특수 교육 요원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림을 통한 특수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 학급 교원들과 학교 행정가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 추가된다.

英才教育도 2000 년대에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영재아들을 위하여 소수의 特殊英才學校가 중등 학교 수준에 마련되어 운영되기도 하지

만, 정규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특수 교재를 통한 심화 학습과 速進制와 越班制 등에 의하여 그의 재능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한 教育條件들을 마련해 주게 된다.

11. 就業를 촉진하는 進路 및 職業教育

각급 학교에서 해오고 있는 進路指導는 앞으로 더욱 組織化되고 專門化된다. 즉, 유치원과 국민 학교 단계에서는 직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길러 주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여러 직업에 대한 基礎情報의 제공과 직업 탐색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고등 학교 단계에서는 일차적인 직업 분야 선택과 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實科敎員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과 교원의 자격 기준에 現場實務 경험과 기술 자격 획득을 포함하고, 실과 교원 양성 과정을 확충하는 한편, 특별 수당의 증액 등 유인 체제가 강화된다.

그리고, 직업 기술 교육의 시설을 확충하고 그 活用度를 극대화하게 된다. 즉 학교에서는 教育用 施設을 보다 경제적으로 확충하고 高價의 教育施設은 산업체를 개방하여 일종의 ‘共同實習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12. 變化된 教師像

2000 년대에는 平生教育體制에 따라 교사에 대한 개념도 學校敎員에 국한되기보다는 父母를 위시해서 인간의 學習과 成長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교사의 훈련 배경과 자질 및 전문적 자세가 많이 달라진다.

2000 년대에는 모든 국민이 教育者的 使命을 느끼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을 教育要員化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정규 교육 및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서 제공된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게 될 교원들은 고도의 專門性을 요구 받게 되며, 또한 고도 산업 사회에 따라서 교원은 人間教育을 위한 인격적 모범뿐만 아니라 전문적 탁월성을 지니도록 요청 받게 된다. 이의 충족을 위하여 교사 교육 기관들이 정비될 것이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위하여 敎師教育課程에 교육 현장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직접 가르치며 학생들과 만나는 충분한 기회가 포함될 것이며, 필요시에는 4년의 敎師教育課程 이수 후에 1년 정도의 修練敎師로서의 경험을 거치고 소정의 평가를 받은 후 정규 교사로 임명되게 된다. 그리고, 사범 대학이나 교육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도 교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시 1~2년간의 교사 교육 과정을 사범 대학이나 교육 대학에서 밟고 敎職으로 들어가게 된다.

13. 活性化된 教育行·財政의 支援

地方自治制의 실시와 함께 교육의 專門性과 中立性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教育自治의 기틀이 잡혀 가게 된다. 과도한 中央集權體制는 지양되고 지역 단위 및 학교 단위의 分權의 教育行政體制가 정착된다. 이를 위해 文教部는 주요 정책 수립, 교원 양성과 공급, 기획, 조정, 재원 확보 등을 제외한 많은 기능을 地方으로 이양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 재조정으로 문교부 기획 부서의 기능은 확대·강화되어 교육의 長期綜合計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반 전문적 연구 기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종 政策諮問委員會 및 공청회 등을 강화하여 政策決定過程에 모든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케 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行政豫告制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다가올 정책 변화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교부가 관장하던 많은 行政業務가 교육 위원회나 교육(구)청으로 이양되더라도 行政이 簡素化됨으로써 地方教育行政機關의 업무량의 과도한 확대는 없애 것이며, 특히 單位學校에 알맞는 自律性을 부여하게 되므로 교육 위

원회나 교육(구)청은 단위 학교에 대하여 支援·育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각급 학교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제반 教育實踐에 있어서의 전문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自律權을 즐길 수 있게 되지만, 이에 못지 않는 責務性을 부담하게 된다.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적 창의성의 발휘를 돕기 위하여 教育情報 管理體制를 확립하여 긴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행정 처리와 정보 수집 관리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고도로 발전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행정 기능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教育行政家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게 되며, 엄격한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 절차와 준비 과정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한편, 2000년대까지 계속될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教育費 증액과 인력 개발의 효율화와 高級人力의 양산을 위한 시설 확충, 학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요구 증대 등은 教育財源의 획기적 확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 중 교육비 예산의 일정 비율 증액, 教育目的稅의 연장, 기부금 및 교육 성금의 개방 장려, 수익자 부담 원칙의 합리적 적용, 국토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확립 등 종합적 대책이 강구된다.

教育自治制의 실시와 함께 각·市道는 그 지방의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시·도로부터의 轉入金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교육 재원이 확보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行政體制가 정립될 것이므로 2000년대의 한국 교육은 人間完成이라는 교육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

科學英才教育을 위한 政策方案 研究*

韓 鍾 河**

I. 研究의 趣旨 및 目的

국가 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科學英才 教育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그 필요성 또한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先進國들이 현재의 수준에 이르는 데에는 경제 발전이 그 原動力이 되었으며, 경제 발전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었다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런 脈絡에서 본다면, 과학 기술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科學發達史를 돌이켜 보면, 획기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은 少數의 뛰어난 학자의 創意的인 努力과 리더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뛰어난 科學英才를 일찍부터 발굴하여 교육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국마다 실정에 맞는 교육 제도와 방법을 강구하는데 腐心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가 대내외로 처해 있는 處地를 돌이켜 보면 선진국들처럼 여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至上課題는 선진 국가로 비약하는 일인데, 이러한 발전 욕구 앞에는 人口의 急增, 에너지 및 賦存資源의 절대 부족, 外國技術 導入의 한계 등 숱한 難題가 놓여 있다. 이런 難題를 타개하는 길은 오직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科學英才들의 뛰어난 창의성과

리더십에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英才教育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 독창적인 尖銳技術을 개발하여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기술, 누구의 경쟁도 뿌리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첨단적인 기술의 개발만이 難局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最善策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창적이고 尖銳한 기술 개발은 평범한 노력과 日常策으로는 도모하기가 어렵다. 첨단 기술 또는 고도의 技術開發은 질 높은 기초 과학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기초 과학 분야의 뛰어난 指導者의 역할은 과학 및 기술 발전의 돌파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급의 科學者를 어떻게 일찍부터 발굴하여 교육하느냐가 곧 과학 및 기술 발전의 지름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과학 분야의 英才教育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배후에는 이러한 論理가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데, 1983년 京畿道에 京畿科學高等學校의 설립을 필두로 1984년에는 大田, 光州, 晉州에 이와 유사한 科學高等學校를 설립하여 앞서 주장한 사회적,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平準化 教育施策의 그늘에 가려 활기 넘치는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제도, 교육 과정의 운영 정책, 교사, 진학 등의 여건이 특수 교육에 맞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현시

* 이 글은 한 중하, 최 든형, 조 시화 등이 수행한 「연구보고 RR 84-9」를 요약한 것임.

** 企劃調整室長·哲博

점에서라도 科學英才의 조기 발굴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내실 있는 先進祖國의 꿈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科學英才教育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 그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研究內容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1. 科學英才教育의 政策方向과 方案樹立

- ① 과학 영재 교육의 정책 방향 설정
- ② 과학 영재 교육의 방법과 지원 정책 방안

2. 科學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模型開發

- ① 교육 과정의 모형
- ② 기초 과학 교과와 계열 및 내용 범위

Ⅲ. 研究方法 및 節次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랐다.

1. 文獻分析과 綜合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관련 문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표본적인 영재의 선별, 교육, 평가 방법 등을 정리·제시하였다. 특히, 자료 및 정보의 분석 자료는 우리의 실정에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 教師 및 관련 學者들의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

2. 現場調査

우리 나라 科學英才教育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 科學高等學校와 그 동안 科學英才教育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경기도 학

생 과학관, 강원도 학생 과학관 및 해당 교육 위원회를 방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질문지 조사, 자료 수집, 협의회, 수업 관찰, 학생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행·재정 및 지원 체제, 학생, 교사, 교육 과정, 시설에 관한 실태도 조사하였다.

3. 專門家와의 協同에 의한 資料開發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초 과학 분야의 學問領域 및 教科의 系列과 內容을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선정·조직하였다. 그 작업 결과를 근거로 하여 科學高等學校에서 다루어야 할 기초 과학 교과와 모형적인 계열과 내용을 선정하여 보았다.

4. 協議會

科學英才教育의 정책 방안 수립과 科學高等學校의 교육 과정 모형 개발 과정에는 문교부 관계관, 기초 과학 전문가, 영재 교육 전문가, 교육 과정 전문가, 학생 과학관 연구사, 일선 학교의 특별 학급 운영 교사 등이 참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평가하였다.

Ⅳ. 研究結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科學英才教育의 政策方向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결과, 전문가와의 협의회 결과, 현장 교사의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우리 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科學英才教育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보았다.

첫째, 전국의 초·중등 학교 학생 가운데서 과학 영재성을 내보이는 학생을 매년 계속적으로 발굴·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발굴된 科學英才들의 성장·발달을 돕고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科學英才教育은 初·中等은 물론 大學까지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그들의 수월성 추구

가 원활하도록 初·中等·大學課程의 교육적 連繫性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째, 科學英才教育은 우선 중등 학교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되, 일반 학교 내에서의 교육 방안도 特殊學校 설립을 통한 교육 방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4개의 科學高等學校를 과학 영재 교육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科學英才教育機關(學校)의 法的 뒷받침을 위한 立法措置를 우선 취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존 과학 및 기술 분야로의 英才 誘引體制가 강구되어야 한다.

2. 科學英才의 教育方案과 政策課題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원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一般學校 내에서의 교육 방안과 特殊學校를 통한 교육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안 가운데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방법, 장단점을 제시하는 한편 각 방안을 시행하는 데에서 파생하기 쉬운 문제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1) 一般學校 내에서의 科學英才 教育方案

우선 일반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科學英才教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은 一般中等學校, 理工系研究機關, 理工系大學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폭넓게 科學英才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본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장단점까지 언급하고 실천에 앞서 先決課題까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6가지 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中等學校 내에서의 특별 학급 편성·운영

학교별로 특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첫째로, 교정적인 특별 학급의 편성·운영 :

수학·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만으로 입학 직후 또는 학년 초에 독립된 특별 학급을 편성하고, 특별 학급 구성원의 特性과 素質 및 能力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으로 전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칫하면 학교 내의 교육이 이원화되어 교원 조직, 교육 과정 운영의 어려움, 학생들 간의 위화감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 학교 수준에서 과학 분야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면 運營方法의 妙와 철학적 所信에 따라 적절히 운영될 수 있다.

둘째로, 교과별 특별 학급의 편성·운영 : 교과별 특별 학급은, 기존 반편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습 능력의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수학, 과학, 외국어 등과 같은 기존 교과목의 학습 활동에만 능력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7시간 정규 수업 시간 중 5시간은 정규 학급 운영, 2시간 정도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런 특별 학급 운영을 위하여는 몇 가지 條件이 先決되어야 한다. 우선 특수 학급 운영을 담당할 훈련받은 教師의 配置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특수 학급이란 인상을 불식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教師, 學生, 學父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해를 추구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개인 희망과 선택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철학적 입장을 교장은 취하여야 한다.

(나) 中等學校 내에서의 특별 활동 운영의 활성화

科學英才教育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 활동을 통한 교육 방안과 더불어 교육 과정에 설정되어 있는 특별 활동 중 과학 클럽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별 활동은 정규의 교과 활동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과학 교육 활동을 제공하여 이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얻어 창의성을 啓發하고 科學英才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學校의 規模와 施設 및 人力을 고려하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과학 분야의 클럽 활동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풍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 학생 과학관 중심의 土曜學校 및 放學學校 運營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전국의 중등 학교 과학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과학 분야의 영재들을 早期에 폭넓게 발굴·육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생 과학관의 특별 활동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학생 과학관이 중심이 되어 科學 土曜學校나 科學 放學學校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 분야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 과학관의 시설과 인력 및 지역 사회의 자원 인사를 활용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정규 학교 교육에서 度外視되고 있는 독창적인 연구 의욕과 능력을 제발할 수 있으며, 그들의 能力과 要求에 부합되는 보충·심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각 학교에 있는 과학 분야에 뛰어난 학생을 識別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또한 지적 활동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요컨대, 학교의 정규 교육에서 맞보지 못한 창의적 활동, 지적 관심의 확대 등을 자극하는 계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 수가 있다

(라) 自然系大學 내의 特別科學 프로그램 운영

풍부한 인적 자원,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있는 자연계 대학도 중등 학교의 科學英才를 대상으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실은, 과학 영재는 知的 早熟兒들이다. 이들은 중등 학교 수준의 연령에 해당(15~17세)하지만, 그들의 지적 능력, 사고 수준은 성인 수준에 이르고 있거나 더 나은 사고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들 영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 수준에서 科學英才教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은 특히 권장할 만하다.

이 때 프로그램은 보통, 科學英才教育에 관심을 갖는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은 과학 분야에 뛰어난 영재들을 조기 식별, 교육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교수들의 관심사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大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엄격한 선발 과정이나 변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교수와의 면담, 활동의 관찰을 통하여서도 科學分野의 素質과 能力을 판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엄격히 틀에 박힌 절차가 없이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특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의 관심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운영 방법은 방학중, 주말 등의 시간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형태는 주제 중심 세미나, 워크샵(workshop), 師事制(mentor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과학 캠프 등의 운영도 권장할 만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교부는 학술 연구 조성비 등 예산 지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마) 自然系 研究機關에서의 과학 프로그램 운영

과학 영재 교육 활동에 理工系列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연구 기관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施設과 高級人力은 科學英才들에게 좋은 지적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영재들의 지적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科學英才의 조기 발굴과 아울러 일찍부터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일찍부터 첨단 분야의 문제에 접촉하여 그들의 지적 성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연구 기관의 科學英才를 위한 프로그램은 적극 권장할 만하다.

연구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大學에서 처럼, 주말, 방학 기간 중에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선발(또는 지원)은 학교 추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근거로 하여 연구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원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자의 선발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위원을 구성하여 면담, 간단한 테스트 등을 연구 기관이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國策研究機關, 私設研究機關 등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특별한 行·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정부는 적극 권장하고 후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 數學 및 科學 競試·競研大會의 운영

우선 경시 대회는 전국 규모의 수학·과학 경시 대회를 중학교 그리고 고등 학교 수준에서 매년 1회 또는 2회 개최하는 방안이며, 경연 대회는 과학 분야 연구 활동 대회이다.

이런 경시·경연 대회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이런 경시·경연 대회를 통하여 科學英才를 전국 범위에서 발굴하자는 데에 있다. 둘째는 이런 영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科學英才들의 지적 자극과 창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데에 있다.

경시·경연 대회의 운영은 관련 연구 기관 또는 이를 전담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장할 수도 있고, 현재 각 대학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시 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2) 特殊學校 設立·運營을 통한 科學英才教育方案

현행 4개 科學高等學校는 과학 분야에 우수한 적성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학교 설립 방안은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최근에 신설된 4개 科學高等學校는 본 연구 조사에 의하면 科學英才 教育機關으로서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名實相符한 과학 영재 교육 기관으로 전환시키려면, 우선 여러 제약 조건을 선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科學高等學校가 과학 영재 교육 기관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이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육 과정, 학생 선발, 교사의 직위와 요건, 진학, 진출·편입 및 대학 진학, 시설과 관리, 특별 예산 지원 체제(예: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조치이다.

(가) 法的 措置

科學高等學校를 영재 교육 기관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성격과 육성 방침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현행 법령 및 규정으로는 과학 영재 교육을 실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科學高等學校를 과학 영재 교육 기관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해 教育法을 改正하여 학교의 설치, 운

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다음, 科學高等學校 설치 기준령과 그 시행 규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科學高等學校 설치 기준령의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나) 學生

과학 영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科學英才를 변별하는 일이다. 그 다음 이들을 과학 학습에 전념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원칙과 방법, 즉 선발 원칙, 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 시기 및 기간, 유인 체제 등의 구체적인 方法(案)을 제시했다.

(다) 教師

과학 영재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無學年制, 單位制, 師事制, 個別學習, 코오스의 細分化 등 학습자의 능력별 교육 과정 운영, 全日制 形態運營,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강조 등의 기본 설계를 구상할 때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수 교원의 확보 및 교사 훈련은 과학 영재 교육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자격 및 선발, 조직 및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유인 체제를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에 대한 對策과 方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과학 영재의 수월성 추구에 적합한 大學進學 및 進路指導 문제, 科學高等學校의 부적응 학생은 他校로의 轉出, 또 일반 고등 학교에서의 과학 영재도 후에 科學高等學校로 편입할 수 있는 轉出 및 編入學 문제, 과학 영재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부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설비 기준령 문제, 과학 영재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체제 문제 등에 관련한 대책 등을 제안하였다.

(3) 科學高等學校의 教育課程 模型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영재 교육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 모형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原則에 근거를 두었다.

(가) 教育 과정 설계의 기본 원리

우선 교육 과정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개인의 全人的인 成長, 發達을 위하여

知的인 면뿐만 아니라 情意的, 身體的 발달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자칫하면 特權意識이나 優越感등이 조성되기 쉬운데 이와 같은 의식을 불식하고 투철한 국가 의식, 협동심, 노동 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특별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세째, 교육 과정은 學習者의 선택 폭이 넓어지도록 다양한 코오스가 포함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네째, 교육 과정은 문제 중심의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초 과학 분야의 교육 내용 및 그 목표가 系統的이며 合理的으로 선정·조직되어야 하는 한편 상한 수준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全日制 生活方式로 운영하기에 알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교육 과정 모형

科學高等學校 교육 과정의 이상적인 모형은 일반 고등 학교의 그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우선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은 평균 지식인 내지 평균 교양인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科學高等學校는 전문인 내지 첨단 지식의 접근을 시도하는 영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 교육 내용의 체계나 범위는 대학의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과정 운영에서도 영재들의 학습 속도와 학습 의욕 및 흥미에 비추어 본다면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개별화된 운영 방식, 모든 것을 끌고루 하는 것보다 흥미에 따라 집중 개발하는 것 등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코오스의 系列과 範圍를 대학에 준한, 즉 첨단 과학 분야에 접근하는 체계 모형을 제시하여 보았다. 운영 방식 역시 全日制 授業體制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안이 학교 사태에서 적

용되려면 좀더 실천적인 研究와 檢討가 필요하다.

V. 提 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는 과학 영재 교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법의 개정 등 과학 영재 교육의 法的 根據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推進하기 위하여 문교부는 해당 부서의 담당관을 중심으로 법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task force)하여 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다각적인 노력으로 입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의 學界의 연구·검토 결과, 과학 영재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교 단계에서부터 과학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초등 수준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학 영재를 발굴하는 일은 어느 단계에서나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 강조한다.

세째, 문교부는 본 연구가 제시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1985년도부터 몇몇 실험 학교와 실험 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확대 보급의 가능성을 서둘러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가 제시한 科學高等學校 교육 과정의 실시·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 방법과 구체적인 자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文敎부와 關連 市·道敎育委員會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별 예산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교부는 興件造成 및 基盤造成을 위하여 특별 연구 지원책으로 영재 교육에 관심 있는 大學 및 研究機關으로 하여금 영재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中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金 英 駿**

I. 序

현대 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 또한 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 변화를 이끌며, 또는 이끌리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敎育課程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 과정이 지닌 교육적 의미 자체에 대한 반성적인 물음, 교육 제도 변화와의 관계, 교육 과정의 민주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提起·檢討되어, 그 결과가 다시 개선에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개선의 노력들은 과거 교육학자들의 '학문적인 관심사'라는 소극적 성격에서 벗어나, 근년에는 國家 및 州 수준의 관심과 정책 결정 그리고 지원이 뒤따르는 적극적·전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 과정의 개선은 교육 개선의 중심 문제로 이해되고, 이것은 다시 사회 변화의 전략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 외국의 최근 5~10년 동안 있어 온 學校 敎育課程의 변화 및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敎育課程의 연구와 그 개선에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3년의 '國民學校 敎育課程 國際比較研究'에 이어, 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스웨덴 등 6개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

거나, 혹은 새로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중등 학교 수준(5~10학년)의 여러 敎育課程 文書들과 이와 관련된 해설서, 지침서 그리고 이들에 깊이 연관된 理論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이들 선진국에 있어서의 교육 과정의 기본적 성격(구조)과 개선 동향을 파악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中學校 敎育課程의 개선과 관련되는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국의 교육 과정 문서 및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문헌 연구와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①중학교 교육의 일반적 성격, ②교육 혁신의 기본 방향, ③교육 과정 개선의 주된 이유, ④교육 과정의 개념, ⑤교육 과정 제도상의 변화, ⑥교육 목표 및 강조점, ⑦교과 편제 및 시간 운영, ⑧주요 교과 교육의 동향, ⑨기초 기능의 교육, ⑩교육 내용·방법 평가 등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적 개선, ⑪교육 과정의 평가 경향, ⑫교육 과정 개선과 사회의 참여 관계 등이다.

그리고 이미 서술한 대로, 연구 대상은 미국(뉴욕 주 중심), 일본, 프랑스, 서독(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중심), 영국, 스웨덴 등의 중학교 수준이지만, 나라마다 학년 범위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미국은 12~13세의 초급 중등 학교(lower secondary school) 수준, 일본은 중학교, 영국은 11~15세의 중등 학교(secondary school) 수준, 프랑스는 콜레주(collège), 서독은 基幹學校(Hauptschule), 스웨덴은 기초 학교

* 이 논문은 김 춘일, 김 영준, 이 근남이 연구한 「연구 보고 RR84-1」을 요약한 것임.

** 敎育課程研究部 研究員.

상급 학년(7학년~9학년) 수준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항 중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II. 教育課程 改善의 進路

선진 제국의 中等學校 教育課程改善의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해 본다면 ‘平等化 및 內實化’이다. 이같은 기본 노선은 최근 각국에서 개편 또는 개발된 教育課程文書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單線型 또는 그에 가까운 학교 체제를 취해오는 일본·미국 등에서는 사실상 교육 기회의 평등화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평등화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두 세 갈래의 중등 학교로 일찌감치 편입이 되어 결국,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으로 진출케 되는 유럽의 階層的 複線型 學校制度는, 戰後 이래 인권의 현저한 신장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왔고 한편, 계속적인 개선으로 그에 대처해 왔다.

마침내, 스웨덴과 프랑스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 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完成의 段階’에 접어들게 되었다. 스웨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미 9년제의 綜合義務學校를 제도적으로 혁신했고, 이에 따라 새 교육 과정을 개편 : 공포(1981)하여 활용 중(1982년 이후)에 있다. 스웨덴의 새 義務學校 교육 과정은 ‘목표와 지침’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平等的 教育’을 지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장애자, 소수 민족, 특수 아동 등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이 ‘社會福祉’와 ‘社會民主主義’ 思想을 주창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영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5세부터 16세까지의 초·중등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재 약 95%의 아동이 公營學校, 나머지는 私營學校에 취학하고 있어서, 초·중등 교육 ‘普遍化’에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多分岐形態의 중등 학교 제도가 아직도 상존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온

이른바, ‘綜合學校運動’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약 70%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등 교육의 單一化도 사실상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교육 과정의 개편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81년에는 일종의 학교 교육 과정으로서 ‘國家的 基準’이 공포되어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의 기본 지침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영국의 각 지방 교육 당국은 좀더 자세한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다. 자유 방임적인 영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준’ 작성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서독은 전통적인 3分岐 中等學校制度의 개혁을 희망하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綜合制 中等學校 실험이 활발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3종의 중등 학교(김나지움, 基幹學校, 실과 학교)의 교육 내용을 ‘共通의 것’으로 접근시키는 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 6년 과정 가운데 처음 2년간을 ‘관찰 지도 단계’로 정하여 모든 학생이 공통의 내용을 배우도록 조직하고 있는 점과 3종의 중학교가 각기 수업 시간 배당에 있어서 교과목을 가급적 서로 접근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成果로 나타나고 있다. 1, 2학년 단계는 과목과 시간이 같고 3~6학년에서도 외국어·기술 과목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대부분 유사해지고 있다.

教育課程의 平準化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확실하며 성공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번 教育改革 자체가 ‘平準化’를 목표로 행해졌다. 프랑스는 1975년 아비(Ahaby) 개혁에 의해 새로운 中學校 適當時間 配當基準을 발표하고 1977~78년부터 새 교육 과정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중등 학교 교육 과정의 평등화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로는 과거의 4년제 중학교의 3種學校 區分制를 폐지하여 모두 ‘플레쥬’로 통일하였고, 공통의 교육 과정을 사용하게 한 점과 능력별 분반 제도를 폐지했으며 장애아 및 학습 부진아에게 보충 학습을 할 수 있게 했고, 학습 내용을 쉽게 완화된 점 등이다.

그러나, 각국의 이러한 평등화의 노력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평등화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평등하게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機會의 平等이 꼭 結果의 平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일본과 더불어 이미 평등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는 이 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 즉, 형식적 평등의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 과정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結果的 平等이다. 교육 과정에서의 결과적 평등은 ‘學力の 平等’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적 지위 상승에 목적을 둔 과거의 교육 과정—즉, 교육 수혜의 균등(equality of access to education)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의 목표를 평등하게 성취하고, 평등한 學力을 가질 수 있는 이른바, ‘學力の 平等’(equality of achievement)을 보장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 수립을 우리의 中等學校 教育課程 改善의 기본 진로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Ⅲ. 教育課程의 樣式

중앙 집중식, 분산식 등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개념으로는 각국의 교육 과정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국가 수준에서 명확하고 자세한 각급 학교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분산형을 취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지만, 국가 수준의 教育課程基準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으로는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혀 없으나, 주 단위로 보면 강력한 중앙 집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서독의 경우도 國家的으로는 분산형이지만 州別로는 중앙 집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부의 경향은 국가나 주 수준에서, 교육 과정의 개발·보급·운영·평가에 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교육을 좀더 효과적·계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성과를 提高하려는 국가 및 사회의 요구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곧 교육의

중앙 집권화 또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구 교육 과정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던데 반하여 현행 교육 과정은 대폭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독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州나 스웨덴의 새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경향은, 국가나 주 수준에서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할 경우, 지방이나 학교 그리고 교사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특성의 반영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의 중요한 조짐을 의식할 수 있다. 즉, 국가나 주 수준에서는 점차 교육 과정의 기준, 또는 지침적인 기본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 및 학교 수준에서 이 기준에 따른 생생하고 효과적인 재구성을 통한 深化와 運營의 妙를 동시에 취하려는 의도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학교가 구성하는 “學校 教育課程”의 의미가 증대되게 된다.

Ⅳ. 教科의 編制

教育課程의 내용 편성과 관련된 중요한 동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教材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統合教育課程의 문제 등이다.

20세기 말 오늘날의 중심적인 개혁의 동향은 구 시대의 인간 차별적·복선적 교육 과정을 단순화하는 일이다. 오래 전에 미국과 일본이 이것을 성취한 데 이어, 프랑스가 최근 개혁을 단행하여 1977년부터 單線式制度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영국과 호주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공통 교과를 채택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한 걸음 바짝 다가섰으며, 서독도 각 주문 교부 장관들의 모임을 통하여 이 문제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등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을 서로 유사한 것으로 통일하는 일은 보수성이 강한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학교 자체를 통

일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호주·서독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영국은 1981년 새 교육 과정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강한 구속력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교과들을 공통으로 해야 한다고 공포하였다. 동 기준에 의하면, 중등 학교(7학년~1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종교, 체육, 인문학, 예술 등이 필수로, 그리고 역사, 지리, 미술, 음악, 가정, 공예 및 기술이 선택으로 제시되도록 지방 교육 당국과 학교들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기준이 현장에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의 공통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독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학교 6년 과정 중 처음 2년간은 어느 州나 ‘觀察指導段階’로 정하여 모든 학생이 공통의 교육을 받도록 조직하고 있는 집과 3중학교가 각각 계속적으로 교과목을 서로 접근시켜 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최근의 중요한 변화이다.

다음은 학생의 교육 과정 선택의 자유이다. 前述한 교육 과정의 공통화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의 개성과 창조성을 함양시키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교육 과정은 특히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 있게 발전되도록 하는 데 그 전문적 성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공통의 내용을 배우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흥미·적성·의욕에 따라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 주는 노력이 행해져야만 한다. 선진 각국과 비교해 볼 적에,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획일에 가까울이 만큼 교과가 일률적이어서, 이 점을 시정하여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합 교육 과정의 문제이다. 教育課程編成의 근본 방안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논의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은, 앞으로의 教育課程은 좀더 오늘 삶의 형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기 다양하게 분산된 개별 教科集合形態의 교육 과정을 좀더 통합된 유기적인 구조에 의해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확실하게 부각되

고 있다. 統合教育課程觀의 움직임은 국민 학교에서 활발하게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 있어서도 이것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에 따라서는 그 ‘教科 안에서의 統合’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實業·家政科의 복잡한 구성에서 그러하며, 科學, 社會科 등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教科間(inter-disciplinary) 통합도 깊이 고려된 방안이다. 즉, 주요 기초 과목을 그대로 두고 다른 여타의 과목들을 통합하는 이중적 편성 방식은, 기초 기능을 별도로 착실히 가르치면서 통합적으로 探究能力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10여 개의 복잡한 전통적 教科編制體制에서 볼 수 있는, 사회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과정의 硬直性과 무거운 학습 부담을 주는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새로 마련된 개정안에서는 教科間 統合科目(inter-disciplinary), 즉, 한두 교과가 서로 병합해서 이루어지는 個別探究 學習活動을 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국민 학교 3학년 이상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統合教育課程이 아동 자신의 인격적 통합, 우리의 실제 생활의 統合의 本然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의 더욱 가속화될 지식 및 산업의 통합화 현상에 비추어서, 필요한 접근 방식임을 시사해 준다.

V. 教育의 質의 改善

교육의 質을 높이는 문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고조되고 있는 교육 개선 운동의 하나이다. 특히, 교육 과정의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결국 교육 과정의 質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유익하다. 교육의 질적 접근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의도한 교육 목표”(objectives)와 “교육된 결과”(student outcomes)를 좀더 접근시켜 보자는 노력이다. 기초 기능이나 주지 교과들의 비교적 측정이 가능한 측면보다는 가치·정서·생활 태도의 교육 등

비계량적 교육 측면에도 균형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 그 결과를 計量的 방법이 아니라 記述的·描寫的 방법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결과에 터해, 비교적 알 수 있었던 인지적 측면보다 정의·태도 등 人格的 側面的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흐름은 각국의 敎育課程 改善에서도 그 의도가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첫째, 목적이나 내용의 구성과 제시에 있어서 價値, 態度, 고등 정신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및 정서 순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창의성 및 탐구 능력 등 소위 學力檢査로는 그 교육의 결과가 잘 捕捉되지 않는 고등한 정신력이나 원만한 인격의 발달과 관련이 깊은 측면을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이것들의 효율적인 지도 전략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국가 및 주 수준의 교육 과정 지침들이 요구하고 있다. 둘째, 敎授·學習의 방법에 있어서, 좀더 새롭고 다양한 접근을 하도록 촉구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유의 사항이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美國의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육 과정 지침은, 교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각 교과의 앞 부분에 바람직한 수업의 像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서독이나 프랑스의 교육 과정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오른쪽에 지도 방법과 관련한 정보나 유의 사항을 일일이 提示하고 있다. 요컨대, 최근의 각국 교육 과정을 살펴볼 경우, 중요한 의도로 파악되는 점은 학습자의 主體性을 더욱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며, 조화적인 인격의 육성을 위해서 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기능적 영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敎材의 문제이다. 기초 학력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責務性의 고조는 학교로 하여금 ‘基礎·共通의 知識’을 전달하려는 욕구를 자극하고, 교사로서 하여금 ‘확실한 敎育課程’과 그것을 구체화한 ‘敎科書’를 찾게끔 자극하였다. 그래서, ‘죽은 지식을 전달한다’는 비판 때문에 등한시되었던 敎科書는 최근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에서는 敎科書制度를 정비하여 교육 과정 운영상의 유익한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있

다. 그러나, 아이스너(Eisner, 1979)가 지적하고 있듯이, 교과서가 敎育課程의 목적을 확실히 해 주는 데에 유익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피상적 접근 및 획일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그 폐단을 배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민 학교의 경우 ‘하나의 國定敎科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타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성의 교육에 있어서, 고정적인 單線的 知識만큼 허약하고 허실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VI. 結 論

첫째는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계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넓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교육 및 학교를 사회와 연결지어 상호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開放的 體制를 정립해 놓고 있다. 미국은 <Nation Responds>에서 보고되고 있듯이, 학교를 둘러싸고 全社會·全國民이 교육 개선에 전폭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秀越性’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집권당이 교육 개혁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학교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나라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개발 및 운영을 포함한 敎育課程의 改善의 노력에 있어서, 좀더 사회 전반 및 국민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중앙집권적 敎育課程體制를 취해 온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과정의 政策決定, 開發, 運營, 評價 등에 있어서 자칫하면 이러한 사회 및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看過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회에 잠재하는 교육력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적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진 여러 나라의 敎育課程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념과 현실에 맞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폭넓은 기초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中等學校教育課程을 창출하는 노력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인 하나로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戰後 이래로 學校教育의 기회는 대폭 확대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선진국의 경우 대학 교육까지도 대중화되어 버렸다. 이제 교육이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 버린 오늘날, 학교 교육의 역할은 크게 方向轉換될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이미 先進國에서는 轉換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은 특히 中等學校 教育課程이 특정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는 직종과 결부되지 않은 광범한 기초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성격을 최근에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均衡 잡힌 教育課程', 영국의 '共通·基本的 教育課程' 등은 특히 이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제는 基礎技能이 단순히 讀·書·算을 의미하지 않고, 視覺的 의사 전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조적 表現能力과 과학·기술의 새로운 측면을 探究하는 能力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좀더 폭넓은 기초 기능이 교육 과정의 공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課程의 構造的 刷新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學校教育의 多樣化'의 노력과 더불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관련지어 볼 때, 개화기 이후 新教育이 도입된 이래로 中等學校 教科編制나 內容構成 등에 있어서, 뚜렷하게 근본적인 反省(reflection) 및 再構造的의 노력을 가함이 없이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되어 온 教育課程(및 教科書)은 검토의 여지가 많다. 教育課程의 개선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보다도 미래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의식해야 하는 것이다. —◆

現場 教育 相談 問題 公募

教育 現場에서 겪는 문제나 그 밖의 教育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적어 (형식: 자유) 다음 곳으로 보내 주시면 專門家의 명확한 應答과 함께 본지에 掲載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所屬, 職位, 姓名을 明記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江南區 牛眠洞 山 20-1

韓國 教育 開發院 出版室

우편 번호: 135

무엇을 읽힐 것인가

남 미 영*

‘10대 폭력’ ‘10대 강도’ ‘10대 칼부림’ ‘한심한 10대’ ‘무서운 10대’ ‘뒤틀린 10대’

지난 1년간 한국의 4대 일간지에 가장 자주 등장한 사회면 기사의 제목들이다. 이러한 기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10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 오늘의 10대가 양질(良質)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10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오늘의 10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어린 시절에 읽어 온 읽을거리들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는 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특히 전래동화나 아동문학 작품 또는 위인전 등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아동도서를 읽음으로써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內面化)하게 된다. 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하는 것을 자아형성 혹은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볼 때 아동도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문화는 인간이 만든 모든 환경을 뜻하며 몇가지 중요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계의 현실과 존재를 인지하는 방식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것인가에 대한 추상화된 경험과 관련된 심미적 측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측면 및 물질적측면 등이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측면들이다. 이러한 문화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서 자아형성이나 사회화는 주로 규범적 측면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한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 되는 과정을 자아형성 혹은 사회화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아동 도서가 어떤 규범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곧 어떤 가치와 규범이 어린이들에게 내면화되고 있었나를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또한 기성세대나 10대가 어떤 규범이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기도 하다.

1. 아동도서의 영웅들

'83년도 '한국출판연감'에 수록된 아동도서목록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영웅은 모두 80명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한국의 영웅이 5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영웅 53명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분류해 보면 장군이 17명(약 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자 9명(약 17%), 독립운동가 8명(약 15%), 여성, 대신(大臣), 예술가 등이 각각 3명(각각 약 6%)씩으로 나타났다. 한국 영웅 53명을 다시 등장빈도수가 높은 15명으로 간주하여 보았을 때 장군이 6명(약 40%), 독립운동가 3명(약 20%), 여성 2명(약 13%), 승려 2명(약 13%), 왕이 1명(약 7%) 학자 1명(약 7%)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 영웅은 모두 36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자가 9명(약 25%), 정치가와 문학·예술가가 각각 5명(약 14%), 장

* 교육과정연구부국어교육연구실장

군·탐험가·여성이 각각 4명으로 각각 11%씩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15개 국민 학교 표준 도서 목록' 가운데서 빈도수 5 이상의 도서 53종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53종 중에서 한국의 전래동화나 아동문학 작품 및 위인전은 17종으로 약 32%였다. 이 가운데서 위인전이 7종으로 전체 한국 도서의 약 41%에 이르고 있었다. 전체 도서 53종중 영웅전은 13종이었는데 이 중에서 한국 영웅전이 7종으로 약 53%로 나타났다. 한국 영웅 7명 가운데 장군이 4명(약 57%)이었고 여성이 2명(약 29%)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왕(세종)이었다. 그러나, 외국 영웅의 경우는 6명 가운데 3명(약 50%)이 과학자였으며 나머지는 정치가·장군·여성 등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 교과서에 나타난 영웅상'이란 李相回교수의 논문에는 국민 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영웅 가운데 한국 영웅이 53%, 외국 영웅이 47%로 집계되며 한국 영웅 가운데서 장군과 학자가 각각 7번씩 나타나 전체 한국 영웅의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가 11%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외국 영웅의 경우는 학자·군인·실업가·탐험가 등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웅은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을 집약하는 구현체이므로 어린이의 모방과 추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웅전은 아동들의 좋은 사회화의 도구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앞의 분석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영웅전에 나타나 있는 지배적인 규범은 충(忠)과 효(孝)이다. 다시 말해서, 수평적 인간관계가 아닌 수직적 인간관계를 존중하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일사 분란한 위계질서 확립에는 바람직하나 민주주의적인 인간 관계의 가치관과는 대립, 갈등을 일으킨다.

둘째, 우리 나라 영웅들은 대부분이 국난 극복의 영웅들로서 목숨을 바쳐 국가를 사랑한 영웅들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 목숨보다 위에 놓이는 국가 제일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런 영웅전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개인의

목숨이나 삶 자체를 경시하게 하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을 약화시키고 개인적인 헌신을 미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뭉쳐 협동함으로써 커다란 힘을 만들어 애국을 해 나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윤리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나타낸다.

셋째 한국 영웅들은 국가와 같은 집단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 영웅들은 자기실현을 성취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향을 드러낸다.

네째 한국의 영웅전은 영웅의 초인적 능력을 강조하고 영웅을 성인시(聖人視)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적인 약점과 고뇌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기 보다, 어릴 때부터 남다르고 비범하게 태어난 큰 재목이었음을 강조하여 평범한 어린이들에게 심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 준다.

다섯째 한국의 영웅은 인간적인 갈등 없이 그려지고 있어 그림 속의 인물이나 로봇과 같은 느껴진다. 인간이란 누구나 선악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영웅은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피가 통하는 인간이기 전에 차디찬 기계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영웅전은 긍정과 사랑보다 속임과 반발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어린이에게는 불신감이 생성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한국 영웅전은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감동과 애정을 주기보다 명령과 강요와 열등의식과 불신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러한 영웅전을 읽고 자란 어린이들이 어떤 청소년으로, 어떤 성인으로 자라게 될까 생각해 볼 문제이다.

2. 이솝우화의 영향력

한국 아동의 읽을거리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솝우화'이다. '이솝우화'는 3-4세용 그림책에서부터 청소년용 책에까지 분포를 보여 한국 독서계의 폭넓은 제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솝우화는 국어 및 도덕 교과서에서도 중요한 제재의 구실을 해 왔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처음으로 발간된 국어 교과서는 이솝우화를 60% 이상이나 제재로 사용

하고 있다. 그후 교육 과정이 개편되고 그 때마다 교과서가 개편되며 교과서의 제재도 바뀌었지만 이솝 우화의 위치는 여전하다. 현행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바른 생활’ 교과서에는 이솝 우화가 5편이나 나오고 있다. 해방 이후 어린이들의 읽을거리에서 이솝 우화는 실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셈이다.

이솝 우화가 한국에 이렇게 보급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 이솝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모스섬의 왕 클로이소스 밑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점, 이솝의 용모가 못생기고 마음이 착한 탓으로 남에게 늘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일화 등과 함께 그의 작품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슬픔을 우화의 형식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었으므로 일본의 억압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감각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또 이솝우화는 짐승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짐승들의 행동이나 성격에 비유해서 인생의 여러 현상을 교묘하게 그려낸 풍자적인 우화집이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어나가는 동안에 도덕적인 처세훈을 짜넣어 읽는 사람에게 교훈과 감명을 주고 있기때문에 풍자와 교훈성의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에 접목되기 쉬웠다고 본다.

한국인은 실지로 이솝 우화를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그 외의 독서물을 통해 읽게 되므로 이솝 우화를 좋아하고 또 우화 속에 나오는 갖가지 사건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즉 이솝 우화를 통한 내면화는 영웅전과는 다른 어떤 가치관을 한국인의 의식 속에 심어 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로로 볼 때, 이솝 우화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솝 우화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흑백 논리를 내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이솝 우화에는 이긴 자와 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착한 자와 악한 자 등 흑백의 대립만이 있을 뿐 중간의 위치를 가지고 등장하는 등장물은 없다. 따라서, 동양사상의 축이되고 있는 중용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흑백의 대립은 어린이들의 의식 속에 지나치게 강자와 약자, 승리자와 패배자의 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이솝 우화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하극상의 정신을 심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솝 우화는 악하고 보잘것 없는 짐승이 강하고 힘센 짐승을 꿀탕먹이는 이야기들이다. 자신은 키가 작아 따먹을 수 없으므로 남이 따 먹는 포도를 신포도라고 한다든가, 조그만한 토끼가 힘과 악의 상징인 늑대나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이솝 우화는 강자에 대한 반항의식이 노골화되어 있다. 이솝 우화 속의 강자는 대부분이 욕심장이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솝 우화는 악한 강자상을 어린이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각인시켜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강자에 대한 반항의식과 반발의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솝 우화는 하강 모티브에 의한 절망감을 어린이의 의식 속에 심어 주는 이야기이다. 문학이란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또는 폭력극이든 간에 그 목적은 인간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문학의 끝은 어떤 희망을 암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문학은 이 행복 추구 정신이 더욱 강하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나 안텔센 동화 등 유명한 아동문학 작품들은 상승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추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러나, 이솝 우화에는 상승 모티브가 없다. 모든 작품의 끝은 절망과 허무와 패망만이 있을 뿐이다. 호랑이는 천길만길 구렁이에 빠지고, 당나귀는 물속에 빠지고, 게으른 암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거짓말장이 목동은 늑대에게 습격 당하고, 늑대는 뱃 속에 무거운 돌을 넣고 강물에 빠질 뿐이다. 누가 와서 건져 주든가 그럴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 이솝 우화의 끝은 철저히 죽음뿐이다. 이러한 끝마무리는 어린이의 사고를 확산시키든가, 어린이의 사고를 창의적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이런 끝마무리는 어린이를 폐쇄적 사고속에 가두어 둘 위험이 크다. 어린 시절에 계속 이런 폐쇄적 작품을 읽고 자란다면, 어린이는 폐쇄적이고 비극적인 사고 속에 갇힌 우울한 인간이 되기 십상일 것이다.

네째 이솝 우화는 높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특히 유아나 국민 학교 1

학년, 2학년 어린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문학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아동도서들은 3~4세용 어린이 책에서부터 국민 학교 저학년 도서에 이슥 우화를 단골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슥 우화는 어린이들에게 소화되지 못하고 체증 현상을 빚는 읽을거리가 되고 있다. 아동발달에서 볼 때 3~4세는 아직 유아기(幼兒期)로 상징(Symbol)이나 함축(Implication) 또는 幻想(Fantasy)을 이해하지 못한다. 상징이나 함축은 10세 이후에나 가능하고 환상은 6~9세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세 이전에 주어진 상징이나 함축은 어린이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만다. 이 때 일어나는 것이 작품에 대한 오해 현상이다.

예를 들면, 이슥 우화에 자주 등장하는 포악한 강자상을 어린이들은 ‘강자는 나쁘다’ ‘강자는 타도해야 한다고 믿게 되므로 강자를 미워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의 내면화는 자라면서 자기보

다 좋은 조건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습성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질성을 조장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 어린이 도서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영웅전’과 ‘이슥 우화’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을 강요하는 영웅전과 흑백논리와 하강 모티브의 작품을 읽고 자란 한국의 어린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다. ‘폭력적인 세대’, ‘뒤틀린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10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 읽힌 것을 생각할 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의 어린이 도서에 어떤 인물,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는 내일의 10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

社會科教育에서의 經濟教育

崔 秉 模*

I. 序 論

社會科教育은 基礎敎科 活動 中의 하나로서 初·中等學校敎育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유능한 民主市民의 養成이라는 社會科敎育의 目標가 敎育의 一般 목표와 直結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社會科는 社會科學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社會科學的 成果를 社會科에 끌어들여 社會科學知識과 함께 社會事象이나 人間關係를 구명하려는 敎과이다. 그리고, 經濟學은 社會科學의 일 영역으로서 그 내용은 社會科의 重要 部分을 이루고 있다.

經濟敎育은 經濟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經濟學 內容의 전수 자체가 經濟敎育인 것은 아니다. 經濟敎育이 추구해야 할 方向은 경제적 지식과 아울러 경제적 사고 方式을 學生들에게 습득시켜 實생활에서의 經濟 問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社會科敎育은 통합화의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分科의 立場에서 初·中等 學校 수준에서 실시되는 社會科敎育에서의 經濟 敎育을 대상으로 하여 經濟敎育의 성격과 목적을 考察한 後 經濟敎育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經濟敎育의 內容 구성과 효율적인 지도 方法에 대하여 논술해 보기로 한다.

II. 經濟敎育의 性格과 目的

經濟敎育은 社會科敎育(Social Studies)의 일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經濟敎育의 성격은 社會科敎育의 성격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經濟敎育은 經濟現象을 학습 대상으로 하며 그 체계를 經濟學에 바탕을 두고 있다. 産業革命 이후, 세계는 근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국가의 증흥이 경제 개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工業化에 衝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미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年計劃을 추진하였고, 1982년 부터는 第5次 社會發展 5年計劃을 實施하고 있어 폭주하는 經濟知識의 양적 증대와 변화를 능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질 涵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둘째, 經濟敎育은 공통 필수 敎과인 社會科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職業이나 社會의 地位에 관계 없이 모든 國民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일정한 組織과 秩序하에 경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크고작고 간에 여러 가지 經濟問題(Economic problem)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社會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직감적인 판단에 의해서만은 해결하기 어려우며 자기 나름대로의 主觀과 價値觀을 가지고 판단하며 解決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民主國家의 市民이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經濟 問題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經濟敎育이 필요하다.

셋째, 經濟敎育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 敎育課程研究部 研究員

서 國家政策 및 社會的 要求에 민감하며 여러 가지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능한 民主市民의 양성에 주목적(目的)이 있다. 經濟教育은 단순한 經濟知識의 전달이 아니라 國家政策 및 社會的 要求에 효율적으로 응하고, 유능한 市民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 의식, 경제적 사고력,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도록 그 教育이 수행되게끔 요구된다. 즉, 民主國家에서는 國民들이 개인적인 경제 문제만을 해결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公共經濟問題들에 관하여 자기의 소신을 피력할 권리와 의무도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바와같이, 經濟教育의 성격으로 볼 때 經濟教育의 기능은 인간이 그 生活을 영위해 가면서 生産者로서 또는 消費者로서 그리고 市民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社會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理解力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初·中等學校에서의 經濟教育은 學問 자체를 익히고 배우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原理와 그 相互關聯性을 깨닫고, 그 위에서 유능한 民主市民의 자질을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Ⅲ. 社會科教育과 經濟教育

1. 經濟教育의 目標

오늘날 社會科의 목표는 유능한 市民의 양성에 있고 유능한 市民이란 「合理的 意思決定能力이 있는 市民」을 말한다. 즉, 社會科教育의 목표가 합리적 意思決定人의 양성이라고 볼 때 이 목표의 구성 요소에 관한 Banks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意思決定의 핵심 요소는 知識으로서 그 知識은 일반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多學問的(interdisciplinary)인 것이어야 한다. 知識이 일반적 수준일수록 知的인 意思決定者는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또 필요한 때에는 스스로 그 知識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合理的 意思決定을 하는 데 근거가 되는 知識은 意思決定者가 그 귀결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며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한 知識은 「概

念」과 「一般化」이다. 또한, 意思決定의 核心要素로서의 知識은 多學問的이어야 한다. 즉, 社會問題가 너무 복잡하여 한 학문 분야의 知識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知的 決定을 하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일반적이며 多學問的인 知識이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知的인 意思決定者는 그들의 價値를 확인하고 가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概念과 一般化를 관련시킬 줄 알아야 한다. 즉, 知識과 價値의 종합이 의사 결정에 증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社會行爲者는 社會科學의 概念과 一般化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확인, 그 귀결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가치를 位階化하여 자신의 입장과 일치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한 바를 정리해 보면, 社會科教育의 목표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에 있고 이 능력은 知識과 價値의 양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教育의 목표도 구성 요소로 명료화하면 경제 지식과 경제 가치의 教育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 意思決定 能力涵養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知識面에서의 經濟知識의 목표는 經濟現象들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와 經濟現象들 간의 相互關聯性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經濟學의 지식은 經濟教育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며 經濟教育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經濟學의 내용 중 學生들이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前提로, 앞으로 어떤 知識이 계속 유용하며 필요한 知識이 어떤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價値面에서의 經濟教育의 목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하여 복지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태도의 함양이다. 즉, 「人間行動의 計劃的 變化를 教育」이라고 한 점에서 볼 때, 아무리 많은 知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行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教育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經濟教育은 우리의 경제 체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배양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民主市民의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經濟教育의 內容

(1) 經濟教育 內容의 構成原則

經濟教育의 內容은 經濟教育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經濟教育의 目標이 경제 지식과 경제 가치로 구성되었다고 볼 때, 經濟教育의 內容도 知識의 측면과 價値의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知識의 측면에서 보면 한 나라의 經濟現象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經濟學者들이다. 이런 점에서 經濟教育의 가장 이상적인 目標은 일단 모든 學生들이 經濟學者가 되도록 教育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目標은 분명히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經濟教育의 성과를 논의할 때 우리의 이상은 보다 經濟學者에 접근시키는 데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요한 示唆을 제공하는 것이 Bruner를 중심으로 한 構造(Structure)理論이다. Bruner는 모든 教科가 學問의 構造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사실과 知識을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構造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轉移(transfer)라는 문제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經濟學者와는 달리, 經濟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經濟學의 단순한 사실과 知識의 나열보다는 構造를 內容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示唆해 주고 있다.

둘째, 經濟教育은 價値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經濟學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年代 이후 社會科教育에서 價値의 취급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價値教育은 教化(indoctrination)되어야 할 對象을 지적하기보다 價値探究를 통해 個人이 價値化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價値教育에서는 개인의 가치화 과정 못지 않게 한 社會의 成員들이 공유해야 할 바람직한 經濟價値 또는 태도가 있다. 한 국가의 경제는 어떤 경제 체제하에서 運營된다. 따라서, 資本主義體制하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資本主義를 옹호하고 市場經濟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經濟教育의 情意的 측면에서의 內容 구성에 있어서는 經濟의 가치 탐구, 資本主義의 체제 옹호, 共同體意識, 經濟倫理의 확

립 등을 포함해야 하겠다.

(2) 經濟教育의 內容

經濟教育 內容의 구성 원칙이 위와 같다고 할 때, 經濟教育의 目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經濟教育의 內容이 精選되어야 한다. 즉, 經濟教育의 內容을 知的 領域과 情意的 領域으로 나누어서 知的 領域으로는 經濟的 理解, 情意的 領域으로는 國家發展에 공헌하는 태도, 經濟的 價値觀의 형성 그리고 經濟倫理의 확립을 들 수 있다. 經濟教育의 內容을 選定함에 있어서 經濟的 狀況의 변화와 經濟的 狀況에서 유도된 經濟教育의 目標에 따라 그 內容을 선정하되 특히, 分斷國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 및 國際經濟와의 關連하에서의 韓國經濟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國經濟의 발달 과정, 한국 經濟의 당면 문제와 과제, 국제 經濟의 동향과 韓國經濟, 南北韓의 經濟比較, 經濟倫理, 國民生活의 向上과 福祉의 實現 등의 內容에 유의하여야 한다.

經濟教育의 內容은 크게 經濟的 循環과 成長, 그리고 韓國經濟의 당면 문제와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經濟的 循環과 成長은 ① 經濟的 構造와 循環, ② 家計와 消費生活, ③ 企業과 生産, ④ 市場과 價格, ⑤ 貨幣·金融 및 物價, ⑥ 財政과 國民生活, ⑦ 國際經濟, ⑧ 經濟體制, ⑨ 經濟的 成長과 發展으로 나누어 經濟의 基本原理를 중심으로 知識面을 위주로 하되 韓國의 現實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韓國經濟의 당면 문제와 과제는 ① 韓國經濟의 成長過程, ② 農村問題, ③ 中小企業問題, ④ 勞動問題, ⑤ 人口 및 都市問題, ⑥ 公害問題, ⑦ 消費者保護問題, ⑧ 資源問題, ⑨ 經濟倫理로 나누어 韓國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解決하고자 하는 態度를 키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經濟教育의 指導方法

모든 知識의 체계가 그러하듯이 社會科에 있어서도 지식 內容이 요소별로 보면 「事實」「概念」「一般化」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經濟學은 概念이 다른 學問보다 과학화되어 있고, 또 개념과 개념 간의 關係가 명확하므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構造化해서 지도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經濟教育의 내용 중에서 基本概念을 확정하고 그 基本概念을 중심으로 학습 요소인 개념과 원리를 탐구 과정에 의해서 조직해야 한다. 즉, 事實에서 개념을 유도하고 概念 상호간의 관계를 통하여 일반화에 이르는 탐구 과정이 되도록 構造化된 學習模型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教師가 學生들로 하여금 基本概念과 一般化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自己 나름대로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構圖가 작성되어야 한다. 構造化된 經濟의 概念構圖는 경제 학습 내용의 構造化의 골격으로서 知的인 과정의 윤곽이 일목 요연하게 드러나며 學生들에게 學習過程의 整理로 活用되어 概念 간의 관계를 分明히 할 수 있고 개념과 원리를 전체적 윤곽 속에서 結合的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學習內容을 構造化함에 있어서 「事實」은 學生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실 중에서 學生들의 흥미와 學習動機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부터 개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출한다. 구체적인 事實을 예시하기가 곤란한 추상적인 概念은 현실적인 統計 및 事實에 가까운 資料를 提示한다. 基本概念과 원리는 知的인 과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것만 제시하고 資料는 基本概念과 原理를 우리 주변의 實生活에 적용해 보려는 경험을 갖게 하거나 사고 과정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圖表, 그림 등을 學習經驗에 맞추어 제시한다. 또한 實際로 學習指導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概念과 原理의 定義를 먼저 내리고 구체적 事實을 들어 이해시키는 평상시의 지도 방법과는 달리, 經濟學習에 관한 한 歸納的 指導方法이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업 지도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問題解決力과 轉移力을 촉진시키고 學生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IV. 要約 및 結論

오늘날 社會科教育의 目標을 合理的 意思決定

能力이 있는 유능한 民主市民의 양성이라고 보았을 때 合理的 意思決定은 知識과 價値를 요하므로, 社會科教育의 일환으로서의 經濟教育의 目標도 知識과 價値의 양측면으로 나누고 분석된 目標要素에 따라 經濟知識과 經濟價値의 內容을 선정해 보았다. 또한 經濟學習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問題解決力과, 轉移力을 길러 주고 學生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歸納的 指導方法을 생각해 보았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論議를 바탕으로 經濟教育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資本主義 倫理觀에 관한 教育이 필요하다. 즉, 우리 나라 여건하에서의 바람직한 資本主義 倫理觀教育은 우리 나라에서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지속 발전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상적인 福祉社會를 建設하는 데 뒷받침이 될 것이다.

둘째, 經濟史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人類의 經濟生活, 經濟秩序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배움으로써 個人生活이 歷史的 社會的 產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現代經濟의 諸機構도 經濟史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파악되기 때문이다.

셋째, 國民福祉의 측면에서 分配面을 보강해야 한다. 즉, 公正配分이라는 社會正義의 원칙에 중점을 두어 장차 正義로운 社會에 밝은 展望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消費者教育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經濟問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消費者選擇理論, 消費函數論, 消費者保護問題, 消費者倫理 등의 消費者教育이 필요하다.

다섯째, 韓國經濟의 當面課題에 대한 체계적인 教育이 필요하다. 1960年代 이후의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서 파생된 問題들 즉, 農業, 中小企業, 勞使, 外債, 資源, 人口, 環境 등에 관한 問題와 이의 解決方案에 대한 체계적인 教育이 요망된다. ◆

教育政策 및 教育計劃에 關한 海外情報

金 永 哲*

이 글은 교육 정책과 교육 문제에 관한 최근의 국제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UNESCO 국제 교육국(IBE)의 Newsletter 인 Innovation(No. 40/41)에 게재된 "Education Policies Information Notes"의 내용을 김 영철과 민 무숙 양인이 발췌한 것이다.

국가의 教育政策을 결정하는 것은 각 정부가 할 일이지만, 유네스코는 그 동안 교육 정책 문제에 대한 각국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는 주 광장으로서, 그리고 종종 國家政策에 반영되는 국제적인 규범이나 기준을 발전시키는 주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정보 교환이나 자문 활동은 전문가 회의, 정부간 회의, 비교 및 사례 연구, 그 밖의 각종 보고서와 출판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유네스코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교육 인력, 교육기획가, 행정가, 건축가, 교사교육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의 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음 6년간에 걸쳐서도 계속될 것인데 특히 적절하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그것을 效果의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長期教育計劃에 關한 세미나

장기 교육 계획을 위한 방법 및 기술에 대한 훈련 세미나가 1983년 9월 5일과 6일에, 걸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주로 논의된 주제는 戰略計劃(strategic planning)으로서,

이것은 5個年 教育計劃과 같은 운용 계획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探索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분석적 기법과 미래 추정 방법 등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의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교육 전략 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開發途上國家들은 자료 수집이 어렵고, 교육과 사회·경제적 맥락과의 連繫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들 국가의 전략 계획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조건들이 논의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i) 教育과 發展의 관계
- ii) 長期教育計劃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 a) 初等教育의 보편화와 成人文盲의 퇴치
 - b) 教育과 고용
- iii) 長期教育計劃樹立의 과정 및 조직
- iv) 長期計劃·推定을 위한 양적·질적 접근 방법
- v) 教育計劃의 집행과 관리
- vi) 國家間 相互依存 및 국제 협력

이 세미나에서는 기획자들이 해야 할 과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이것은 교육과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여러 분야들, 예를 들면 經濟나 文化, 커뮤니케이션, 기술 공학 등과의 상호 관계가 아직도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모델 등을 이용한 기획이나 예측 기법에 가치 판단이나 가정이 內在的으로 개재된다는 것에 대한

* 教育發展研究部長·哲博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발전 계획을 위한 적절한 방법의 필요성과 그 어려움이 인식되었듯이, 교육과 발전에 대한 價値나 그 밖의 다른 質的인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이 세미나에서는 教育과 人力開發에 관한 몇몇 추정 모델이 소개되어 특정 국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평가되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취학률이나 교원 수급, 단위 교육비 등을 추정하는 데 이미 채택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교육 시뮬레이션 모델도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관심사에 합의를 보았다.

- (a) 長期教育計劃은 발전 단계나 발전 유형이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바람직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규범적 계획이나, 계획의 집행·관리 등과 인위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이 모두 복합적 과정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 (b) 教育과 人力開發을 위한 장기 계획에서는 계획된 교육의 成長과 變化에 대한 정책적 맥락뿐만 아니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 (c) 장기 교육 계획은 그 결과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활동가들과 개인들의 創意性이 교육적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휘되는 發見的 過程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 (d) 教育計劃은 교육 추정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교육 추정은 교육 계획을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추정 방식에는 중립성이 없으므로 특정한 社會, 文化的 環境에서의 유용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간의 구분은 다분히 인위적인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統合되어야 한다.
- (e) 교육과 훈련 및 고용을 連繫시키는 미래 추정 기법은 다양하지만, 이 기법들은 거의 전적으로 需要와 供給, 그리고 조정 등과 같은 양적인 문제만을 다루며, 인적 자원 개발의 질적인 측면은 무시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f)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私企業이나 公共團體의 경영으로부터 빌어온 접근 방식은 흥미 있게 보이지만, 아직 교육 부문에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나 개념, 기법 등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주로 실제적인 經驗으로부터 나오리라고 본다.

(g) 初等教育의 보편화 및 文字解讀能力과 관련하여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 그리고 비형식 교육을 통합시키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革新的인 계획과 접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사회적 수요와 개인적 수요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풍부한 情報體系가 강구되어야 한다.

(h) 교육 기획가나 행정가 훈련에 있어서 이들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계몽적 책자가 開發되고 評價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企劃家와 行政家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훈련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도 교육 계획의 제학문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i) 마지막으로 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經驗을 공유하고 국가의 기획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과 開發途上國의 기술 협력(TCDC)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네스코 교육 정책 및 기획부가 주관한 세미나에는 전 세계의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는 25개국에서 26명의 자원 인사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이 밖에도 國際教育機構를 비롯하여 몇몇 국제 기구의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보고서와 토론 내용은 1984년에 출판되었다.

教育管理者訓練을 위한 새로운 接近方式의 開發

유네스코 교육 정책 계획부는 유네스코 지역 사무국과 국제 교육 계획 기구(IIEP)의 협조를 받아 점차 증가하는 교육 기획가와 행정가를 위한 革新的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훈련 프로젝트는 教育計劃 및 行政, 학교 건축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자율 학습 자료인 “모듈”을 제작·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련 자료들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간부 직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교육 기획이나 행정 그리고 학교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 훈련 자료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내용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인 評價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모듈은 한정된 양이지만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로 출간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첫 번째 주제는 “自律學習資料의 제작자와 사용자를 위한 指針”이며, 나머지 5개의 주제는 영어나 불어로 출간되어 있다.

- 교육 계획과 의사 결정에서의 문제 진단의 필요(5개 모듈: 영어)
- 지역 교육 계획(6개 모듈: 영어)
- 장기 교육 계획(4개 모듈: 영어)
- 중등 학교의 시설과 공간(7개 모듈: 영어)
- 교육 계획의 집행, 추수 및 평가(6개 모듈: 불어)

실례로서, “教育計劃과 의사 결정에서의 診斷의 필요”의 제목이 붙은 주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각은 분리시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모두 함께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 i) 교육 체제 진단의 중요성과 교육 계획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 ii) 진단 방법과 방법별 주요 특성
 - iii) 교육 체제 진단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 iv) 교육 계획에서의 지표의 활용
 - v) 과거 경향과 미래 징후의 분석
- 앞에서 이미 설명한 主題들은 다른 언어로 번

역되어 나올 것이다. 영어나 불어 혹은 스페인어로 근간에 추가로 출간될 주제들은 교육 행정의 기능, 현대 교육 경영 기법, 지역 수준의 교육 경영, 학교 배치와 미시적 교육 계획, 교육·훈련 및 고용, 教育費와 財政, 안락한 중등 학교 구안, 교육 계획의 과정, 교육 시설 및 설비의 관리와 유지 등이다.

1984년 아랍國家 教育政策會議

유네스코는 1984년 3월 12일~20일에 걸쳐 모로코의 라바트에서 아랍 국가 문교 장관 및 경제 계획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21개국의 회원국 대표와 타지역 회원국 및 국제적 비정부 단체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1977년의 아부다비회의 이후 아랍국의 그 동안의 교육 발전을 검토한 후 經濟·社會·文化發展과 관련하여 교육의 민주화와 혁신에 대해 토의하였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해 다음 4가지 측면이 토론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 i) 문명 퇴치의 관점에서 본 초등 및 성인 교육의 보편화와 쇄신
- ii) 일반 및 기술 중등 교육의 구체적 문제
 - 중등 교육과 다른 교육 단계 및 유형과의 관계
 - 문화적 현실과 발전의 요구에 대한 중등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iii) 과학 및 기술 교육과 발전
 - 모든 교육 체제 단계에서 과학 문화의 강화와 과학 및 기술 공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증진
 - 교육 내용 및 방법, 자료의 향상
 - 교육의 자생적인 과학 잠재력의 발전에 대한 기여
- iv) 교육의 민주화 발전 및 문화적 주체성 강화를 위한 고등 교육의 역할

이 회의에서는 1960년 이래 4차에 걸쳐 있었던 회의 방식에 따라 아랍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회의에 참가한 정부들과 유네스코, 그리고 이 회의를 도와 준 아랍 教育·文化·科學機構(ALELSO)에 제출할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學校建築費 절감을 위한 實現可能研究

학교 건축은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 재원 중 가장 큰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매우 제한된 재정을 가진 나라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開發途上國에서는 건물의 재료로 강철이나 시멘트 등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의 경비를 外換에 의존하게 된다.

유네스코는 學校를 세우고 그에 관련된 設費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년간 연구해 왔다. 학생 일인당 경비와 같은 단위비의 절감은 각 나라가 시설을 보다 빨리 확장시키고, 教師訓練과 같은 다른 목적에 재원을 전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각 지역의 재료를 충분히 사용하고 가능한 한 지역의 건축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몇몇 나라들은 기술자와 노동력, 그리고 건물의 재료까지 지역 사회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부담을 경감시켰다.

유네스코는 현재 “經濟社會發展을 위한 아랍 基金”의 財政的 支援을 받아 6개 아랍 국가(디지보우티, 마우리타니아, 소말리아, 수단, 요엔인민 민주 공화국, 요엔 아랍 공화국)의 교육 시설 비용을 減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실현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목적은 6개국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낮은 비용의 教育施設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착수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지역에서 유용 가능한 材料나 技術, 勞動力 등을 가지고 학교의 가구나 설비를 만듦으로써 낮은 비용의 건축 자재들을 만드는 공장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른 類型의 건물뿐만 아니라 학교의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국가의 능력도 증대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수행되어 1985년에 완결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연구의 6개 주요 요소이다.

i) 교육 시설 건축에 지역의 노동력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자국의 건축 기술의 개발 및 향상

- ii) 주요 건물 요소의 확인과 지역의 재료를 활용한 제조 가능성에 대한 연구
- iii) 낮은 비용의 건물 재료 및 가구의 지역 생산 증진
- iv) 재래식 건물에 비해 낮은 경비를 가지고 도 좋은 環境을 갖춘 시범적인 초등 학교, 교육 대학 및 그 외의 지역 사회 시설의 건축
- v) 외부 지역 기술자에 대한 依存度를 줄이기 위해 교육 시설을 디자인하고 건축하는 지방 인적 자원의 훈련
- vi) 勞動集約的 技術을 사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시키고 동시에 재원을 지역 사회에 유치, 이 연구의 총 예산 1,100만 달러 중 75%는 아랍 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네스코가 충당한다. 유네스코 재원은 이 분야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본부 및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 지역 교육국의 학교 건축 및 공학 전문가를 충원하는 데 쓰인다.

國際教育計劃機構가 제안한 教育計劃에 대한 새로운 視點

유네스코 국제 교육 계획 기구(IIEP)는 현대의 발전 문제와 관련한 교육 계획에 대한 展望에 대하여 1983년 10월 3일~8일까지 파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국제 교육 계획 기구와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 그리고 實踐家들 간의 대화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국제 교육 계획 기구가 다음 6년간에 걸쳐 수행할 연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세 가지 영역이 중심이 되었다.

이 기구가 선정한 주제의 基座에는 많은 나라의 교육 기획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계획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와는 달리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교육 계획에 대하여 목표와 자원 배분, 업적 평가에 관한 결정과 같은 수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국제 교육 계획 기구는 특히 開發途上國家에서의 교육 계획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분석하고 교육 계획과 사회·경제 변화 간의 관계를 명료히 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기술 발전과 관련한 교육 계획에 대한 것이다. 기술 변화 및 생산의 효과는 교육 체제가 운영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教育的 要求에도 명백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家에서는 훈련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기술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계획의 결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과 技術 간의 관계가 명백히 되려면 현 세계의 狀況과 特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 세계는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 産業化 된 국가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과 생산의 국제화가 증대되어 國際的 勞動 分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정한 기술 수준이 세계 시장에 부여됨에 따라, 開發途上國의 자격 부여 구조가 더욱 더 엄격해져가고 있어 교육 계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되고 있다.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교육 계획이 외적인 기술 변화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교육 계획이 자생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제 교육 계획 기구(IIEP)는 교육 계획이 국가의 기술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高級人力의 양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술을 선택하고 응용하며 그러한 기술을 자국의 자원이나 필요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보완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일반 교육이 技術文化(technological culture)에 보다 민감해야 하고, 일반적인 기술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사회·문화적 기능보다 경제에 대한 貢獻을 더 優位에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 계획가들은 教育과 生産에 대해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적인 변형을 꾀해야 한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 영역의 다원화에 관련된 것으로 이것이 교육 계획에 주는 示唆點을 다루었다. 정상적인 학교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教育活動이 더욱 증대되고 다양화되어감

에 따라 비단 공동계획의 수립은 아니더라도 形式教育과 非形式教育 간의 최소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많은 나라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기획가들이 이 새로운 교육 현실과 그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원화된 형태가 더욱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활동이나 경험들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概念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의 수행이 제안되고 있다. 교육 다원화 과정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며, 수혜자 집단이 누구인가를 기획가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이 다원화됨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교육 체제내에서는 비형식 교육 활동이 교육 기회와 일반 교육 수준 및 적절성, 학습 장면, 교육 자원의 양과 效率的인 사용 등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 사회와 관련하여서는 다원화가 취업 기회나 근로자의 生産性, 기술 공학적 창의성, 소득 분배, 그리고 진정한 문화 발전 등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가가 명백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形式教育과 非形式教育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조건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조정과 어떠한 목적, 어떠한 한계, 그리고 調整效果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망을 조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교육 기획가들에게 하나의 挑戰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세미나는 계획의 개념이 더욱 더 확장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통계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向上과 促進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융통성이라든지, 접근의 용이성, 낮은 경비 등과 같은 非形式教育의 장점을 기획가들이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교육 계획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계획의 과정에 대한 分析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 기법 및 정보 사용에 대한 評價이다.

계획의 과정은 政策立案者들에 의해 결정된 일반적인 지침으로부터 그것을 教育體制가 집행하는 데까지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것은 여러 活動家들과 구조, 방법 및 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는 경우, 정책 주장자들 간의 타협이나 그들의 이해 관계, 논의, 상대적인 권력 관계 등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결정된 교육 계획에는 실제로 어떤 목적이 들어 있는가? 이러한 목적들은 실제적인 운용 계획이 고려되는 교육 예산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가?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교사 봉급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불가피한 경비와 成長이나 改善을 위해 쓰이는 매우 한정된 자원 간에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후자만이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의 기법과 그를 위한 情報의 사용을 평가하는 일은 한 나라에서 계획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국제 교육 계획 기구는 분석이나 추정을 위한 양적인 기법의 사용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과 적용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기법들, 특히 일반인의 참여를 복돋울 수 있는 기법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각 기법의 基底에 깔려 있는 가정을 명료화하고, 그 나라의 政治·經濟·社會的 背景과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떠한 기법이 국가의 계획 과정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교육 계획에 필요한 정보는 각 나라마다 特殊한 것이지만 여러 나라에 공통된 양상이나 문제도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정보의 役割을 확대시키면서, 계획에 필수적인 정보 형태를 결정짓는 試圖를 하고 있다. 또한 계획 집행을 보다 면밀히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교육 체제 외부로부터 오는 情報를 축적하기 위한 정보 기반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여건 조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論評을 통해 이 세미나 참석

자들은 계획에 대한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새로운 개념은 공식적인 계획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중앙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 그리고 그 중간 수준의 의사 결정이나 집행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실제적인 계획 과정을 분석하고, 계획의 수행 및 그 실제적 영향을 교육 및 사회적 성과의 관점에서 評價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見解를 같이하였다.

教育企劃家들을 위한 有用한 統計報告書

유네스코 통계국은 “교육 단계별·연령별 취학 동태 및 추정(1960~2000): 1982년 평가”(참고 CSR-E-46)을 출판했다. “통계의 연구 동향”의 시리즈로서 나온 이 책자에는 1960~1980년 동안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 몇 가지 양적인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다음 20년간 계속될 경우 가능한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60년 이후 나타난 未曾有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가서는 보편화된 초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높은 유급률(開發途上國의 취학률 중 약 12~14%가 유급될 것이다.)

—개발 도상 국가에서의 높은 탈락률
더우기, 만일 현재의 傾向이 2000년까지 지속된다면:

—6~11세 연령 집단 아동 중 1억 3백만이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있을 것이며,

—적어도 23개국은 초등 학교 취학 연령의 모든 아동을 취학시키지 못한 채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취학률은 일반화에 못 미치는 93%의 취학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6%까지 증가되어야 한다.

—開發途上國의 초등 교원수는 현재 34:1의 학생/교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6%가 더 증가되어야 한다. —————◆

CAI Program 開發課題

I. 緒論

컴퓨터는 신속하고 正確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高能力의 컴퓨터가 초기에는 戰爭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근대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여 오늘날을 번영된 社會로 만들었으며 기계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로 미루었던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認識하면서부터 무한한 능력의 컴퓨터를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59년 일리노이 大學校에서 착안하여 이듬해부터 研究開發이 시작된 CBE(Computer-Based Education) system은 20여 년 동안 컴퓨터 Hard-ware와 Software의 경이적인 발달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1982년 이후 금성, 효성, 삼보, 삼성, 한국상역 등 국내 컴퓨터 회사를 중심으로 교육용 Software가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론, 정보처리론, 과제분석론 등의 教授-學習 이론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교과서나 참고서를 그대로 프로그램화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같은 무질서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氾濫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습 지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 CAI program을 개발하게 한다는 것이 뜻 있는 학자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컴퓨

터를 이용한 교육 부문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분야와 컴퓨터를 학습 보조 기구로 이용하는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AI 학습의 연구를 통한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CAI program 개발시 고려 사항 및 절차와 學習 模型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CBE의 概要

CBE(Computer-Based Education)는 다수 학생을 1인의 教師에 의한 강의식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敎師의 個別指導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system을 말한다. CBE system은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기계적 요소와 인적 요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능적 특성으로 보아 CMI(Computer Managed Instruction)과 CAI(Computer Aided Instruction)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CMI

CMI¹⁾란 종합적 교육의 기능 중에서 敎師와 教育行政家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는 경영 교수 분야이며 다양한 교재, 교육 방법의 운용 관리, 진도²⁾ 조정, 학습 효과 측정, 敎사를 위한 정보 제공, 교과 과정 및 학생들에게 관련된 데이터의 조직을 포함한다.²⁾ 主要機能으로는

1) 정원량, *Computer Based Education*, 한국과학기술연구소.

2) 박성익, 「대학에서의 컴퓨터 활용 수업」, 『대학교육』.

1)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학습 처방

2) 반복 연습 혹은 개념 발달에 기본이 되는 CAI의 기능 보완

3) 효율적 학습 전략의 모색을 위한 학생 상담 실시

4)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게 학습 자료나 재원을 유효 적절히 제공토록 하는 계획 수립 과정의 심화

5) 개별 학습의 학업 성취와 관련되는 제반 변인의 학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유지하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

이와 같이 CMI란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CMI를 통해 효율적인 학생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CMI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위한 system으로는 대형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여 대용량 기억 장치로 Floppy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중앙컴퓨터(Host computer)에 의해 CMI가 지원되고 Terminal을 통하여 CAI 학습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국내에 보급된 1만여 대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는 터미널용으로 兼用이 가능하여 중앙컴퓨터에 연결하여 CBE system으로 사용 가능하나 중앙 컴퓨터의 가격이 고가이며 국내에서는 CMI가 未開發 상태이기 때문에 CBE system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용 컴퓨터 자체로는 효율적인 CMI를 운영할 용량이 부족하므로 기술되는 CAI program에 의해 부분적으로 補完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CAI

CAI란 교과 program과 컴퓨터 周邊裝置와 기타 미디어를 이용하여 被教育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CAI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받아 수업을 하듯이 교사 대신 기억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指示, 意思交換 등으로 교육 목표에 도달해가는 system이다. CAI 형태는 教育目的, 方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훈련 및 연습형(Drill and practice)

정규 학습에서 숙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반복

연습을 통하여 成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형태의 분류로서 특정된 技術이나 知識의 숙달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 산수의 연산, 언어의 발음 연습 등이 여기에 속하며 실제 CAI program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 개인 지도형(Tutorial)

교사가 학생을 개인 지도 하는 것과 같은 모든 상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도하는 형태로서 다른 형태와 달리 보충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교과 내용에 제시된 개념이나 법칙에 대한 학생들의 理解度 水準을 평가하며 가르쳐야 할 보다 구체적인 기능들을 實習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시범형(Demonstration)

교사가 강의 도중 특정한 圖表, 圖形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program으로서 다른 시청각 매체와 달리 변화해가는 過程을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示範型 program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package화하여 이용하거나 상품화된 program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4) 시뮬레이션(Simulation)

교육하고자 하는 특정한 상황을 program화 된 모델을 통하여 실제 조건과 유사한 상황을 동적영상(Dynamic images)을 이용하여 經驗하게 해 준다. 예로는 인간의 심장 작동을 圖示하거나 人工衛星의 운행 궤도의 장면 묘사와 같은 영역에 활용된다. 시뮬레이션 program도 실제 또는 가상적인 상황을 program화한 것이기 때문에 package화하여 이용하거나 상품화된 program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타교육공학 매체와 결합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5) 교수게임형(Instructional game)

교육의 개념, 知識, 技能 등을 게임을 통해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형태이며 學習動機의 유발과 복잡하고도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AI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形態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훈련 및 연습형(Drill and practice)과 개인 지도형(Tutorial)이라 할 수 있다. 실제 program에 적용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III. CAI program 開發時 考慮事項

1. 개발 목적의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program을 作成하려는 목적의 定立이다. 여기서는 학교 수업 및 재가 학습용으로의 개발과 학교 교육과 무관한 개인의 필요에 따른 학습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학교 수업용으로의 개발

학교 수업용으로의 개발은 유아·초·중등·대학 등이 대상이 되며 보조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교사의 役割을 대신할 수 있는 학습을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조 학습용은 교사에 의한 指導 후에 연습시키는 것과 같은 보충적 지도가 가능한 program이어야 하며 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形態이다. 개인 지도형 학습용은 교사의 역할 즉 실제 수업의 導入過程에서 展開 및 整理까지의 과정을 program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로 재가 학습용으로 필요한 형태이다. 개발상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공지능 등의 교수-학습 이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학습 내용 구성이 흥미가 있도록 soft ware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교육학자 Computer Scientist, Graphic과 Sound 등의 각 전문가들의 공동 참여가 바람직하다.

2) 개인 학습용으로의 개발

개인 학습용은 학교 교육을 떠나 개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자의 구조, 도형의 면적, 우주 공학, 기계 설계, 건축 설계, 특수 기능 등의 특수 학습 형태와 단어 연습, 발음 연습, 수학, 과학 등의 일반 학습 형태와 바둑, 장기, 당구, 포오카 등의 Recreation과 Game 형태를 가미한 학습 형태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으며 각각 제 형태에 따라 CAI program 개발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개인 학습용 program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특수 분야의 전문가와 Computer Scientist 등의 공동 참여가 되어야 하며 교수-학습 이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학습 내용의 개념화

¹⁾천인적 인간 교육의 학습 내용은 결과로서의 知識, 그러한 知識이 성립되는 탐구, 발전, 입증 등의 과정과 절차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과정과 절차 그리고, 지식과 학습 과정과 절차의 구조와 체계의 3차원에서 통합된 것이다. 人間 教育의 학습 내용은 지식, 학습 과정 그리고 지식과 학습 과정의 구조와 체계의 3차원적 통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기 特性이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에서 개별화, 자율화, 협력화의 원리를 살리려면 학생 학습 특성에 대응시켜야 한다. 학습 특성은 학생 학습 출발점, 난이 수준에 따르는 학습 능력, 학습 시간의 세 가지는 CAI program 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Hard-ware 상

CAI program에 의한 집단 학습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는 대형에 의한 접근이 바람직하나 高價이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이 사실상 어려우며 가정으로의 보급은 더욱 곤란하기 때문에 CAI program은 개인용 컴퓨터를 기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개인용 컴퓨터는 가격의 負擔이 비교적 적고 앞으로 더욱 普及될 전망이며 조작(operating)이 쉽고 Graphic 및 Sound의 기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에 못지 않게 활용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상당한 부분이 보조 기억 장치로 Tape recorder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Tape recorder는 값이 싸고 Data를 많이 기억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處理하는 방식이 순서적 처리(Sequential Process)를 하기 때문에 Access Time이 느리고 사용상 불편하며 Tape의 精密性의 缺如 등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로 Floppy Disk를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데 비순서적 처리(Random Process)를 하기 때문에 Access Time이 빠르고 사용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Tape recorder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3) 오기형,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 『교육개발』.

CAI program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하여 前提가 되어야 할 것은 soft-ware의 개발 보급과 아울러 Hard-ware의 저렴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CAI program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Computer가 高價이면 특수층의 가정에나 보급되는 사치품의 역할이 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 <국내 개인용 컴퓨터 가격>

기기명	항	목	가	격
금성 패미컴	본 체 (CPU, 키보드)	FC-30 (2KB RAM) (8KB ROM)	129,800	
		FC-100 (16KB RAM) (28KB ROM)	399,000	
		FC-150 (20KB RAM) (8KB ROM)	266,200	
		FC-80(MAS) (80KB RAM) (40KB ROM)	298,100	
	카 세 트	FCD-10	48,510	
	모 니 터	칼라모니터 MCL14"4333	198,770	
		그린모니터 MBM12"2233	98,670	
	프 린 터	PRT-5	198,000	
		PRT-6	148,500	
	삼성 퍼스컴	본 체 (CPU, 키보드)	SPC-500 (32KB RAM) (16KB ROM)	238,000
SPC-1000 (70KB RAM) (32KB ROM) 카세트 포함			469,000	
모 니 터		DA-122B(12"흑백)	64,000	
		DA-122B-31 (12" green glare)	69,000	
		DA-122-31N (12" green non glare)	74,000	
프 린 터		SP-510(80col/80cps)	660,000	
		SP-510A(80col/100cps)	778,500	
		SP-550(4color plotter)	270,000	
플로피 디스크 (Floppy disc)		SD-720(시판예정)	580,000	
		SD-725(시판예정)	940,000	

삼 보 트라이 젤	본 체 (CPU, 키보드)	트라이젤20 (64KB RAM) (16KB ROM)	407,000
	모 니 터	TG-9GA(9" 녹색)	102,300
		TG-12GA(12" 녹색)	110,000
		TG-14GA(14" color)	550,000
	프 린 터	인페이스카드&한글	220,000
		RX-80(80col/100cps matrix)	432,300
		FX-80(80col/100cps matrix)	627,000
		FX-100(136col/160cps matrix)	1,045,000
	카 세 트	TG-DR20	39,600
	플로피 디스크	AD-200S(1/0카드포함)	330,000
AP-200(1/0카드포함)		528,000	
메 모 리 확산카드	128KB(RAM CARD)	220,000	
대 우 퍼스컴 (MAX)	본 체 (CUP, 키보드)	DPC-100	257,100
		DPC-200 (40KB ROM) (80KB RAM)	295,000
	모 니 터 MONO 12"	75,000	
	Data Recorder (DPR-600)	33,000	
	프린터 (DPP-800)	330,000	
	한글 프린터 모델 (DPH-301)	248,000	

※ personal computer 가격 정보(컴퓨터 학습) 1984.7

Ⅳ. 開發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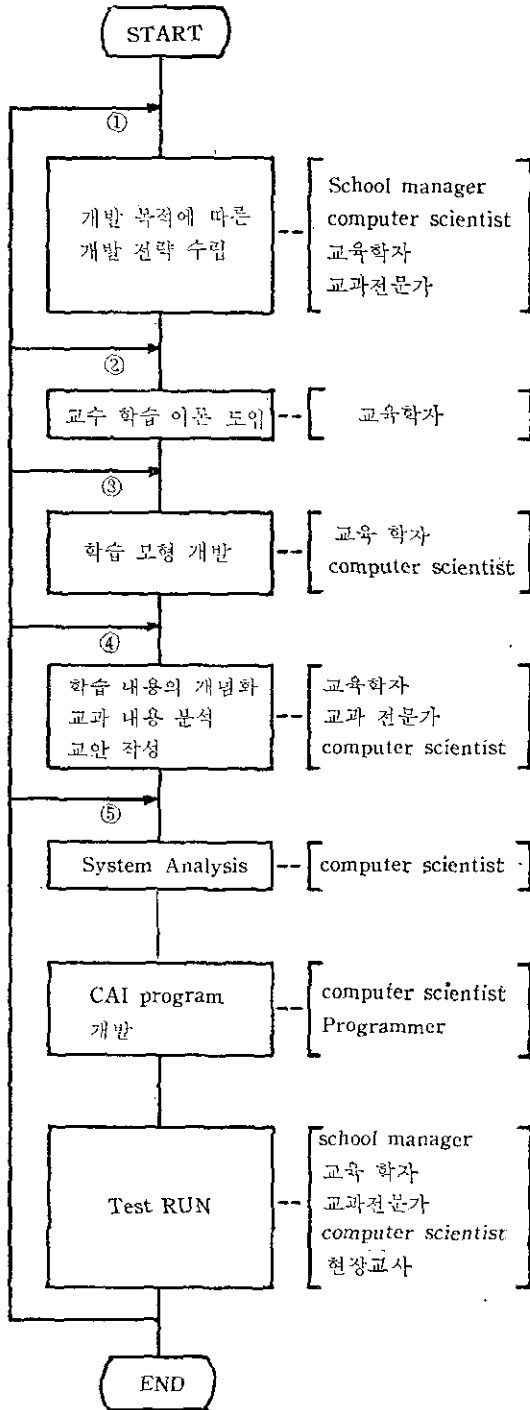
CAI program의 개발 절차와 참여 인력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②, ③, ④, ⑤는 CAI program을 Test Run 후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경우 처리 과정을 말함.

위의 도시된 내용과 같이 CAI program 개발은 여러 영역에 따른 전문가의 共同參與가 필요하며 구성 인원은 개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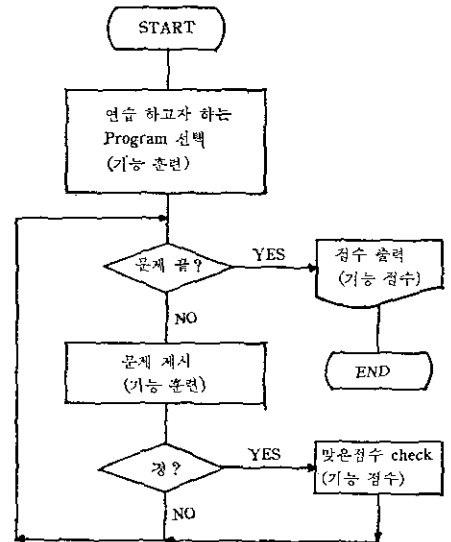
V. CAI 模型

CAI는 전술한 바와 같이 훈련 및 연습형, 개인지도형, 시범형, 시뮬레이션, 교수게임형 등의 여러 형태로 목적 및 방법에 의해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program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훈련 및 연습형과 개인지도형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보통의 CAI program이 작성된다. 특수한 목적과 기능 및 훈련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범형, 시뮬레이션, 교수게임형 등도 훈련 및 연습, 個人指導라는 형태의 Flow를 기본으로 하여 形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와 이의 병합되어 사용되는 형태의 Flow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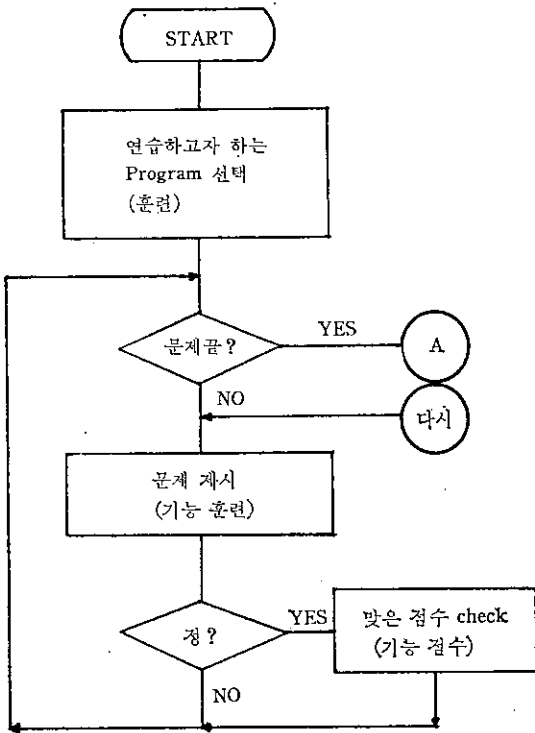


1. 훈련 및 연습형

1) 기본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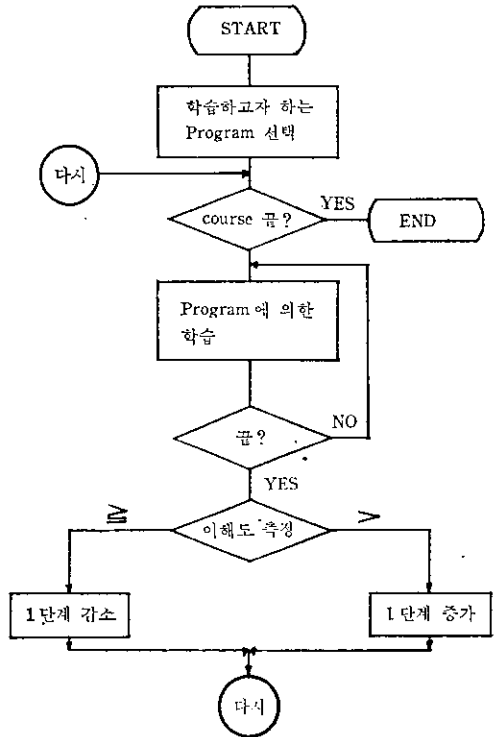


2) 응용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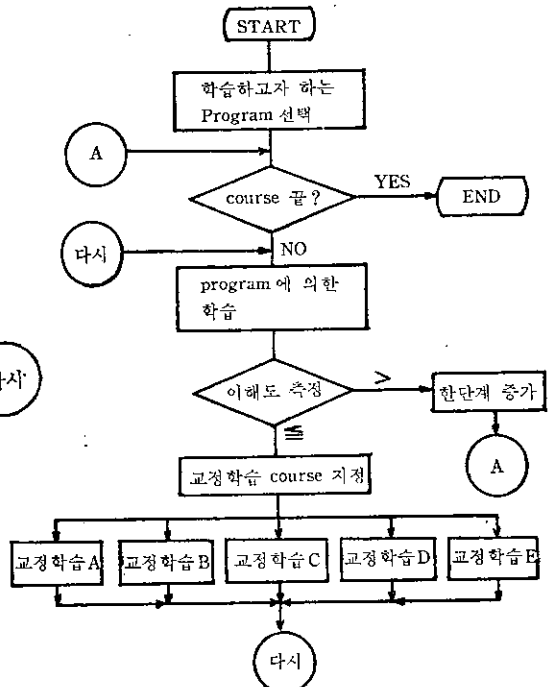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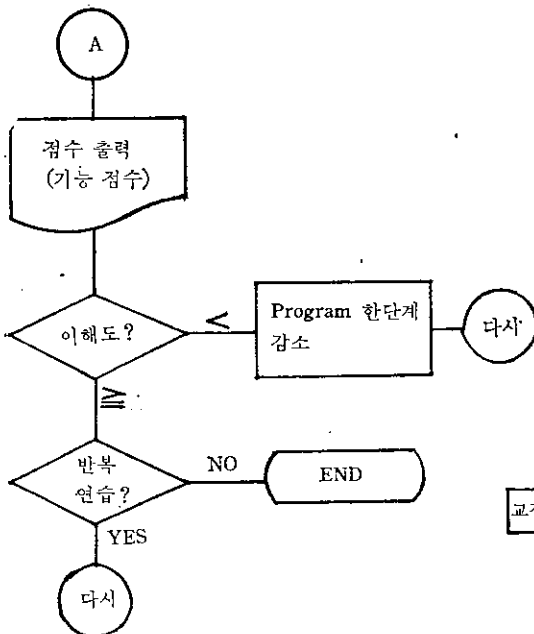


2. 개인지도 (Tuto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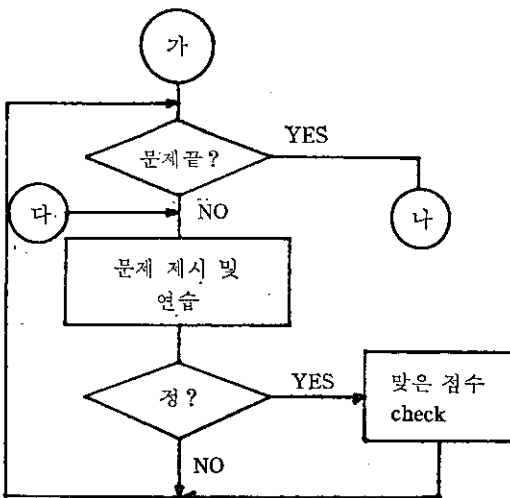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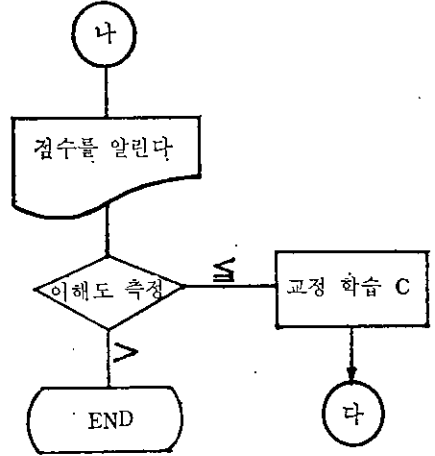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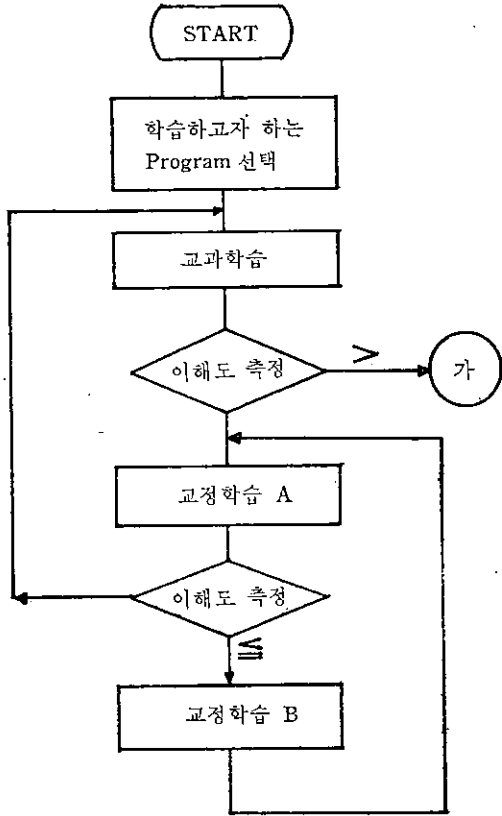
1) 기본 Flow



2) 응용 Flow



3. 종합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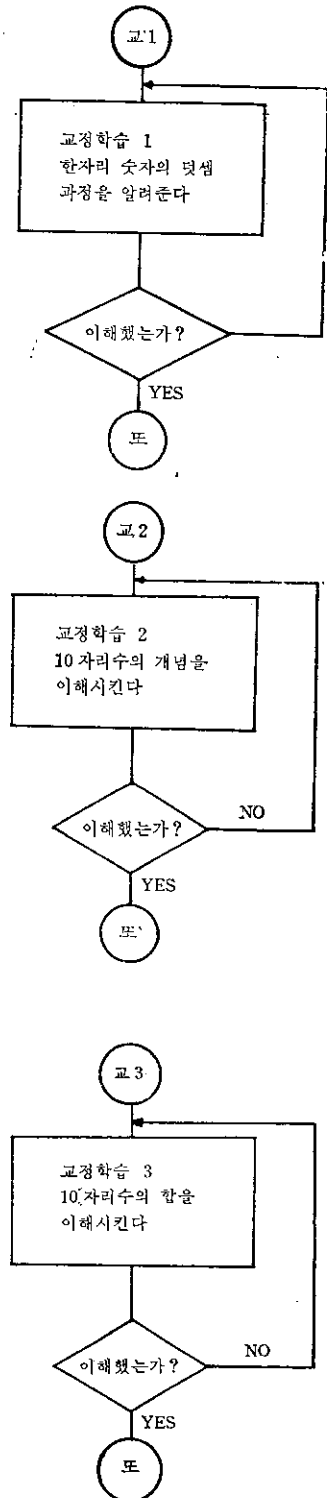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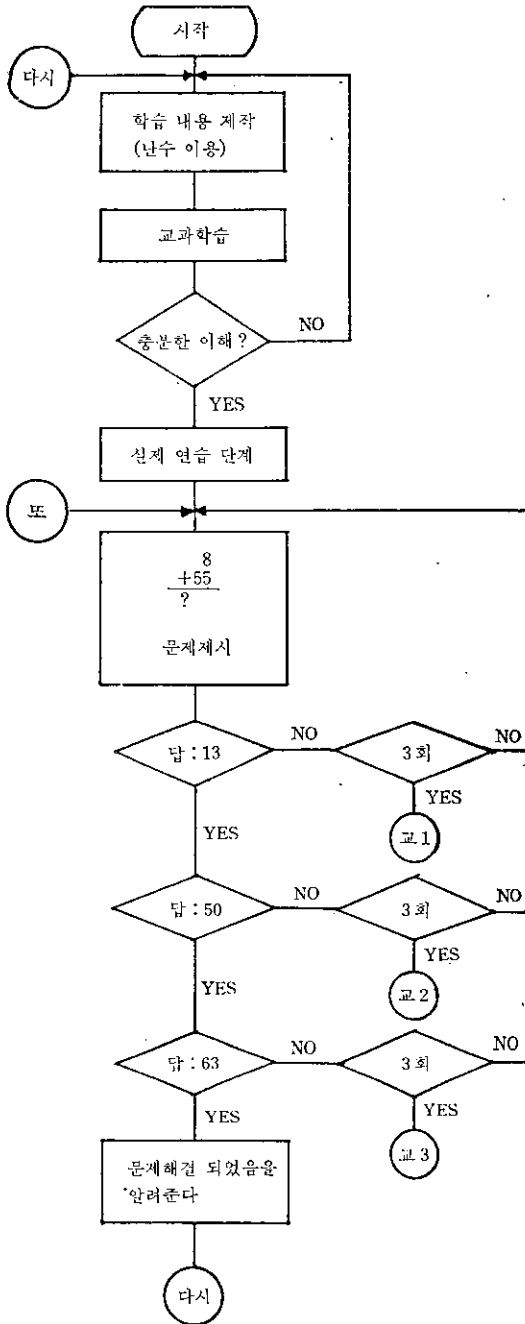
위에 제시한 CAI 模型은 일정한 형식이 따로 없으며 개발하려는 내용과 對象, 교육 방법 등에 따라 Flow 가 다르게 된다. Flow 중에 학습 단계는 피교육자의 능력에 따른 단계를 말하고 최하 단계의 遲進兒學習과 최고 단계인 英才教育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해도 측정은 학습한 결과 성취도 측정을 하는 과정으로 교육 전문가들의 기준이 제시되면 점수, 맞은 회수, Time check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교정 학습은 program 학습 도중에 교정 학습 과정으로 가서 학습을 한 후 Feed back 할 수도 있으나 일단 학습이 끝난 후 이해도 측정의 결과에 따라 교정 학습 할 수 있도록 Flow 를 作成하였다. 상기의 Flow 는 교육적인 檢證을 필요로 하는 예시에 불과하며 계속적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실제 Flow 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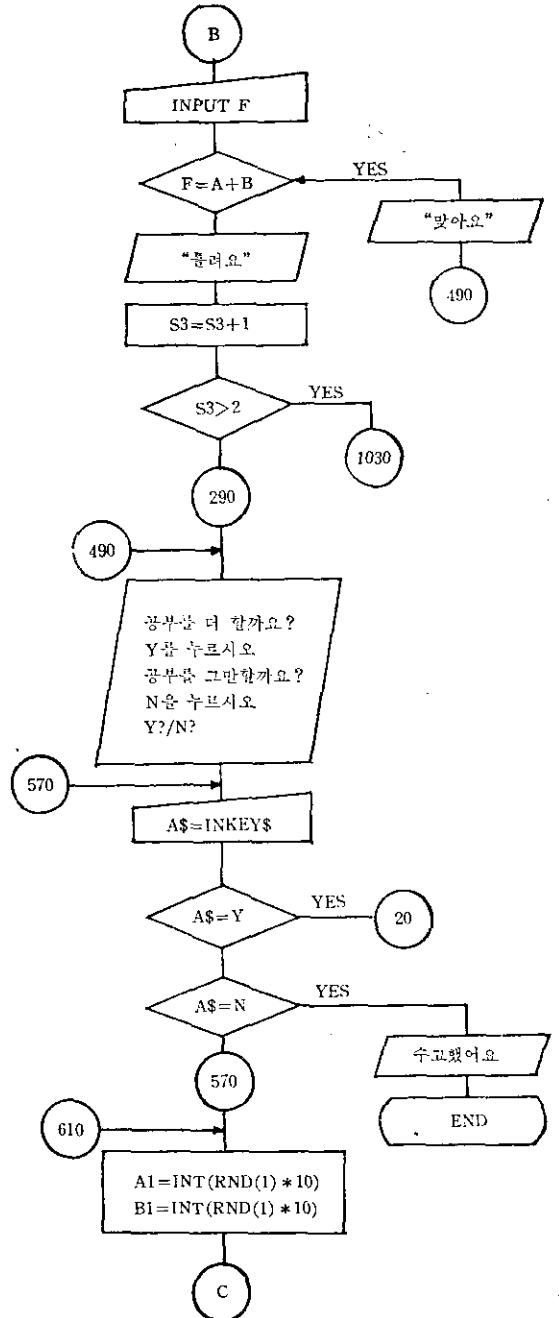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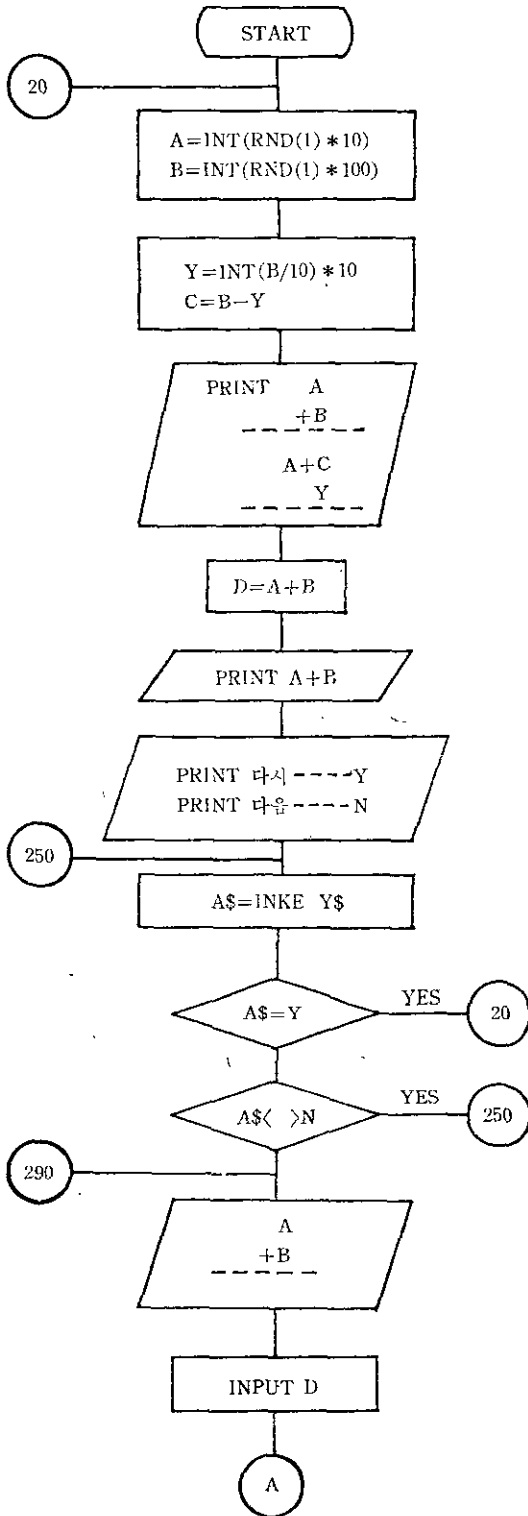
1)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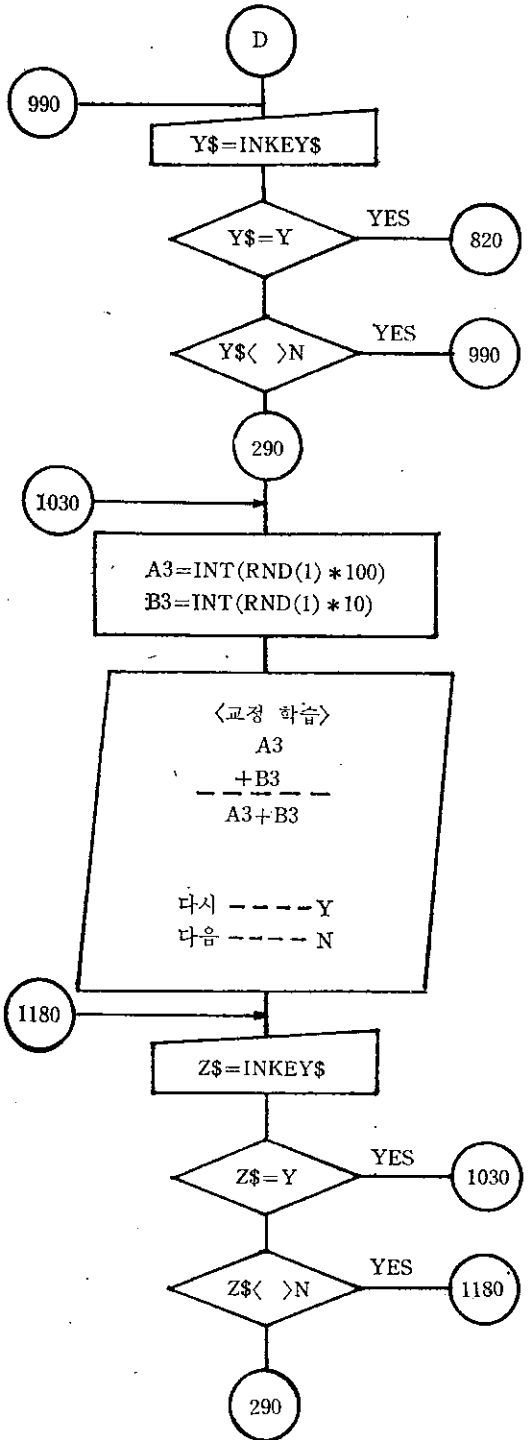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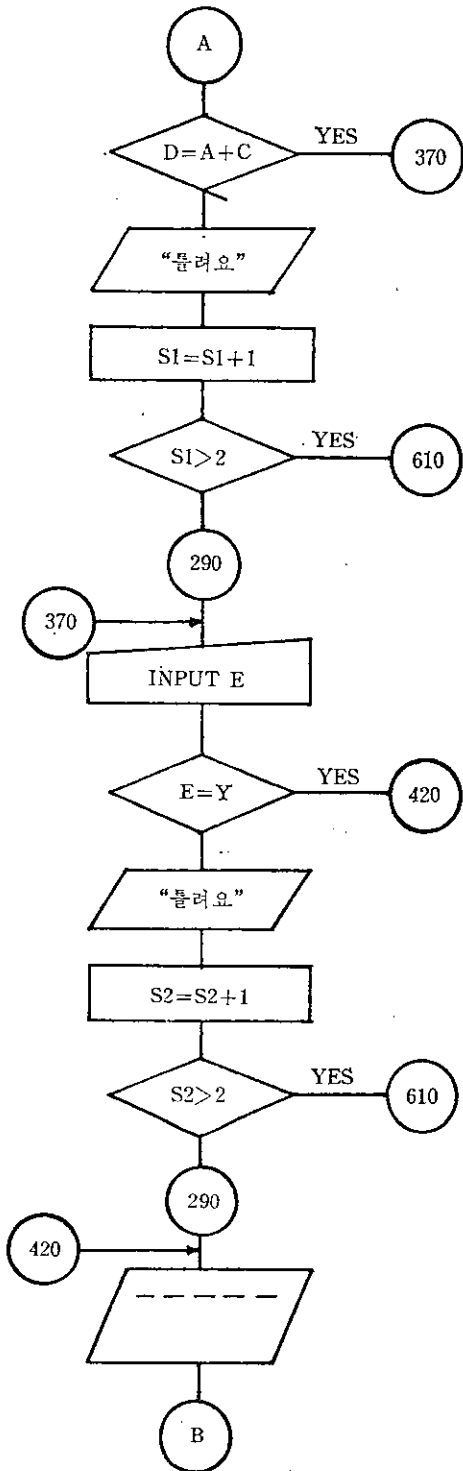
8
+55
13
50
63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General Flow



3) Detail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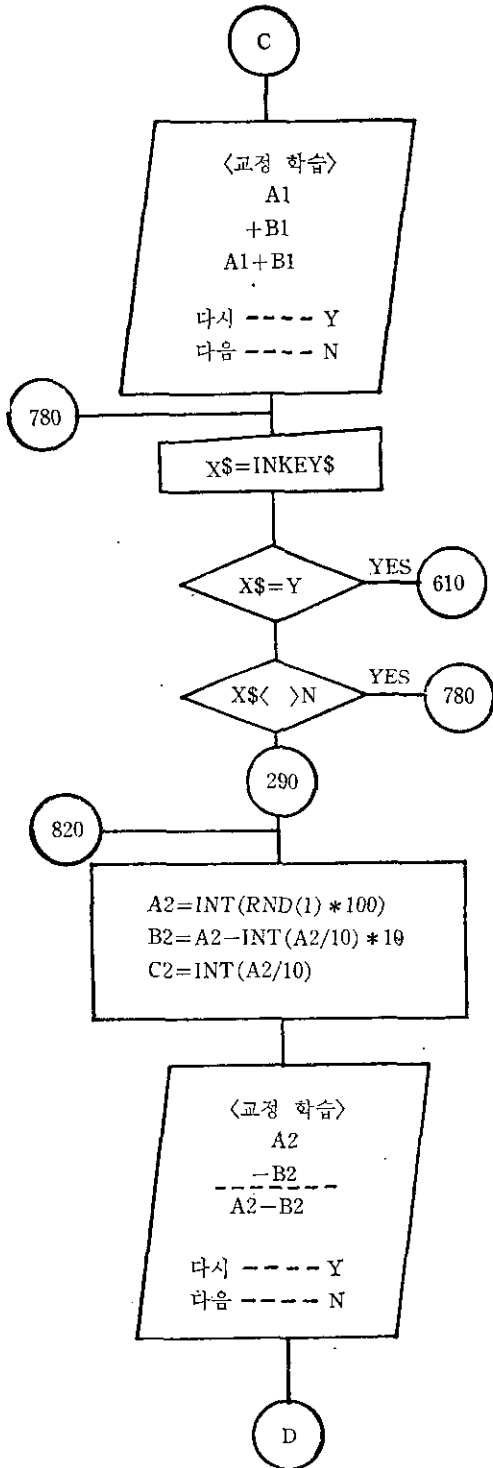




VI. 結論 및 提言

이상에서 전략 및 개발 절차와 학습 모형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 CAI program의 持續的인 개발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妥當性 및 經濟性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발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제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CAI progra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3. 교육 및 연구 기관의 CAI 연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4. CAI Program의 상품 제작시 교육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CAI Program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著作權保護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 院 內 動 靜 ◁

○ 主要 協議會 및 세미나 ○

- 1월 28일 본원 第2會議室에서 今年度事業으로 遂行될 教育課程 評價研究 外 10개 연구 과제에 관한 自體 評價協議會를 이영덕 서울大 教授 外 2명, 院內 한 종하 研究委員, 곽 병선 教育課程研究部長 및 所屬 全研究員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하였다.
- 1월 24일 本院 第3會議室에서 今年度事業으로 遂行될 韓國 高等教育 政策研究(2次年度) 外 12개 研究課題에 관한 評價協議會를 김 영철 教育發展研究部長과 所屬 室長 13명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하였다.
- 1월 30일 본원 第2會議室에서 大學卒業人力의 就業動態 分析課題 遂行을 위한 協議會가 文敎部에서 金 승호 大學學務課長 外 9名, 本院에서 김 영식 院長 外 3명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 1월 22일과 23일 兩日間에 걸쳐 경기도 이천 설봉 호텔에서 教育放送의 發展方向을 展望하고 主要事業 推進戰略을 위한 간담회가 부원장, 教育방송 본부장 및 소속 국·실장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 來訪人士 ○

- 1월 8일 권 이혁 文敎部 長官은 所屬 傘下機關 中에서 첫 번째로 본원을 年頭巡視하여 研究業績을 높이 평가, 그 노고를 致賀하였다.
- 1월 10일 UNESCO 아시아 教育革新 센터 所長인 A. Latif 博士가 '85年度 UNESCO 아시아 教育革新事業 關聯會議 및 研究事業에 關해 業務協議次 內방하였다.
- 1월 15일 인도 D. A. V. 大學의 電子工學科長인 G. K. Johri 博士가 韓國 物理學, 電子工學 分野에 대한 調查研究 및 相互意見 교환차 內방하였다.
- 1월 16일 미국 Illinois 大學 教授 Feinberg 博士는 本院 김 영식 원장과 教育 연구에 대한 협의차 內방하였다.
- 1월 30일 인도 S. N. Das Gupta College 의 Mohan 학장이 각국의 國家考試制度에 關한 調查研究 및 意見 교환차 內방하였다.

○ 對外活動 ○

- 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윤 정일 研究委員은 職業訓練研究所가 개최한 '84年度 同 研究所 研究 및 開發事業 結果 발표 회의에 참석하였다.
- 1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教育發展研究部 강 부식 責任研究員은 科學技術處가 주관한 한국 과학 재단 '84정책 연구 과제 추진 현황 파악 및 향후 計劃을 위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 海外出張 및 研修 ○

- 1월 8일부터 19일까지 教育課程研究部 김 주훈 研究員은 아시아 教育 혁신 사업(APEID)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처(ROEAP) 주관으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科學教育評價에 關한 APEID 研究團會議에 參席하였다.
-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教育課程研究部 권 나원 博士는 日本 國立教育研究所가 主催하는 初等學校 教育課程研究에 關한 第2次 아시아·태평양 지역 視察에 참석하였다.

○ 院內消息 ○

- 教育放送本部 박 법익 審議委員과 김 성훈 라디오 調整室長은 '85學年度 高入選拔考査 및 大入 學力考査(TV. Radio 부문) 實施에 寄與한 공로로 1월 25일 구 본식 서울특별시 教育監으로부터 感謝狀을 받았다.
- 김 영식 본원 원장은 '84년 12월 31일 本院의 教育放送 프로그램 弘報 및 制作에 積極적으로 협조하여 教育放送 發展에 이바지한 5개처 외부 기관에 感謝牌를 전달하였다.

○ 人事消息 ○

- 新規職員採用
 - 研究職: 박 순경, 임 선하, 조 덕주
 - 放送職: 김 학봉, 박 상호, 신 영환, 설 진아, 이 미숙, 유 찬욱, 이 훈구, 전 일우, 김 성탁, 김 재석, 이 의호, 고 성근, 조 형근, 송 영환, 최 시천(이상 18명 2.1자)

韓國教育開發院 研究論著

<p>國民學校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크라운관 256면〉</p> <p>科學科 授業過程 模型 및 評價方法 改善研究 〈크라운관 228면〉</p> <p>靑少年 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크라운관 306면〉</p> <p>教育의 經濟發展에 대한 寄與 〈크라운관 172면〉</p> <p>教育投資의 經濟的 效果 〈크라운관 140면〉</p> <p>優秀 運動選手의 選拔·分類·適正化 方案 〈크라운관 102면〉</p> <p>國民學校 美術 繪畫 評價方法 改善研究 〈크라운관 160면〉</p> <p>生産性 向上과 技術革新을 위한 職業技術教育 의 役割 一概念的 考察一 〈크라운관 124면〉</p> <p>幼兒를 위한 놀이감 評價基準 開發 〈크라운관 218면〉</p> <p>新規 教師資格制度의 改善方向 〈크라운관 172면〉</p> <p>授業獎學 模型開發 및 現場適用 可能性 探索 研究 〈크라운관 176면〉</p> <p>國民學校 體育教育 效率化 方案에 관한 研究 〈크라운관 150면〉</p> <p>初·中等學校 컴퓨터 教育을 위한 基礎研究 〈크라운관 140면〉</p> <p>放送通信教育 媒體活用 改善에 관한 研究 〈크라운관 180면〉</p> <p>職業教育의 費用—效果/收益分析 〈크라운관 192면〉</p> <p>IEA 學級環境研究(Ⅱ) 〈크라운관 172면〉</p> <p>高等教育 入試政策 〈국관 150면〉</p> <p>教育學 研究傾向 〈크라운관 190면〉</p> <p>中等學校 教育의 質 改善研究 〈크라운관 170면〉</p> <p>韓國 教育 〈4·6배관 284면〉</p> <p>抄 錄 集 〈4·6배관 284면〉</p>	<p>原稿作成法 〈크라운관 216면〉</p> <p>初·中學生의 職業成熟度 發達 特性 調查研究 〈크라운관 124면〉</p> <p>大都市 國民學校 長期 收容 對策研究 〈크라운관 206면〉</p> <p>A Follow-up Study on the Long-Term Effects of the KEDI Educational System on Middle School Level 〈크라운관 78면〉</p> <p>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크라운관 204면〉</p> <p>The Priorities of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크라운관 146면〉</p> <p>The School Curriculum of the Republic of Korea(Ⅲ) 〈크라운관 352면〉</p> <p>Manpower Projection and Strategies('79~ '91) 〈크라운관 270면〉</p> <p>Schooling and Social Achievement 〈크라운관 128면〉</p> <p>Study on Impact of E-M Project on Korean Education 〈크라운관 134면〉</p> <p>Self-Concepts and Values of Korean Adolescent 〈크라운관 160면〉</p> <p>Educational Investment and Optimum Unit Cost 〈크라운관 156면〉</p> <p>Career Awareness in Korean primary Education Today 〈크라운관 162면〉</p> <p>Task for Development of in service Teacher Education 〈크라운관 112면〉</p> <p>Social Constructions of schooling 〈크라운관 180면〉</p> <p>Cognitive process factor of low Achievers 〈크라운관 100면〉</p>
--	--

發行處：韓國教育開發院

서울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567-5021, 567-5121

販賣處：教保文庫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전화：720-7891 · 735-6151

국민학교 특활용

영어 배움책

○ 배움책 1권, 카세트 테이프 5개

값 : 7,500원

○ 수업 지도서

값 : 2,450원

연구·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보급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전화 842-0312, 3096; 843-5474, 9037

※ 판매처 : 전국 유명 서점

※ 방송시간 [TV : 토(16:40~17:00)
Radio : 월, 화, 수(12:20~12:40)]

◇ 원고 공모 ◇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논단, 연구 보고, 교육학 산책, 교육학 이론, 현장 교육 연구 및 사례, 교육 정보
2. 매 수 : 45매 내외(200자 원고)
3. 원고마감 : 수시 접수
4. 교 료 : 2,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 출 처 : 우편번호 135
서울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교육개발원 출판실
(전화 567-5021)
6. 제출된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합니다.

〈編輯委員〉

委員長	郭 相	萬
委員	姜 武	雙
	權 樂	遠
	金 承	華
	南 美	英
	朴 慶	淑
	朴 德	圭
幹 事	咸 熙	哲

(비매품)

격월간 **교육개발** 제 7 권 제 2 호(통권 35호)

1985년 4월 5일 인쇄 · 1985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021·5121

등록번호 등록 바-574

등록연월일 1975년 8월 20일

인쇄처 : 大韓教科書(株)

※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의인 見解가 아님.

이 책은 발행 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교육 연구 개발 및 현장 교육에 관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